

CBETA電子佛典集成

CBETA Chinese Electronic Tripitaka Collection
eBook

J33nB284

益州嵩山野竹禪師 後錄

清 福慧說 洪希等編

財團
法人

佛教電子佛典基金會



目次

- [編輯說明](#)
- [章節目次](#)
 - [序](#)
 - [龔鼎孳序](#)
 - [李仙根序](#)
 - [俞孫思園序](#)
 - [錢光繡聖月氏序](#)
 - [目錄](#)
 - [住雲南大理府賓川州雞足山石鐘禪寺](#)
 - [再住雲南府嵩山禪院](#)
 - [法語\(附小佛事\)](#)
 - [示蒼波西堂嵐波後堂松波堂主](#)
 - [示雪可維那](#)
 - [示大旭](#)
 - [示法輪](#)
 - [示南指都寺](#)
 - [示大一](#)
 - [示至善](#)
 - [示嚴如](#)
 - [示善知](#)
 - [示允中](#)
 - [示良知](#)
 - [示天性](#)
 - [示本寂副寺](#)
 - [示法藏](#)
 - [示智足](#)
 - [示道悟巨雍侍者](#)
 - [示谷裕弘侍者](#)
 - [示道平谷應](#)
 - [示念佛堂超宇](#)
 - [示念佛堂靈光](#)
 - [示含中](#)
 - [示頂目](#)
 - [示知本](#)

- [示淨我](#)
- [示元極](#)
- [示淨光](#)
- [示通洪](#)
- [示允旦](#)
- [示無外](#)
- [示非臺](#)
- [示道拙](#)
- [示廓清](#)
- [示大用](#)
- [示普祕](#)
- [示普韻](#)
- [示道獻](#)
- [示克證](#)
- [示道定巨清](#)
- [示道弘僧珠](#)
- [示谷震](#)
- [示廓拙](#)
- [示廣璽](#)
- [示會友](#)
- [示念佛堂近微大德](#)
- [示澹空](#)
- [示拙虛](#)
- [示蒼奇關主](#)
- [小佛事](#)
- [書問](#)
 - [復江川令張公耕煙居士](#)
 - [復雞山石鐘慧融主人](#)
 - [復平江法華澧伯和尚](#)
 - [復鶴慶眾居士](#)
 - [與劉太史](#)
 - [寄省中眾護法檀越](#)
 - [寄楚雄參戎李檀越](#)
 - [寄賓川衛使君](#)
 - [寄何護法](#)
 - [答洱海眾護法](#)
 - [寄彭護法](#)
 - [寄宗人府經歷而足許居士](#)

- [答衛府祖護阿哥](#)
- [寄會城眾護法](#)
- [寄祁鎮臺](#)
- [寄洱海眾護法](#)
- [答劉粹吾並眾居士](#)
- [答饒玉章居士](#)
- [與鶴慶眾居士](#)
- [與嵩山諸子](#)
- [復洱海衛總戎](#)
- [與蒼舌知客](#)
- [與報國雲夢願孫](#)
- [上蘇州三際寺磚老和尚](#)
- [與文遠監院](#)
- [與兜率不磷堅長老](#)
- [與銅仁端居嵩石兩和尚](#)
- [復梅孰和尚](#)
- [與平越圓覺誠明符姪禪師](#)
- [記](#)
- [歷代祖圖直贊](#)
 - [始祖釋迦牟尼佛](#)
 - [第一世摩訶迦葉尊者](#)
 - [第二世阿難陀尊者](#)
 - [第三世商那和修尊者](#)
 - [第四世優婆鞠多尊者](#)
 - [第五世提多迦尊者](#)
 - [第六世彌遮迦尊者](#)
 - [第七世婆須蜜尊者](#)
 - [第八世佛陀難提尊者](#)
 - [第九世伏駄密多尊者](#)
 - [第十世脅尊者](#)
 - [第十一世富那夜舍尊者](#)
 - [第十二世馬鳴大士](#)
 - [第十三世迦毗摩羅尊者](#)
 - [第十四世龍樹尊者](#)
 - [第十五世迦那提婆尊者](#)
 - [第十六世羅睺羅多尊者](#)
 - [第十七世僧伽難提尊者](#)
 - [第十八世伽邪舍多尊者](#)

- [第十九世鳩摩羅多尊者](#)
- [第二十世闍夜多尊者](#)
- [第二十一世婆修盤頭尊者](#)
- [第二十二世摩拏羅尊者](#)
- [第二十三世鶴勒那尊者](#)
- [第二十四世師子尊者](#)
- [第二十五世婆舍斯多尊者](#)
- [第二十六世不如蜜多尊者](#)
- [第二十七世般若多羅尊者](#)
- [第二十八世菩提達摩尊者](#)
- [第二十九世慧可大師](#)
- [第三十世僧粲大師](#)
- [第三十一世道信大師](#)
- [第三十二世弘忍大師](#)
- [第三十三世慧能大師](#)
- [第三十四世南岳懷讓和尚](#)
- [第三十五世馬祖道一和尚](#)
- [第三十六世百丈懷海和尚](#)
- [第三十七世黃檗希運和尚](#)
- [第三十八世臨濟義玄和尚](#)
- [第三十九世興化存獎和尚](#)
- [第四十世南院慧顥和尚](#)
- [第四十一世風穴延沼和尚](#)
- [第四十二世首山省念和尚](#)
- [第四十三世汾陽善昭和尚](#)
- [第四十四世石霜楚圓和尚](#)
- [第四十五世楊岐方會和尚](#)
- [第四十六世白雲守端和尚](#)
- [第四十七世五祖法演和尚](#)
- [第四十八世昭覺克勤和尚](#)
- [第四十九世虎丘紹隆和尚](#)
- [第五十世天童曇華和尚](#)
- [第五十一世天童咸傑和尚](#)
- [第五十二世臥龍祖先和尚](#)
- [第五十三世徑山師範和尚](#)
- [第五十四世仰山祖欽和尚](#)
- [第五十五世高峰原妙和尚](#)
- [第五十六世中峰明本和尚](#)

- [第五十七世千岳元長和尚](#)
- [第五十八世萬峰時蔚和尚](#)
- [第五十九世寶藏普持和尚](#)
- [第六十世東明慧昂和尚](#)
- [第六十一世海舟永慈和尚](#)
- [第六十二世寶峰智瑄和尚](#)
- [第六十三世天奇本瑞和尚](#)
- [第六十四世無聞明聰和尚](#)
- [第六十五世月心德寶和尚](#)
- [第六十六世龍池正傳和尚](#)
- [第六十七世天童圓悟和尚](#)
- [第六十八世浮石通賢和尚](#)
- [第六十九世山暉完璧和尚](#)
- [僑陳如尊者](#)
- [千歲寶掌和尚](#)
- [寶誌公和尚](#)
- [天台智者大師](#)
- [寒山大師](#)
- [拾得大師](#)
- [明州布袋和尚](#)
- [佛圖澄禪師](#)
- [東林惠遠禪師](#)
- [永嘉真覺禪師](#)
- [南山宣律大師](#)
- [圭峰宗密禪師](#)
- [唐一行禪師](#)
- [康居尊者](#)
- [國一欽禪師](#)
- [青原思禪師](#)
- [三藏玄奘法師](#)
- [南泉普願禪師](#)
- [趙州從諗禪師](#)
- [巖頭叡禪師](#)
- [雪峰存禪師](#)
- [雪竇顯禪師](#)
- [溈山祐禪師](#)
- [仰山寂禪師](#)
- [洞山介禪師](#)

- [曹山寂禪師](#)
- [雲門偃禪師](#)
- [法眼益禪師](#)
- [大慧杲禪師](#)
- [永明壽禪師](#)
- [達觀紫柏大師](#)
- [憨山清大師](#)
- [蓮池宏大師](#)
- [雪嶠信禪師](#)
- [破山明禪師](#)
- [天童悟老人](#)
- [浮石老人](#)
- [山暉老人](#)
- [印文禪師](#)
- [石鐘耆宿普足字德周八十三徒廣\(叡智\)請贊](#)
- [雜偈](#)
 - [示徹元張居士](#)
 - [示徹龐黃道婆](#)
 - [示徹淵劉居士](#)
 - [示徹海梅居士](#)
 - [示宗冰李居士](#)
 - [示徹海劉居士](#)
 - [示徹雪廖居士](#)
 - [示宗旨楊居士](#)
 - [示徹達王居士](#)
 - [示徹義黃居士](#)
 - [示徹旨王居士](#)
 - [示徹玄李居士](#)
 - [示徹教李居士](#)
 - [示虛碧李居士](#)
 - [示宗直李善人](#)
 - [口占](#)
 - [寄雞足良因禪人](#)
 - [示葉榆道邕行者](#)
 - [辛亥春見好事者](#)
 - [碧雲寺](#)
 - [賦得白鷺鷥](#)
 - [九月桃花勝放](#)

- [青平](#)
- [祿曉](#)
- [白邑村](#)
- [鴉關](#)
- [獅口](#)
- [楊老](#)
- [懷古](#)
- [淨蓮菴](#)
- [響水](#)
- [碧山茶花](#)
- [雙門](#)
- [趙普關](#)
- [早發廣通](#)
- [望鹿城](#)
- [石人](#)
- [仙人骨](#)
- [石鼓城](#)
- [白雲寺](#)
- [沙橋](#)
- [煉象](#)
- [武英關](#)
- [緣蘿泉](#)
- [望蒼山](#)
- [小雲南](#)
- [弔楊聞谷居士](#)
- [郭居士](#)
- [贈道者](#)
- [望九頂](#)
- [晚過賓陽張州牧別業](#)
- [金牛山經煉洞贈白雲居主僧](#)
- [拈華寺贈德解](#)
- [夜雪](#)
- [蘆花澗望靈峰](#)
- [雞山八景](#)
 - [天柱佛光](#)
 - [華首晴雷](#)
 - [蒼山積雪](#)
 - [沮海回嵐](#)

- [塔院秋月](#)
- [萬壑松濤](#)
- [瀑布穿雲](#)
- [重崖返照](#)
- [華首門](#)
- [示非緣尚善人](#)
- [示宗理鄭善人](#)
- [許使君見過不遇即原韻答之](#)
- [寄松語](#)
- [壽玉章饒居士](#)
- [代天童化主巨唯兄化米](#)
- [己酉冬觀王出獵王宗語居士索書](#)
- [過關嶺](#)
- [冬日示守直宋居士](#)
- [示三學](#)
- [示宗語王居士](#)
- [寄張邑侯耕煙老居士](#)
- [贈密化](#)
- [贈嵐波](#)
- [答獅子林怡宇](#)
- [贈大智菴覺仁](#)
- [偶成](#)
- [寄酬雞山石鐘嵐波](#)
- [贈本寂副寺](#)
- [贈嵐波首座](#)
- [贈松波堂主](#)
- [贈蒼波首座](#)
- [贈良因監院](#)
- [春日同友登大士閣似一心](#)
- [答寂光寺深修](#)
- [答御凡](#)
- [題白雲居天池](#)
- [寄松波主人](#)
- [答雞山大眾](#)
- [送大旭](#)
- [示宗本葛善人](#)
- [示童子](#)
- [示雲蹤雷居士](#)

- [示趙善人](#)
- [示知幻善人](#)
- [訊圓通貫一禪師病](#)
- [春日答楚雄許別駕](#)
- [示宗鏡刁居士](#)
- [贈存之張居士](#)
- [寄蒼舌道者](#)
- [送蒼舌知客吳門代省](#)
- [贈宗鏡羅太極居士](#)
- [寄雲夢法孫](#)
- [尋玄鑑遺蹟示釗侍者](#)
- [贈昌侍者](#)
- [送戴綸之還句容](#)
- [中秋對月分韻得花字](#)
- [與蹇文山居士](#)
- [贈江陵鱗長馮居士](#)
- [辛亥六月大水紀事](#)
- [贈宗孝閣居士](#)
- [薦董護法鐘翁](#)
- [弔沈總戎](#)
- [薦胡門姚氏](#)
- [中秋謾興](#)
- [把盞問月](#)
- [喬松棲鶴](#)
- [思親](#)
- [苦雨](#)
- [蟬鳴樹底](#)
- [疏竹吟風](#)
- [聽上方梵唄](#)
- [池成月自來](#)
- [雁行](#)
- [玉梅](#)
- [壁上梅花](#)
- [看菊](#)
- [步月](#)
- [嵩山晚眺](#)
- [聽琴](#)
- [洞庭秋月](#)

- 昆明八景
 - 昆池夜月
 - 商山樵唱
 - 金馬朝暉
 - 碧雞秋色
 - 雲津夜市
 - 官渡漁燈
 - 螺峰疊翠
 - 龍池躍金
- 洞庭山月
- 望華山
- 禮千佛名經示眾
- 贈千翁王總戎
- 己酉秋送王公北上
- 昔升菴公謫滇…
- 示化一堅冰二知客兼示夢周
- 奉和耕翁居十嵩山夜話
- 過楞伽石贈輝然靜主
- 勛玉林體賢二居士
- 和李玉林杜體賢二公贈從聞大師原韻
- 送象翁耿路南
- 贈二嶽昆仲北歸
- 悼祁總戎
- 次護法毅淑楊公見贈原韻
- 龔北泉劉粹吾轉藏經十二藏歌以贈之
- 廣通
- 宿鹿城東馮太守
- 至日壽何檀越
- 賓川報國寺
- 示木邦十舍衍合
- 九日
- 喜雪可維那月可後堂二子呈偈遂贈
- 和張青崖兄游古庭值雨過歸化茶房小坐原韻
- 次從聞兄游古庭原韻
- 中秋贈蒼波嵐波還雞足
- 過胡公怡齋
- 送張日平居士還里
- 昆明道中

- [宿安寧州](#)
- [祿豐](#)
- [旅舍用壁韻](#)
- [早發金蟬寺](#)
- [沙橋古寺同從聞大師題壁](#)
- [再過龍華寺](#)
- [洱水贈祁鎮臺](#)
- [洱海城](#)
- [賓居道中寄督府衛公](#)
- [晚游賓陽小西湖贈衛使君](#)
- [贈石鐘松波](#)
- [雪霽贈石鐘印文禪師](#)
- [雪霽登天柱峰有感](#)
- [宿迦葉殿](#)
- [念佛堂贈近微](#)
- [荅蒼波](#)
- [荅文郁](#)
- [登近雲樓有懷](#)
- [己酉秋巨唯禪師見贈弘覺老人並遠菴和尚語錄詩以致謝](#)
- [荅大賢](#)
- [大覺寺觀姜御史遺跡](#)
- [早過華嚴寺望羅漢壁](#)
- [題傳衣寺松贈虛中](#)
- [復片雲居](#)
- [贈大悲閣清宇](#)
- [贈石鐘德周](#)
- [同印文看梅](#)
- [暇日](#)
- [晚望赤石崖](#)
- [同密什晚登鉢盂峰荅繼聖禪者](#)
- [慧建菴同穀淑楊公子固居士賦得梅字](#)
- [又和穀淑楊公看梅原韻](#)
- [次怡齋看梅原韻](#)
- [薛蘿居值玉林居士寫書索句](#)
- [荅參智禪者](#)
- [荅智足禪者](#)
- [和劉太史五月賞菊原韻](#)
- [又和九月賞梅華原韻](#)

- [又和六月賞海棠](#)
- [又和池心石山](#)
- [送張日平還浙中](#)
- [中秋後一日同文季公嵩山對月](#)
- [讀石門程昆明詩集](#)
- [和而足許公登雞足偶成原韻](#)
- [又和過聖峰寺擬登絕頂不果原韻](#)
- [又和宿大覺寺原韻](#)
- [春王小坐傳衣寺茶華下](#)
- [送三山陳刺史還里](#)
- [補遺](#)
 - [登高](#)
 - [溫泉](#)
 - [贈小壺橋戎臺夏公](#)
 - [臘八日雪](#)
 - [雜詩](#)
 - [贈別思園余明府](#)
 - [九日過衛府新剏梵剎贈尼性空](#)
 - [宿金閣寺示得實劉居士](#)
 - [壽弼臺張戎府](#)
 - [壽玄初劉居士](#)
 - [己酉菊月有居士吳井東鉏地得雲板一以送余…](#)
 - [禱雨](#)
 - [禳霖](#)
 - [次月下看梨花原韻](#)
 - [夜泛昆池](#)
 - [再泛](#)
 - [贈擎天胡公](#)
 - [再過金閣寺示晏然朱居士](#)
 - [寄銅仁東山端居和尚](#)
 - [示蒼雨書記](#)
 - [贈育之張公北上](#)
 - [壽高太夫人劉覺證](#)
 - [朗耀禪師塔銘](#)
 - [雷宗遠為百歲婆祖夢乞偈刻石](#)
 - [宗派偈](#)
- [卷目次](#)
 - 1.

- [2](#)
- [3](#)
- [4](#)
- [5](#)
- [6](#)
- [7](#)
- [8](#)
- [贊助資訊](#)

編輯說明

- 本電子書以「CBETA 電子佛典集成 Version 2023. Q4」為資料來源。
- 漢字呈現以 Uni code 3.0 為基礎，不在此範圍的字則採用組字式表達。
- 梵文悉曇字及蘭札字均採用羅馬轉寫字，如無轉寫字則提供字型圖檔。
- CBETA 對底本所做的修訂用字以紅色字元表示。
- 若有發現任何問題，歡迎來函 service@cbeta.org 回報。
- 版權所有，歡迎自由流通，但禁止營利使用。

益州嵩山野竹禪師後錄序

世祖朝今天童山曉哲公禪師說法長安之隆安皇帝萬機之暇常以步輦幸其寺至則握手上殿就坐論道幾如賓朋維時扈從之臣以為榮曉公則澹如也夫世之人得富翁一諾即起色十倍況人主寵沃如寮友其衷不動有如曉公者乎若非蕭然名利之外萬慮都盡亦何能臻此哉余時掌院事無事必過從過則曉公必埽一室坐余其右燒香瀹茗發五嶽之高論揚袂掀眉倒千江之雄辯於是乎法門細大古今得失歷歷可見乃今知馬師以還東山父子而後至臥龍仰山及金陵翼善海舟慈公凡八世皆鍾岷秀吐詞為經真大有為宗工宿衲故上而朝廷內而當軸外而群宰輻輳問道莫不虛而往實而歸至或策駿爭鑣而惟恐其不獲一聞緒論者總之得盡性真理超然遠詣確乎不拔絕不可馴至乎塵網者也張子謂儒門澹泊收拾不住皆歸釋氏至此益信一日曉公惠益州嵩山野竹慧公禪師語錄一部凡十四卷讀之言詞峭俊多發為名理詩頌清新盡黜去瑕垢或置之恕中南堂間不能辨誰恕誰南或置之昭覺妙喜間亦不能辨孰覺孰喜其果得天童悟報恩賢之家法長松壁公之血骨為輓近世一翹楚也邪且見桑梓巴渝與曉公同邑又曉公猶子前謂皆鍾岷秀吐詞為經大有為之宗工宿衲儒門收拾不住今又見於此也無何曉公抗疏南還余作詩送別十年來不得再晤一吐所欲使人遠想故人夢寐不置兼想見竹師亦如想見曉公者久矣今秋竹師門人集後錄又八卷不辭萬里走力就正曉公於天童而曉公聞余念己亦念竹師乃馳一函為介并以後錄寄余且曰思欲見其人而不得孰若讀其人之集如見其人焉倘不吝一言弁於其人之集之首使其人亦一見公之言而讀之如見公焉此非所謂兩思而兩得見絕非旦莫之遇而有離合悲歡之間也哉余讀竟喜曰較前錄則潤而色老而蒼益知竹師所詣近日知解宗師斷斷不可及也余因是曉公之言歷序與曉公往還之久暨得竹師前後集讀之之意乃筆以弁竹師後集若作序竹師大意則吾豈敢。

康熙十一年壬子孟冬光祿大夫禮部尚書加一級侍經筵庚戌會試正主考前兵刑二部尚書都察院兩掌院事左都御史乙未甲辰庚戌充文武殿試讀卷官戶刑二部左右侍郎翰林院提督四驛館太常寺少卿吏禮兵科都右給事中同甲戌進士出身淮南龔鼎孳撰

序

余家在梓之遂寧涪江一水由梓趨渝至溫則東矣若泛溫溯梓或云阻長自梓達溫輕舟順流頃刻可至即五百里之山川雲樹室廬相去猶莽蒼也顧余幼在江寧長居帝里親朋耆舊久闊星霜風景故園徒瞻明月而其

閒或有高賢蘊璞潛德幽光在所疏缺者復何限乎一日偶過垣中渝州雙山劉子案頭見有嵩山野竹禪師語錄詢之方知嵩山為益之名藍而野竹禪師為吾長壽之名產實蘇之雙塔磚鏡壁公之世適也闡道德之深微醒人心之本有縹緲數帙等於貝文不幾為吾鄉江山生色邪其語錄乃因人說法靈變莫測而錄中閒載七言五言小詩及絕句細讀之不過借彼宮商揮吾理奧豈必如唐人之琢工月露雕刻形聲哉要之名理既到而形聲月露之詞未常不在其中昔惠琳兼內外之學惠休賦碧雲之篇遠公蓮社東安議林既具原本自標緒餘方之於斯真稱伯仲矣居山谷者聞足音而喜違故鄉者讀鄉人之集如晤故鄉之景彷彿涪水之濱雲樹室廬山川人物歷歷在目差慰遠思而況乎其寓言妙義使人渙然以悟邪因筆寄贈即以為序可也。

康熙己酉孟秋賜進士及第內秘書院侍讀學士加一級安南正使賜一品服李仙根題

序

嵩山者昆明之精藍也野竹禪師慧公者渝之長壽人也生有異質智趣不凡幼即皈心紺園未常就里塾學既潛心釋典精進苦勤始而護珠終而捨筏融徹四諦貫綜六經警效希微揮毫珠玉豈非攬英秀於江山秉實學於神哲者哉早歲歷永昌郡紳士瞻仰嗣復振錫嵩山弘開誘掖由此觀之宗門之中亦具有經濟乎先是嵩為會城名勝歲久頽廢前輩大師如天童悟浮石賢磚鏡壁即師之世次然道燈雖傳法力未遍師至有所感孚所以當事群公聿來護法未五年一旦改觀飛薨藻耀密宇幽清瑤露風甘金雲日麗化城既闢而入其中者無不生_已度想余戊申冬以調補來滇越王子春育之張公瑋師之鄉人以嵩山後錄相示披閱之餘如晤師旨矣師常言箇事人人本具說箇甚麼則無端而後錄豈師之心哉又言只因人薶沒家珍妄自馳求所以種種譬喻無數方便使人晤明心地則後錄又烏可_已邪竊自思之自馬石至臨濟曹洞支派雖分心印是一則師之精警此一大事即坐為禪不坐亦為禪言說講究為禪不言說講究亦為禪何適而不可余雖未識師因張公而得後錄因後錄而得師聞聲愛慕寧在班荆傾盃閒乎爰敘其事以弁後集庶使嵩山一片席不媿慈蔭大千。

賜進士出身文林郎原知河南新安縣事丁酉本省同考莆田俞遜思園題

序

昔菩提達磨親承跨水逢羊識記見赤縣神州有大乘氣象遂踰海西來化行震旦而此土中人獲聞無生妙諦共登上乘者千二百年矣其在今日惟三吳兩浙剡竿相望說法如雲不幸而生遐陬僻澨有畢世不聞佛法者則

有緣無緣奚翅霄壤隔矣雖然性猶水也禪猶舟也高原大陸水性恆存而大施般若之航力鼓先登之楫必待其人後行耳野竹大師者生緣巴蜀倡道梁益為磚鏡壁老人嫡骨種草報恩浮和尚真孫也當其幼遭兵燹骨月凋殘使得覩破幻緣慨就芟染已具大勇猛大智慧大解脫與尋常托跡沙門者實相徑庭逮其死心參究過谿舉首頓悟萬法歸一落處所謂從緣薦得永無退失從此聲為毒鼓味具鳩糞令大地眾生略露些子罔不喪身失命試讀其慈雲嵩山諸錄簡確淨圓了無贅義若紫帳珍珠不輕拋撒而一往見寶其間理事洞融人法雙顯般柴運水總是玄機顧鑒嘖呻無非妙理師謂立賓立主絕滲漏於機先有實有權驅聖凡於喝下斷斷非誣也茲門人復輯其雞足山新錄一編不遠萬里介吾同門嘯堂和尚問序於余余讀之咬嚼不破儼蚊子之上鐵牛機鋒不停恍隔窗之睹走馬而且病點五般話商兩錯真覺日前大道八字打開坐地長安一超直入較之從前諸錄更見惡辣因嘆師為嘯公猶子同生巴渝咸屬悟祖法裔今嘯公令行吳越師則建幢嵩嶺豈非地靈人傑嫩桂久久愈昌歟夫達磨初來五度受毒際會未諧如愚若訥師於碧雞金馬之間開法未幾緇素景從飆馳雷震神通妙用當必有大過人者余敢不望空遙禮曰梁州古佛出世也哉。

康熙癸丑嘉平淞鄞蟄菴道人本秀錢光繡聖月氏沐手拜題

益州嵩山野竹禪師後錄目錄

- 第一卷
 - 上堂
 - 住雲南大理府賓川州雞足山石鐘禪寺
- 第二卷
 - 上堂
 - 住雲南大理府賓川州雞足山石鐘禪寺
- 第三卷
 - 上堂
 - 再住雲南府嵩山禪寺
- 第四卷
 - 法語(附小佛事)
- 第五卷
 - 書問
- 第六卷
 - 歷代祖圖真贊(附諸祖贊)
- 第七卷
 - 雜偈
- 第八卷

。雜偈(附補遺)

目錄終

益州嵩山野竹禪師後錄卷一

住雞足大覺寺嗣法門人洪希編

住雲南大理府賓川州雞足山石鐘禪寺上堂

康熙十年秋師在嵩山受諸郡護法諸山耆舊請十一月十五日到院眾護法率諸山耆舊請開堂上堂拈請帖云見麼只者符子可以動天地可以感鬼神言言玄要字字珠璣倘或未信知事宜過指法座云瓢笠隨雲到石鐘一條竹杖活如龍纔堪華首煙深處又上摩霄天柱峰喝一喝遂陞告香云此瓣香揭開八尺捏聚尺八供養本山祖師迦葉尊者此瓣香河山並秀日月同明可以行四時可以育萬物端為祝延今上皇帝聖躬萬歲闔國公孤藩統千秋再及文武官僚縉紳護法請主印文諸山勤舊此瓣香十一回梁州毒蝮彌天畢鉢窟前何妨再申供養前住江南蘇州府雙塔壽寧磚鏡老和尚昇首座問遠峰瀑布拖飛練近壑松杉送梵音如何是石鐘境師云問得自然親進云石女到來難措足木人聞見也愁眉如何是石鐘人師云六根非不具進云恁麼則六詔重開化日五湖又扇慈風師云大家在者裏希西堂問昔日天龍一指只接俱胝今朝和尚一棒接得何人師云一箇也無進云某甲承當去也莫怪粗糙師云迦葉師兄笑未休智後堂問迦葉未入此山早有石鐘因甚但聞其名不聞其聲師云九重疊翠裏深藏不斷雲進云不因吾師指此音誰得聞師云剛纔匝地又普天智便喝師云好喝只是不知落處怡宇問華首山前寶華座請師垂示大家聞師云好音在耳人皆仰宇豎起拳云青帝將傳新歲令不妨舉手候陽春師云符到奉行大旭問從上相承即不問當陽一句作麼生師云石鐘寺裏陞堂進云初祖道場新雨露庭前柏子拂清風師云卻有與麼事耶石幢問如何是諸佛出身處師云山僧昨夜向松閒走一回秋水問石鐘幽韻含千古玉振金聲事若何師云一句不妨重指示千年松下長茯苓進云自此頭陀常在定剎竿倒處又重新師云惱亂春風卒未休乃云遠勞諸郡削牘加之諸山交章約山僧到山不容解包息喘即令登此座子要山僧舉揚從上宗乘以為開示當人極則一段受用大事山僧籌之無法可說只得將此共見共聞的不妨舉似諸公聊作拋磚引玉去也大眾師子林豈不四時蒼翠四觀峰豈不八面玲瓏河子孔豈不川流不息沙址村豈不各開門戶猢猻梯豈不勘辨往來太子洞豈不說妙談玄袈裟石豈不日炙風吹鉢盂山豈不常貯甘露更有鴉鳴鵲噪日往月來豈不事事見成無奈總作境會真可憐生雖然萬古碧潭空界月再三撈攬始應知。

張護法上迦葉初祖旛上堂拈起旛云只者花簇錦攢的是我國勳張公與李夫人男祖保於迦葉佛時般若地上種植靈苗自迦葉至釋迦老子時始得節錯根盤枝繁葉茂滋成五色寶絲縷更假巧手結成天鬘陀羅雲持以奉上畢鉢羅窟飲光尊者不獨徼福福至益壽壽延亦且與飲光老子行同虛空界住同虛空界去也畢竟以何為驗挂向天柱峰飛揚龍鳳影。

上釋迦文佛旛上堂龍驤龍形鳳翥鳳影寶雲交錯花雨含潤只此不思議寶火雲寶珠雲寶鬘雲寶絲雲一以先奉迦葉尊者一以今奉釋迦文佛大眾你看者寶旛飛揚時常豎窮橫遍安住時常出微妙音由是觀之一切莊嚴海一切功德海一切智慧海實從我張公李夫人男祖保自心流出山僧與麼看則有分何也不是渠儂多意氣他家曾蹋上頭關。

請兩序上堂獨掌不浪鳴兩掌鳴聒聒所以同聲相應同氣相求的如楊岐事慈明演祖得昭覺他如曷鐵面通烏頭賢真牧才莊主其餘折花添瓶打碓曳磨第一座也有人第二座也有人第三座也有人石鐘也不裝香供養也無言說議論何故響銅頭鐵額漢盡在我山中。

上堂自入山來已半月匆匆人事未曾歇忽然聽得鼓聲催兔角龜毛齊惡發築碎破沙盆擊爛乾矢橛是甚潑天門戶石頭路滑任伊佛來祖來也只叫苦叫屈咄。

開爐上堂僧問如何是奪人不奪境師云葉鏡湖含月如何是奪境不奪人師云蒼山雪作雲如何是人境兩俱奪師云上關花滿地如何是人境俱不奪師云下關不謝梅向上一句再請垂慈師云五九盡日又逢春問選佛場中頂天立地者落何階級師云落七問教乘即不問西來意若何師云大理弓魚皆有子問昨日石鐘寺今朝應宗堂中間不動句吾師為舉揚師云莫棒打石人頭進云詩書不習還得及第也無師云釣魚船上謝三郎問世尊拈花迦葉微笑意旨師云適纔還記得進云為甚麼響師云不獨觸風化問如何是臨濟一隻眼師云終不得信進云怎奈照天照地何師云一任夷嶽盈壑問法昌昔日開爐行腳僧無一箇豈不寂莫師云何不問今日的進云石鐘今日開爐衲子千有餘箇又作麼生師云只須薦取古人的問釋迦過去彌勒未來即今的響師云人天眾前終不寐語乃拈杖云見麼此是二千年來迦葉師兄未曾動著的新石鐘一時著向大爐鑪中用火煨之用水淬之不覺翻成一塊頑鐵擊又擊不碎鋸又鋸不開正無法可設忽然河子孔蝦蟆[跳-兆+孛]跳起來上告天帝天帝云不干我事下告土主祠道士道士云不干我事猢猻梯有箇猢猻約住云老蟆你只恁的奔走上下阿誰德汝且座上長老自有處分師連卓杖云快活快活將謂無殺著原來也有者箇老猢猻便下座。

上堂僧問法不孤起仗境方生只如二十里松行欲盡青山涌出梵王宮此是境如何是法師云此是境如何是法問大悲千隻眼那箇是正眼師隨聲便打進云離卻打響師連打問昔日兩堂下喝賓主歷然如今兩堂未喝賓主在甚處師云兩眼對兩眼問某甲乍入佛法不知誰是沙彌主師云汝者

一拜切不可忘卻問一子出家九族生天為甚目連母在地獄師云他家別有通人愛問庭前柏子即不問屋後栽松事若何師云臨濟道的乃云若論此事也不得道無也不得道有明眼宗師無影林中高懸日月通方作者不萌枝上暗辨春秋若是只悟自己不會目前此人有頭無尾若是只會目前不悟自己此人有末無本若要自己目前一一圓明須是木上座始得遂卓杖一下云只愁歌舞盡化作彩雲飛。

報國海長老歸請上堂僧問大事未明如喪考妣時如何師云一步不闊一步進云大事已明如喪考妣時如何師云一步要闊一步問雞足山中水足草足如何受用師云都來隨分進云恁麼則箇箇飽餐去也師云木人也解唱巴歌問蓋天蓋地之句即不問如何是平實句師云勸君莫逐兔逐兔損禾黍問如何是山中境師云竹疏煙補密梅瘦雪添肥進云如何是境中人師云頭上無蓬塵足下有芒鞋進云石鐘一段真消息及第堂前快殺人師云錦上鋪花又一層問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如何是無為師云誰肯拆籬補壁問石鐘結冬何處過歲師云一緇草鞋未有底德周勤舊問石鐘未扣時如何師云兩耳聽不出進云已扣時如何師云兩耳識不出進云謝和尚答話師云汝老矣幸而得聞師舉僧問雲峰悅和尚山顛巖崖還有佛法也無悅云有僧云如何是山顛巖崖佛法悅云猢猻倒上樹師云道則特殺只是使者僧不能心誠悅服若是問石鐘山顛巖崖還有佛法也無向道有如何是山顛巖崖佛法向道山光悅鳥性潭影空人心。

衛府祖護請上堂僧問祖師門下本無一物因甚浮山有九帶師云為他舌頭長如何是佛正法眼藏帶師云虛空吞萬象萬象總不知如何是佛法藏帶師云瀑布落潺湲松風拂蘿月如何是理貫帶師云日出海門東搏桑最先照如何是事貫帶師云夜來何處火燒出古人墳如何是理事縱橫帶師云落花春不管流得到人間如何是屈曲垂帶師云手持千里鈔林下道人孤如何是妙協兼帶師云鵲鳩樹上啼意在麻畬裏如何是金鍼雙鎖帶師云深林人不知明月來相照如何是平懷常實帶師云玉鞭雲外指春色在江南更有一帶請師速道師便打問一切聲是佛聲不師云莫貴耳賤目進云與麼則火爐說法諸佛立地聽去也師云火爐說甚麼法進云唵唵唵師作聽勢乃云磨禪擦禪來得兩月日矣者箇為甚有會有不會石鐘寺裏安禪畢鉢羅窟打坐為甚有見有不見還知麼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

上堂僧問離四句絕百非請師直指西來意師云未陞座時致將一問來進云和尚恁麼猶較馬師百步師云誰肯跛驢趁隊問牟尼珠人不識如來藏裏親收得敢問如何是藏師云與汝往來者不是僧禮拜師云把將珠來僧喝師云莫呈土彈子問昨日風今日風不從別處起時如何師云石鐘寺前不得更問著別人進云潑天白雨澍扶犁水過膝師云頭上漫漫又作麼生進云一段風流事佳人獨自知師云少賣弄師舉臨濟逢佛殺佛逢祖殺祖逢羅漢殺羅漢逢父母殺父母逢眷屬殺眷屬始得解脫師云者老漢果然

有大人相真是一員作家只是未有落處所以只是箇白拈賊為甚如此響
賊物現在以拄杖一時打散。

月可上座請上堂僧問離婁能見秋毫如何不辨正色師云為伊見得秋毫
進云師曠能聞蟻鬥如何不別絃絲師云為伊聞得蟻鬥進云和尚還辨還
別不師云山僧亦不辨亦不別進云乞師一頌何如師示頌云離婁能見秋
毫師曠能聞蟻鬥一椎擊破見聞論甚麼箇屁皺僧禮拜問即心即佛時如
何師云船子下揚州進云非心非佛時如何師云天曉爭解纜進云不是心
不是佛不是物時如何師云坐卻舌頭著進云與麼則泥牛吼處天關轉木
馬嘶時地軸搖師云切忌人前走屁乃云十二月初一林下貴所適松閒立
斯須望見蒼山雪連絡十九峰[番*支]弄湖光日徐行蹋斷流水聲縱觀
寫出飛禽跡大眾月上座自粵東來也不問他青草愁雲雪積將軍之樹黃
沙苦霧冰堅太史之河只如鎮海明珠作何色相還能識得者麼便下座。

上堂僧問付金襴外別傳何物師豎杖云為眾竭力進云某甲掩耳去也師
云木上座笑汝在問如何是四觀境師云煙霞生背面問寺前一片石有時
坐有時臥時如何師云渠未常不茹進云不坐不臥時如何師云獨立望何
極問天下老和尚還有不為人說的法麼師云有進云如何是不為人說的
法師云柰桶問世尊不說的和尚還說不師云山僧不說別有人說進云迦
葉不聞的和尚還聞不師云山僧不聞別有人聞進云春色縱然全不露東
風早_已上溪梅師云聽事不真徒勞傳信僧喝師打三棒乃云般若巖終日
浩浩商量合談何事你諸人若是總見總聞我也知你卒難湊泊若是未見
未聞我也知你大相孤負事不得_已吾今為汝保任此事終不虛也擊香几
云見麼聞麼者一片田地分付來多時也亦似華首門放光處不論貧之與
富貴之與賤僧之與俗男之與女各有一面圓光自然光光相攝不隔纖毫
只是你諸人不曾理會所以見如不見聞如不聞若是但辦肯心必不相賺
復擊香几云得坐披襟向後自看始得。

妙宜上座請上堂僧問望州亭烏石嶺相見即不問僧堂前相見事如何師
云勘過了打進云若論主學人無位次若論賓和尚無位次是一邊語兩邊
語師云一邊不是兩邊尤非進云祇如賓主相見合談何事師云不談別事
進云原來有人師便打問如何是真佛師云如水洗水進云如何是真法師
云如空合空進云如何是真道師云如鏡照鏡僧喝師云只饒一喝威音外
猶較山僧半月程乃云若是克證無生頓超方便者須是胸藏六合指動大
千方能打鎖敲枷去黏解縛若是提獎嬰兒撫憐赤子從苗辨地因語知人
者堪作麼生不如大家歸寮且待來日看。

上堂僧問世尊三昧因甚迦葉不知師云汝何不問諸方進云勘破了也師
云世尊三昧響僧便喝師云喝任汝喝如何是世尊三昧僧舞坐具便行師
顧侍者乃云始從芳草去又逐落花回衲僧家到此十箇有五雙花添錦上
采喝盤中若是石鐘則不然八花毬子上不必繡紅旗。

大覺寺心字文郁大賢供眾請上堂僧問達磨對武帝云不識由此不契乞別一轉語得合帝意去師云千虛不如一實僧禮拜師云汝猶未活在問大地平沉時和尚向甚處立腳師云闍黎頭一轉問得是問如何是衲僧本分事師云殺人放火乃云赤肉團鍼筍不入乾矢橛水洗不清賣弄蘿蔔頭滅卻正法眼白殺狸奴也解唱也解和蝦蟆蚯蚓也解唱也解和誰能提祖印於無影林中懸慧燈於不萌枝上者裏若是殺人不眨眼的作家戰將便請卸甲倒戈若是兜三搭四的我則目視青霄長歌綠水去也卓杖一下復舉大覺參臨濟濟舉拂子覺敷坐具濟擲下拂子覺收具參堂師顧視左右云還知二老人麼分明領出春暖風和草木香兩人鼻孔不曾藏如今無奈噉糟者開眼堂堂入醉鄉。

尼廣韋請上堂僧問如何是雞山頂上一株松師云枝撐六合葉蔭十方進云恁麼則接漢蛟姿存變化衝霄野鶴可為巢師云險似昨日問如何是半提師云提獎嬰兒撫憐赤子進云雪裏分粉易墨中辨煤難師云意在射鵰翻為彈雀問若能推者即是汝心則是認賊為子修山主云若能推者不是汝心則是認賊為子意旨師云石鐘有棒不打汝進云家賊易剿白拈難瞞師云總跳者裏不出乃云平常應變妙喜室中不犯鋒鋌直截酬機灌溪句下聲和響順臺山大會齋可起叢林浴室揭榜意堪勒泉石到者裏自然入林不動草入水不動波若也畏刀避劍倚草附木不堪持論還諦信得及麼海嶽雲山都拋棄贏得莊周蝶夢長。

上堂風入松號泉落石響一歷耳根百劫快暢若恁麼會正是隨聲逐響不恁麼會又成逐物迷源畢竟如何嚇嚕嚇嚕。

傳衣寺虛中太安道林三上座請上堂僧問鷲嶺拈花即不問雞足傳衣事如何師云弄巧成拙問如何是鉢羅娘切腳師云二十棒寄與演祖二十棒自喫問如何是法身師云雨洗淡紅桃萼漱進云如何是法眼師云袈裟角下藏不得進云恁麼則清風高九萬一舉過須彌師云誰是罕堵那吒掌上擎驀拈拄杖擊香几云擊開沒盡藏放出無位人蹋殺三賢不賸十地其餘六凡九地是甚齷齪卻在應宗堂前揚聲大叫快活快活忽被石鐘長老拄杖驀面一擲翻成一塊頑鐵及乎問他世尊傳金襴之外別傳箇甚麼他卻不知復擊香几一下便下座。

佛成道日南指省谷二上座請上堂僧問應時及節分明句請師為眾廣敷揚師云猿抱子歸青嶂裏進云自從一睹明星後無端鈍置到今時師云百鳥銜花竟不來問如何是戒師云珊瑚枝上月進云如何是定師云荷葉盛玉露進云如何是慧師云一呼知四事乃云居城郭時看擔來負去者日無休息更有誇經紀較重輕瞞天說價就地還錢雖則一天真各有所適一往看來實可憐憫及入山來聞松聲澗響者亦日無休息更有起秀麗含赤丹麋鹿為伍鳥雀作朋雖則了了無猜共相馴伏一往看來亦未是妙還知本分受用處麼聽取一頌十年領眾住昆明官長往來苦送迎此日石鐘洞壑裏等閒贏得住山名。

華首歸上堂山僧有一椿事不得不舉似大眾適纔大眾同著山僧到迦葉殿喫高居士齋轉向華首門眺南雄清秀西洱汪洋北勝與劍閣相暉東山並麗水聯絡山山蟠鬱岫岫回嵐百川溢金沙大壑飛霞聯碧落千峰回玉浪天柱摩蒼透銀河牧者唱樵者歌聲隨巖谷雨以時雲以時景逐溪光既與諸人眼同見耳同聞為甚背地裏卻道也有到處也有不到處大眾不見道未達境惟心起種種分別達境惟心矣分別即不生喝一喝下座。

上堂僧問袈裟之下還有失落人身的也無師云怎怪得山僧師舉趙州到臨濟濟問如何是祖師西來意州云正值老僧洗腳濟近前作聽勢州云要會便會更啗啄作麼濟便歸方丈州云三十年行腳今日為人錯下註腳師云二大老恁麼要且無祖師西來意若人揀點得出到方丈通箇消息。

上堂僧問和尚登雞足入華首曾親見迦葉也未師云者鈍漢甚處回避得來進云祇如相見時如何師云放他一頓進云恁麼則石門不久閉也師云門裏道將一句來僧喝師云此是門外的進云門裏的請師速道師云兩口一無舌問如何是即心即佛師云頭上角未生進云如何是非心非佛師云腳下毛先出問如何是如來禪師云如是我聞進云如何是祖師禪師云禮拜了向汝道問如何是佛師云三腳蝦蟆跳上天乃云山僧與諸人赴牟尼菴齋了登鉢盂峰見盤松下三三兩兩論及山形水勢神怪靈奇云塔盤山曇華簪虎踞龍蟠石厂洞聽松亭鸞翔鳳翥傳衣寺接待寺七縱八橫辭佛臺火雷坪上九下七正辨論閒被石鐘長老撫背一下云唯不見道纔有是非紛然失心你者一隊漢只恁麼論說機境有甚用處一隊漢聞山僧與麼道即便開悟而去如今恁的舉來也是幾度金沙波浪急一番流洗一番新。

龍華寺萬行上座請上堂僧問世尊拈華迦葉得傳心印如何是他得處師云珠拾泥裏進云曹溪風旛印宗得請出世如何是他出處師云采喝盤中乃云寬廓非外蝸牛角上鞦韆寂寥非內蟪蛄眼裏鬧市若是內不放出外不放入上無攀仰下絕已躬淨羸羸絕承當赤灑灑沒回互我也明窗下安排復舉龍華照布衲問溥上座那一片向甚處去也溥云莫妄想照云失卻一片也妙喜云自倒自起師云布衲無端放尿先自失卻一片妙喜因人成事後卻拾得一片且如目前無法者一片又作麼生論量良久云月落後相見。

上堂舉睦州道未得箇入處須得箇入處既得箇入處不得孤負老僧師以杖畫云陳年葛藤不如一筆勾下又舉初三十一中九下七盞子撲落地樸子成七片復以杖畫云陳年葛藤不如一筆勾下大眾前一畫且止後一畫作麼生又以杖畫云者一畫也有權也有實也有照也有用諸人如何會山僧終不把古人言句牢籠學者塗污俊傑須是自信自悟一一從胸襟流出方可盪天盪地委悉麼便下座。

上堂僧問如何是誕生王子師云六國不承顏如何是朝生王子師云蒼生得噓植如何是末生王子師云承明輪論策如何是化生王子師云邊塞絕

煙塵如何是內生王子師云萬邦仰聖聰乃以拄杖畫一畫云住山翁樂無窮奇奇怪怪玲瓏石丫丫 叉叉古樹松不假安禪已純毒龍談實相論真空復畫一畫云古木無人徑深山何處鐘。

華嚴寺玄印上座請上堂僧問如何是入門句師云且開裝鏡當軒立如何是門裏句師云垂簾晏坐卻忘疲如何是當門句師云樓頭畫眉自分曉如何是出門句師云蹋斷青山不計程如何是門外句師云林下何曾見一人問二僧同去捲簾為甚一得一失師云拳頭巴掌論疏親乃云福城東際事東際水和煙要見摩頂處隔在海南邊石鐘與麼不惟善財趨向不及直使老大德雲縮手腳有分其餘主天神主地神主山神主海神主林神主樹神又敢動著一絲毫耶獨有文殊猶較些子以日曠普賢普賢撫掌呵呵大笑無厭足王見得卻借石鐘拄杖出氣云無相如來入此殿是故此中最吉祥二大士搖手云你賣甚麼措大拋下拄杖云一齊穿卻鼻孔。

南安烏龍寺慧實上座請上堂僧問明頭來明頭打暗頭來暗頭打時如何師云只恐不是玉進云四方八面來旋風打虛空來連架打時如何師云是玉也大奇進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轉風流師云泥裏不得著土塊問如何是山裏禪師云林深多虎跡巖嶮挂龍姿如何是城裏禪師云往來朱紫貴問答各耆年如何是村裏禪師云鋤雲猶未了木耙又上肩乃云南安烏龍寺相去隔鄉里夜來到此間相逢各彈指擬議則千差笑領則一矣既不離箇裏不即箇裏又說甚麼此是吾宗旨。

上堂僧問若立一塵家國興盛如何是一塵師云生也進云一塵既承指十處一時收師云未必得恁麼快問學人一向無消息請師指示師云何不早問問選佛場即不問如何是石鐘真境師云風來耳畔日照高臺進云莫落聲色也無師云伶俐衲僧向後自看乃云嘉平廿二大好取譬百卉蟠牙寒梅唾蒂無情尚自若斯衲僧得不伶俐未舉已前胡不瞥地既舉而後渣也無漉甚麼屎屁。

上堂僧問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祕在形山是甚麼寶師云兩手托不起進云和尚莫瞞人好師云闍黎不得無過問如何是學人著力句師云切不可付在來日進云如何是轉身句師云飯食經行繞數遭進云如何是親切句師云伸腳還在縮腳裏乃云不向佛求不向法求不向僧求三文大光錢買箇腰支柔面不洗髻不油知他是凡是聖終日在樓頭手中把箇破木杓更嫌何處不風流。

法心上座請上堂僧問德山侍龍潭潭然紙燭遞與山山擬接時如何師云要接有甚麼難進云恁麼則電光中垂手石火裏遇人去也師云未然紙燭道將來進云三更日正紅師云他夢猶可事汝夢更愁人問大顛擯首座過在何處師便打云向後自看進云大冶精金應無變色師云早是變了師舉慈明示眾云一切賢聖皆以無為法而有差別前是案山後是主山且道無為法在甚麼處良久云向下文長付在來日應菴云天童也著一隻眼一切賢聖皆以無為法而有差別西瞿耶尼東弗於逮南瞻部洲北鬱單越到處

去來不如在此師云石鐘雖是他腳下子孫終不借婆裙子拜婆年何也不見道待兔守株終非神智遂舉拂子云一切賢聖皆以無為法而有差別洹水回瀾蒼山積雪天柱崔嵬羅川曲折其餘一山一水一宮一闕熬甚麼沉檀著甚麼矢橛煮普耳茶喫了正好瞌睡。

印文上座請上堂僧問隔牆見角便知是牛此人如何師云筠袁虔吉頭上插筆乃云曹溪浪上魚躍鳶飛熊耳山前猿啼鳥笑爭如者裏師旋象馭虎驟龍驤洵可樂也無奈雲門又道箇臘月二十五甜瓜徹蒂甜苦瓠連根苦金剛[奴/目]眼睛鐵蛇鑽入土三腳驢瞌睡虎祕魔叉馬師斧雪峰毬禾山鼓既是同肝共腑又何必頻拈白棒打青天更將鐵鋸三臺舞。

南指法輪良因三上座請上堂僧問寒暑裏還有佛法也無師云無進云為甚麼無師云寒即寒熱即熱進云寒暑中和尚如何回避師云冰簟鋪暖閣乃云東山水上行白浪滔滔西河火裏坐紅光燄燄惟一堅密身一切塵中見擊石火閃蛇電倒騎鐵牛入覺場無端拂著空王面。

悉檀寺院主仙陀請上堂僧問古澗寒泉時如何師云浸殺的不是進云飲者如何師云噎殺的不是進云某甲放身去也師云甚麼年間得出僧乃喝師打七棒乃云收足蒲團一月循循如法安居仙陀卻有妙智釣起山頭白魚且如秦地不收漢地不管底如何安頓得他下千峰披蓑側立五老引水澆蔬。

上堂舉僧問香林如何是衲衣下事林云臘月火燒山師云恁麼會刺瞎眼睛不恁麼會築著腳跟正恁麼時如何驀豎杖云將謂春歸無覓處不知轉入此中來。

大悲閣清宇上座請上堂僧問如何是一同一質師云萬象掌中擎如何是二同大事師云百川須倒流如何是三總同參師云甕裏不走鰲如何是四同真智師云看人度筏頭如何是五同遍普師云風入松濤吼如何是六同具足師云霜凝夜壑寒如何是七同得失師云水上捺胡蘆如何是八同生殺師云手舉八稜棒如何是九同音吼師云狗走抖搜口如何是十同得入師云東院洗鉢盂與甚麼人同得入師云鐵額比不齊與誰同音吼師云村裏高一伯作麼生同生殺師云雲門攏鰲鼻甚麼物同得失師云片雪點紅爐阿那箇同具足師云空生只晏坐甚麼物同遍普師云耆婆喜彈琴何人同真智師云虛空裏赤腳孰與總同參師云且緩緩卜度那箇同大事師云爛泥裏著刺何物同一質師云叫渠過江來僧喝師便打乃云一法有鍼鋒眼裏翻觔斗一法無汪洋水上捺胡蘆鍼眼魚吞卻嘉州大象蠅蠓蟲倒跨陝府鐵牛千眼大悲觀他不見八臂那吒曳不回頭驀直老黃梅聲聲叫歸來不歸來二十四番華信催。

上堂僧問如何是超佛越祖之談師云泥鰍羞鱗問有佛處不得住時如何師云擎拳鼓掌進云無佛處急走過時如何師云磕額撞頭進云室內無靈床渾家不著孝師云倘遇曹山向汝道孝滿又如何進云父子不相識師云冷灰裏有粒豆爆問無孔笛誰人吹得師云不是主空神進云沒絃琴誰人彈得師云不是揭諦神進云誰知好手待知音師云祇有闍黎不甘乃云靈鷲峰煙霞生背面迦葉殿星日繞檐楹攀仰不及的徒勞目視雲霄舉步直入的自然皮骨俱換得到者裏方知頭頭要妙法法玲瓏純鋼打成生鐵鑄就隨處作主遇緣即宗且道如何是宗聲千峰勢到嶽邊止萬派聲歸海上消便下座。

眾戒子請上堂僧問山巔巖崖還有佛法也無師云有如何是山巔巖崖佛法師云千尋瀑布萬壑寒松進云未到盡驚山險峻曾來方識路高低師云夜來何處火燒出古人墳問一人說得行不得一人行得說不得一人說不得行不得一人說得行得四人中那箇是當家人師云快去一坑薶卻進云有箇不甘的出來又作麼生師云正要與伊相見乃云結制一月日陞堂復入室雖無是無非也有得有失拈卻一走卻七萬機頓赴不撓其神眾難齊作不抱其怵以杖卓一卓云會則大家弄神駒不會依然赤骨律。

上堂舉京兆蜆和尚自印心洞山後居無定止不蓄道具不循律儀在閩川常日沿江岸採掇蝦蜆以充腹夜宿白馬廟紙錢中時華嚴靜禪師欲決真假先潛紙錢中深夜蜆歸來靜把住問如何是祖師西來意蜆遽答云神前酒臺盤靜托開云不枉與我同根生圓悟云諸人若未委悉待山僧下箇注腳神前酒臺盤鐵彈大如拳一擊便擊碎不值半分錢師云圓悟老人雖

則能驚群動眾未免費精殫神石鐘看來則不然神前酒臺盤孤月似彈丸萬里清光滿千峰玉一團玉一團羞將短髮還吹帽笑倩傍人為正冠。念佛堂近微上座請上堂僧問大乘般若即不問念佛堂中事若何師云豐干騎虎來蹋著棲霞石乃云森森喬木岌岌巖巒似珊瑚掌月如瑪瑙堆盤黃猿曝日以自若玄鳥棲巢以忘寒仙雲靈輿曲徑幽蘭大眾者事且置不問只如顯最上乘發微妙旨塵說剎說熾然說又作麼生吾家自有真常在豈羨一花五葉丹。

上堂僧問一物不將來時如何師云三文與汝買草鞋行腳去乃云一箇兩箇嘉州晏坐開州水臥更有一箇待汝諸人拈卻炙脂帽子脫卻鶻鼻布衫石鐘始向諸人說破。

臘月廿九松波上座請上堂不能發明此事正如佳節時不論遠近千里百里少長貴賤入山燒香相似得一念燒香之勤雖許多山山水水嶮嶮巖巖不生疲厭蓋緣此念之切故耳及到絕頂燒香竟回觀山重重水疊疊雲冉冉路迢迢身疲氣竭從前勇猛冰消瓦解矣總之未曾發久遠之志所以有此敗興參禪人若是皮下有血的直下返照虛妄之心猛然便休去歇去豈不自快若只作啞羊相似與燒香之志何異石鐘與麼汝諸人還甘麼以杖畫一畫云依舊南山起雲北山下雨。

除日淡空上座請上堂僧問除歲日客事紛紜當此時主一迷客得其便主不迷客作麼生師云者裏無奴兒婢子事乃云他日閒散今日紛紜瀑水拖藍松杉垂青冲澹而靜寥沆而清見而非見聞而不聞文殊普賢無處藏身石鐘拄杖隨例處分卓一下云切忌躲根復舉世尊云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悉皆消殞演祖道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築著磕著圓悟道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錦上鋪花石鐘不然一人發真歸源十方虛空齊聲喝彩伶俐衲僧出來道恁麼要塞三老子口未得在石鐘也許具一隻眼元日殷宗端請上堂僧問四十九年未曾道著一字今日應宗堂中有箇元字腳請師開示師云五祖道的問天地與我同根萬物與我一體是伊還知昨日是臘盡今日是新政也未師作聽勢進云春隨斗柄轉人與物華新師云巢知風穴知雨乃云天高無極四時行焉而不德地厚無垠萬物育焉而不仁仰一人之有慶咸萬國以來賓巢知風穴知雨五湖四海王化裏。

宗間上座請上堂烹佛祖的爐鞴難容蠅蠓棲泊驅凡聖的作略豈放狡兔尋窟饒他奴呼彌勒婢視釋迦的不敢正眼覷著何也是甚孳孳。

姚宗仁請上堂僧問未出方丈有一問在和尚處和尚何不答他師云未到雞山答了也進云是何語話師云撼動蒼山十九峰乃云山巔巖崖佛法有參差松竹含煙縷山巔巖崖佛法無十箇五雙白塗糊也不有也不無螭螟吞卻玉蟬蜍。

羅宗道陳宗澍王宗鏡請上堂生機一路鬼神莫測當陽一句祖佛難窺貼萬象於眉間運群機於掌上玉轉珠回星飛電激向上一路千聖不傳且道

誰人能委悉此事良久云福田莊高一伯嚶村酒歌白雪震動十九峰六十九人盡饒舌喝一喝。

上堂僧問如何是無陰陽地師云一筆畫不成如何是無根樹師云雙眼描不出如何是叫不響谷師云兩耳聽不來進云三無承師指大事作麼生師云九九八十一乃云會則目前包裹不會目前包裹畢竟如何駕鐵船海上飛磨盤空中德山臨濟帶水拖泥佛果妙喜灰頭土面石鐘聲動容揚古路不墮悄然機。

上堂一句截流山頭白浪一言該眾井底蓬塵山花笑日岸柳含煙大地春回十方通暢不隔纖毫的作麼委悉春色無高下花枝有短長。

宗朗宗妙二上座請上堂和氣盈衢韶華溢日是處樓閣門隨緣慶華屋煮淡流煨黃獨釋迦彌勒奴普賢文殊僕堪笑無邊身手裏把箇漏筌籬卻把虛空漉撞著舜若神高聲叫共相祝天子萬年藩統百福。

上堂條風動處體用雙彰瑞草萌時理事全備所以一塵一法界一剎一彌盧此皆妙相圓明真如廓爾祇如大地平沉虛空粉碎時如何迦葉笑阿難哭善應何曾有輕觸。

寂光寺深修上座請上堂僧問考鐘鐘鳴伐鼓鼓響漏渫家風即不問祇如破沙盆滿盛乾矢橛供養還納受也未師云快般將來進云西來大意又作麼生師云爛煮高河菜濃煎普耳茶乃云古佛家風無開無合衲僧作略有殺有活劍挂眉閒符懸肘後捋虎鬚探驪珠竿頭絲線從君弄不犯清波意自殊。

上堂息陰軒團團蘿月河子孔滾滾江波更看般若臺邊柳拖錦繡回首木香坪上桃笑春風若是真正道流著著有出身之路終不落他境物裏作活所以寧參活句不參死句還委悉麼早知鬼便是人做半夜三更也可行。

興雲寺院主載谷請上堂僧問如何是萬人行不到處師云山巔巖崖更那邊進云如何是萬人覷不到處師云虛空背上寫大字進云恁麼則石鐘寺裏相逢卻在雞足峰頂握手師云合談何事進云天曉不露師云落在兒孫邊乃云春王上九杯滿緣酒大郎提壺三兒擊缶春暖五嶽春醉萬有望見福城香風拂柳善財接足曼殊伸手駭得金毛身藏北斗撞著石鐘相救相救不相救饒你更參四十年畢竟未及雪竇。

淨光上座請上堂心不是佛花開世界起智不是道鶯囀上林枝盍色騎聲的鋪花錦上離見絕聞的孤峰獨宿萬機不到權實雙泯一句全收主賓互用且道得甚麼人證明露柱[奴/目]眼睛燈籠笑破口。

上堂僧問如何是真佛師云普如何是真法師云怕如何是真道師云直乃云祖佛行不到處行取一步三家村五里舖祖佛說不到處說取一句融四歲能讓梨大眾如今行說俱到不但孤峰頂上嘯月眠雲鬧熱場中冰絲玉管正好水邊林下聚落城隍便與麼去還知麼白鷺下田千點雪黃鸝上樹一枝花。

密化允目二上座請上堂到得者裏行也好呼則應舞則跳住也好窮廝煎
餓廝炒我愛趙州老壁上挂胡蘆我愛善財老信手拈來草其餘說甚麼更
有不眠人莫道君行早。

闊修上座請就法界菴上堂夜來天柱峰與拄杖子論議道觀仁者善能濟
時扶危遇剛即柔所以名譚宇內為甚萬里南來到雞足山也只尋常拄杖
子道觀仁者善能隨衣入定以待慈氏所以德重寰中為甚驀直巨靈信手
撮來也只如粟粒大正論不已被侍僧驚覺點火相照只見火爐火箸通身
汗下床角頭轉出拂子高聲叫云賊賊長老聽得喚來責云你者一隊笨漢
將謂無人勘你賊賊各與二十而去如今闊修上座約石鐘齋要石鐘陞座
只得將此一段因緣聊為舉似只是不可作法界量邊事何也善財參遍處
黑豆未生牙。

九蓮寺宗修上座請上堂透玄妙關脫有無縛全佛即心全心即佛赤肉團
上有一行字白玉盤中無兩粒粟散花天女無路來障蔽魔王空相憶。

上堂沒意智自然智石蘊玉以山暉水含珠而川媚通身是遍身是一塵飛
而翳天一芥墜而覆地豎拂敲床貼榜書字照孔著楔遇傷挑刺鐵樹上綻
花正是上元十四。

元霄龍華寺三達上座請上堂十五日已前風自南來鴈自北至十五日已
後白雲澆松青山潑黛正當十五日一事全無虛空粉碎討甚元霄燈挂向
鏡湖內昆侖[奴/目]眼睛波斯閒瞌睡惟有東村李大妻折得梅花三兩
佩。

解制護法並謝諸山上堂結則總作圓覺伽藍解則翻為平等性智不解不
結時如何全無閒歇起身云雞足天下宗山石鐘哀牢古寺剎竿相望鼓鐘
相締此梁益名藍真黔[番*支]宗社提衡者必學識俱優據位者豈道德
偏廢福慧僧臘既淺幻垢未去敢望倪床作人師位承本郡護法削牘諸山
耆宿雅意不得已俛一期今幸周隆敢忘慈力伏願護法祿位並隆耆宿德
壽共躋在筵諸德同明此事復坐舉僧辭歸宗宗云甚處去僧云諸方學五
味禪去宗云我者裏只有一味禪僧云如何是一味禪宗便打僧云莫打某
甲會也宗云道來道來僧纔開口宗又打黃檗聞云馬祖下出八十四員善
知識各箇轆轤地只有歸宗較些子師云歸宗汗馬功高無人銘勒黃檗
既成褫他怎奈挂一漏萬石鐘雖後生必也為歸宗作主驀豎拄杖云從前
汗馬無人識只要重論盍代功。

到拈花寺德解上座請上堂去年曾寓雨花亭百接橋邊草色青今日重來
山更暖誰知春在蓼花汀若是妙德家風普賢境界不須一花一世界一葉
一如來何也衲僧門下總是展演之談曲為今時不見道春到上林芳草綠
鶯啼二月杏花天。

到和甸宗雲鄧總戎請上堂喬甸望和甸水闊山遙新村連檢村門聯戶接
大波嶺滾滾珠回小雲南綿綿練鎖鶯啼春嶂築坑滿坑牧唱丹丘積壑盈

壑鋤雲攫霧墾土耕煙嘯月吟風游山翫水是你衲僧家還會麼山月如銀牽老興閒行不覺過峰西。

上堂二月二十九春風樹樹吼天桃翻赤艷靈雲笑破口玄沙賊復來大為許為友拍一拍云須彌顛倒顛撞破昆侖首。

佛誕上堂黃面老子纔出母胎便鼓粥飯氣雲門無大人相便要一棒打殺石鐘則不然九皋頻喚鶴千里控烏騅。

使鼎長老江南省福海老和尚歸上堂去年二月驚蟄自昆明一萬里到廣陵省老和尚今年四月麥秋自邗上一萬里回中慶返石鐘命梁益道韻攜去江淮明月持歸你道父子祖孫鼻孔畢竟如何今朝十五日孤月一輪圓。

張祖保設伊蒲宗訥披剃上堂石頭鐮草一場特地馬祖安名一場特地展陷虎機弄險巖句須知有千聖不傳的向上一路子若論千聖不傳的向上一路子法堂前經樓後各草深一丈也無人舉著在者裏不是得少為足的明得何故聳不見道百尺竿頭坐的人雖然得人未為真百尺竿頭須進步十方世界現全身委悉麼以杖卓一卓云殷勤為解丁香結放出枝頭自在春。

上堂資始資生各正性命瀟瀟梅雨諸根普潤石鐘拄杖隨緣任性有時靠牆有時行令而今把在手中天恭敬龍恭敬鬼恭敬人恭敬惟有力魔王不是不聖待一切眾生成佛無有世界眾生乃可發菩提心以杖豎起大眾一時走散。

上堂舉白雲古人留下一言半句未透時如撞著鐵壁相似忽然一日撞透方知自己便是鐵壁且道作麼生透白云鐵壁鐵壁應菴老人以拄杖卓一卓云鐵壁鐵壁急急如律令敕師云應菴老人雖入得白雲室然不過只念得兩行咒若論鐵壁夢也未夢見在不肖遠孫將他鼻孔扭轉令天下皮下有血的衲僧冰消瓦解以杖卓一下云鐵壁鐵壁一指便穿解下肩頭扁擔脫卻屎尿布衫復卓杖云七九六十三薦又新楊公請上堂秋風瑟瑟秋光晃晃秋水澄澄秋山朗朗雖品物之大同感悲哀之小快山僧與麼又新楊公以為傷也以為賞也倘不然更有一說螭螟眼中蝸牛角上利出名入道稀德曠日馭鵬霄雲味罔兩迷之者似石沉淵悟之者如珠在掌鏡水臨軒清鐘應響寂兮喧兮何悲何仰寥兮廓兮非來非往又新楊公以為傷也以為賞也不然山僧更與下箇註腳遂擲下拄杖。

包章京送法被至上堂萬松參差千峰聯絡天開霞彩泉流水樂至人居之俗塵圓脫示一機萬機齊赴行一令百令相諾今有長者來登樓閣興大津梁實為檀越施此法被揄揚佛法有命山僧陞此寶座使開示佛祖行說不到的一著以激揚人天未生時的面目若論佛祖行說不到的一著我弼翁張公同李夫人作此佛事已為諸人開示了也若論激揚人天未生時的面目山僧陞此座子已為諸人激揚了也更要箇甚麼拈拄杖卓一下云有意氣時添意氣不風流處也風流。

饒妙永剃度上堂秋霖滴破虛空潦倒漁翁瞌睡萬有怒號刁刁此時都來不會既不會剃度者又且如何彈指云摩竭勝莊嚴娑婆訶。

左昇雲請小參珊瑚掌月體露金風寒露沾條香生寶閣所以道古今無變異時節不相饒既古今無變異時節不相饒說甚麼生滅滅已寂滅為樂此事惟我登先居士全體擔荷得何故不許伶俐衲僧會只許通方作者知。

桑玉峰追嚴請小參九月廿二橙橘滿市豐山葉落蕭丘菊麗一支兩支出類拔萃三片四片旋煙舞翠動若行雲止猶谷神伶俐衲僧何用視聽咄莫張公喫酒李公醉桑樹著箭柳樹漿看來不是尋常事別有好音在上方。

江川令張耕煙護法請上堂昇首座問江令重來聞法旨嵩陽向上事如何師云雙陸盤中信手擲進云春工既許百花開一片香風吹不斷師云莫對鷓鴣唱竹枝進云老和尚面皮厚多少師云山僧罪過智西堂問住著佛處草深一丈走過佛處即頭角生去此二途向上消息如何舉唱師云鷓鴣子過新羅進云非但某甲威音尤後師云自知較一半希後堂問闡揚大法須是同人直指西來還他作者向上還有事也無師云八花毬子暗中拋進云踞地金毛難措足遼天俊鷄失行蹤師云五更清早起進云木人慣用龜毛線石女難穿蘭[廿/碣]鍼師云腳下過也進云謝師答話師云口裏空喃喃

乃云權開震旦國此日嵩山辨勝毘耶離過去金粟入其宮有門拶人足臥其室借飯飽人腹各展雪刃霜刀屠祖僂佛烏庸武略文衡範真利俗且道是誰乃我張公老伯噫嘻公雖神宰實惟父行既從祖室中來安不激揚慧提持向上為南人結般若緣耶所以設伊蒲飯僧命慧登座舉揚先祖未了的公案以達殊麻慧上座未免借花獻佛去也驀拈拂子豎起云見麼此是四世祖悟和尚用不了的付與先師翁先師翁受之久矣靈巖老師又從師翁處得來如今落在慧上座手裏了也雖則萬般做造由人到底別有巧妙不見道知與師齊減師半德畢竟如何揮拂子云只須著眼看仙人莫看仙人手中扇復舉賢師翁常垂語云報恩住在水鄉四面無路還有不假舟楫到得者裏麼師拈云此老人曲直非江川老伯慧上座終不拈出何也須知遠煙浪卻有好商量。

師五秩衛府祖護毘玉請上堂僧問世尊降生指天指地和尚降生有何祥瑞師云前堂七百後堂半千進云恁麼則一點水墨兩處成龍去也師云只得讚之仰之問三千世界塵難喻萬億須彌高莫齊彈指聲中圓八萬剎那際內滿三祇猶是者邊事只如父母未生前一請師指示師云山僧不知進云恁麼則推出來時大家看也師云水底攬魚蹤問今日初生是者邊事如何是那邊事師云海鹹河淡進云恁麼則是法住法位世間相常住也師云風吹石臼念摩訶問如何是冷湫湫句師云何不向熱鬧處問將來進云如何是古廟香爐句師云汝還見也未進云如何是一條白練句師云誰不要此話大行進云細雨溼衣看不見野花落地聽無聲師云金剛腦後三斤鐵問此日佳辰登寶座請師一句震雷音師云海勢欲浮雙塔去山形如擁五華來進云恁麼則一音遍沙界四眾無不聞師云摩天鸛鶴窺明鏡呬浪

魚龍引渡杯乃云桃花三月浪金鱗奮鬣過一雨滋山嶽無物不該羅衲僧門下猶未是在只如古者道五十知非五十學易是世間學邪出世間學邪更有說空談有明宗顯理不知藍田含潤丹穴蜚英總之一法所印豎杖云文彩彰也還見麼連城價重雖多事錦上添花又一重。

上堂諸佛出身處熏風自南來佛果老子用此伎倆累他大慧打失鼻孔及至出世便將薰風南來的使用道箇芭蕉蕉芭有葉無丫忽然一陣狂風起大似東京城相國寺北角頭王和尚的破袈裟大眾還會麼為他閒事長無明是甚好手喝一喝。

上堂舉百癡和尚示眾世尊初生龍得水時添意氣雲門打殺虎逢山勢長威寧師云世尊初生知恩者少雲門打殺負恩者多復高聲叫云快活快活時釗侍者問快活甚麼師云阿耶阿耶莫要催逼。

上堂有收有放風吹不響鈴兒草能殺能活雨打無聲鼓子花說甚麼荷葉團團似鏡菱角尖尖似錐猛虎不顧几上肉鐵蛇咬住鐵研鎚喝一喝。

挂諸祖像何振邦振國振朝昆玉請上堂猛虎以肉為命因甚不食其子生非異類靈蛇以珠為貴因甚自傷其體樹大引風衲僧以悟為妙因甚問著啞口其力未充知識以法為尚因甚請益開口不得其道未合者四轉語一轉如天普盍一轉似地普擎一轉豎窮三際一轉橫遍十方若木若竹總束為德山棒棒亦棒不著若霆若雷總合為臨濟喝喝亦喝不著其餘五家說話是甚麼碗躡丘喝一喝云我何公昆玉供養六十九世并諸祖真儀用資先靈冥福且如何指示八萬四千非鳳毛六十九人人入虎穴。

上堂小盡二十九狗走抖擻口大盡三十日烏龜穿破壁來朝是閏七月初一敢問諸禪德無位真人還知閏七月初一也未知不知且置你道無位真人是甚麼燒酒下燒鵝。

釗侍者掩關上堂文殊道不見一法在門外古德又道盡大地是箇解脫門把手牽不入又道甚處不是石霜又道盡大地是箇杲上座者幾箇老古錐欺胡瞞漢不是好手石鐘不妨也向虛空裏鑿洞也道盡大地是箇關畢竟誰是關中主遂召釗闍黎釗應諾師云關。

上堂粼粼飛雪霜廣莫吹衣裳白酒打三盞何處得寒涼喝一喝。

振邦昆弟薦親請上堂金剛種明並日月無漏智廓若太虛塵塵露遮那之妙體色色放無礙之淨光所以盡法界身本無出沒大悲願力示現受生看他獻珠龍女迴向龐婆雖稱奇特猶較他母解氏先靈七步八步因甚得與麼田地不離當處常湛然一聲鷓鴣深花裏。

上堂放得開誰辨端倪捏得聚方稱好手拈起金剛圈擊碎琉璃碗恁麼也得三腳蝦蟆吞卻月不恁麼也得八臂那吒撲帝鐘驚豎拄杖云向道莫歸山下路來朝更獻楚王看。

臘八江寧尼松明率吳孺人請上堂幾點明星挂上蒼清暉昨夜冷池塘誰知三千年前事又向梁州問故鄉復示頌云一鉢湖湘路八千渾身泥水百城煙如今識得蒼山雪別是當年鐵磨禪。

上堂妙淨明心水綠山青本無出沒豈有晦明孤峰潑黛千江淺清此是衲僧家尋常見處又道見拄杖子但見拄杖子且者是拄杖子作麼生見驀豎起云者孟八郎漢又恁麼去。

祖眼吳公初度請上堂全機大用離見聞以頓超獨步大方何舒卷而可執所以華筵觸目則碧桃臘梅並綻賓館悅耳則鸞簫鳳管齊鳴萬壑霞飛千峰鋪秀岡陵可方歲月海屋足增壽圖百福自嚴長庚永照且道林下道人又以何事為壽萬緣叢中紅一點動人春色不須多。

除日上堂乾屎橛東擲西拋蘿蔔頭橫咬豎嚼七斤衫半縷絲隨重隨輕一莖草百尺竿可長可短此是除日已前事且道除日已後如何豈也不燒錢也不烹宰閒名已落天涯外亦任春風來日來。

元日上堂東皇大帝敕勾芒使者看五嶽四瀆中誰能轉得無上大法輪者朕要供養使者對曰臣非不奉旨但五嶽四瀆中擔板禪和最多耽著五陰魔煩惱魔是伊自救不了焉能轉無上大法輪耶帝曰一念回光即同本得豈五嶽四瀆中便無可應明詔者待朕自去及到上方見上則垂衣而治下則擊壤而歌中開元運外樂時康帝顧使者曰此一人有慶兆民賴之真堯之時舜之時又烏庸彼能轉大法輪者為大眾還知麼河山已沐無私化但願皇圖萬萬年。

上堂新年頭不自由著錦繡築皮裘東往西往南洲北洲清狂嬉戲惺眼醉眸更有婆婆娑娑瑣瑣絮絮黃葉滿長安馬蹄何處避此皆顯最上乘明第一義只是諸人不識所以李王同妃嬪入寺法眼問僧隔壁聞釵釧聲即名破戒眼前朱紫駢雜汝作麼生僧云好箇入路師遂喝云法眼當時若下得者一喝兒孫未必掃地。

上堂舉女子出定因緣頌云出得也是你出不得也是你既不是你又何須疑你。

再住雲南府嵩山禪院語錄

上堂小春朔日楓林揭赤乍暖乍寒載霜載雪一枕岳阿的喜殺龍山一杖雲月的相伴寒拾饒你吸盡西江打倒東壁萬機不到處料無人委悉阿呵呵笑他雲居二十年只道得箇何必咄。

有尼領婆子請上堂偷趙州筍一掌稱奇接灌谿老盍覆一機更有散家財鬻漚籬拈梳插髻拋下油糞出城月上女變身毘耶離靈山入正定五臺示路岐只者一隊如何打發良久云千江有水千江月萬里無雲萬里天。

上堂石移雲自動霜鋪樹更蒼好箇真消息寄語謝三郎心持半偈月在上方金生麗水玉出昆岡是你衲僧門下屎尿臭氣夢也夢不見在今日嵩山與麼不覺三門前排坊[跳-兆+孛]跳上三十三天驚起帝釋天王瞋怒不已被賴重一擲云莫作瞋是則名為報佛恩。

天童悟祖忌上堂舉祖誕日上堂云人道老僧今日生我道老僧今日死雖然生死不同途步步蹋著自家底如今不肖福慧要問老和尚既是步步蹋著自家底因甚桐棺山猶自喫跌來。

上堂舉臨濟有一人論劫在途中不離家舍有一人論劫離家舍不在途中阿那箇合受人天供養徑山杲云賊身已露師云徑山老人大似不打自招何故無上醍醐不可翻成毒藥嵩山恁麼有箇伶俐衲僧出來道和尚恁麼亦似騎賊馬趁賊隊嵩山許伊具一隻眼為甚麼擗但得頭莫愁尾。

師誕日立僧上堂文殊初生見十吉祥異相善財初生涌出萬寶藏須菩提初生室見空相世尊初生指天指地云天上天下唯吾獨尊者一隊漢若約衲僧門下總沒交涉如今遠近緇素少長儼臨與吾祝慶還是有交涉還是沒交涉若有交涉則是世諦流布若沒交涉則是孤負來意作麼生消釋此段文義驀豎拄杖云苟或遲疑問取堂中首座昇去。

上堂不取一法路遙知馬力不捨一法日久見人心眼見者鳥鳴嚶嚶耳聞者伐木丁丁色不是色聲不是聲談空說有聖號凡名該萬有而絕對倚眾象而即真不隔纖毫豈蕘諸塵既如此論量且道凡聖共涉一句又作麼生塞北千人帳江南萬斛舟。

上堂十月二十九朔風括地吼平鋪子夜霜高懸午時斗卷簾長慶白月輝挫磨歸宗赤腳走雲門搥腕打地張口卓杖一下云總向者裏薦得臥官街喫官酒不妨瀟瀟灑灑趁花隨柳脫或遲疑拋下杖云下坡不走礙腳礙手。

張護法佛源居士送藏經諸祖像入山兼元首座歸上堂大藏小藏佛說魔說演出演入轉關回軸塞壑填溝截甚字腳道箇鉢羅孃底阿那箇是頭此

是道子畫底從胸襟流出津梁三有梯航四生作殊勝因顯奇特事還他真子擔荷所以闢乾坤於方外揚慧日於域中者有大檀越不辭萬里之崎嶇崛起難能之模範經出塵裏像分徼外樹赤幟於梁城駕慈舟於昆水萬古不磨八方永泰豈是一期應便偶爾成文者耶大眾還知大清國裏有此一段殊勝事麼覲面揭開千聖眼同聲相和韻綢繆脫體渾融人世外不擦脂粉也風流。

張護法佛源居士請上堂赤肉團上隋珠轉荆玉回百草坡前安南來塞北去無陰陽地可種可收大般若園有津有濟此我大檀越發跡關東見將軍身威震徼外況身居國戚不干榮辱之懷孝足尊堂能事老萊之服十分光彩百行齊修布金沙於嵩山揚佛日於醉祖可謂世出世無不莊嚴者拄杖忽然忍俊不禁把樹義坊一擰驚起雲津橋鄧七鄭八碧雞坊黎鬚李麻共議如此廣大佛事你道非非想天幾人坐幾人臥太華山聞得約住云住住住聽分付不見道突出難辯達者先知粗言及細語皆歸第一義此可以縣斷不可以揣摸以求實也諸君聞之禮謝而退大眾於斯薦得莫打八百朝打三千一任一任稍涉遲疑依舊一把柳絲收不得和煙搭在玉闌干。

劉道婆轉藏經請上堂舉真際因一婆子令人送錢請轉藏經際收施利了卻下禪床轉一匝乃曰傳語婆轉藏經已竟其人回舉似婆婆曰比來請轉全藏如何祇為轉半藏師云真際雖福從天至不覺貪他粒米婆子展妙密全機不知陣腳先動二俱未是作家嵩山今日要斷不平之事一齊喚來各與一碗茶喫了然後各與二十竹篋何故擡一則賞功一則罰罪鴛鴦繡出從君看放下金鍼通不會。

七月初二千秋降香啟祝請上堂華開一國果結千齡河清九灣宗朝萬里此皆從前親提寶劍自挽彫弓掃蕩八荒肅靖六合運郢匠之斤煉女媧之石然後毘贊皇猷洗開佛日梁益安堵中外歡呼節遇良辰降香嵩寺但福慧識淺學疏難措頌言只有借花獻佛聊為塞責遂拈拄杖連卓云添南山之算傾北海之觴上大人丘乙巳化三千可知禮也。

上堂佛源張公勤王之暇便向嵩山作諸饒益即日太夫人陳氏覺慈籌添瓊室鶴降瑤池麻姑持器果老捧卮老萊起舞仲氏吹簾詞歌眉壽棗獻安期更有衡山高僧廬山道士也隨列陳詞以杖卓一下云以此壽陳母以此培福基與須彌同壽與法界並禧上堂七月秋何處熱軟似綿硬似鐵恁麼會便親切浮山九帶汾陽三訣亂世戈矛叢林妖孽不是抑他先聖恐人北其轅南其轍震聲喝云八萬四千非鳳毛三十三人入虎穴。

張府祖保初度宗幢薙髮上堂杲日麗天瑞氣連綿海光清潔山色鮮妍砧聲清午夢桂氣叫寒蟬披緇者喜逢佛域增算者張設華筵丫角童傳霞觴以衍慶曹家女拂玉柱而調絃山僧拄杖擡連卓杖云儂只與麼又誰管你兩重公案。

劉世鼎薦嚴請上堂黃葉清秋白榆尚柔隨緣認性法法全周走隻雞漬醴之奠來白馬縞服之儔峴山碣難禁路傍之淚邛山骨易邁塚間之秋如此

俊傑問是阿疇是我將軍劉公偁胸羅數萬氣吞百流舊度博南洗清孟緬隨征大方將定黔州孤軍深入偶失一籌由是死王事其為臣也何羞公之生也不殺名標青史殞也勇敢血貫丹丘。

天王數降旌誥 親藩撫棺奠酬今者扶輓北歸道阻且修遺昇平之澤安泉石之幽葉落歸根來時無口即不無且野草閒花滿地又作麼生長安一片月萬古照中州。

上堂舉應菴老人蜻蛉許是好蜻蛉飛來飛去不曾停被我捉來摘卻兩邊翼恰似一枚大鐵釘師以杖劃 云會麼會則各歸寮舍未曾拄杖饒舌去也遂云蜻蛉許是好蜻蛉飛來飛去惱殺人俊去猛虎兩邊插羽翼拙來螻蛄滿口嚼鐵釘復以杖劃 云還會麼亦似假大婆手中的繡花鍼。

上堂舉睦州示眾云諸人未得箇入處須得箇入處既得箇入處不得忘卻老僧木菴云諸人未得箇入處須得箇入處既得箇入處祇須揚下入處始得師云二老人一箇荷葉團團似鏡一箇菱角尖尖似錐嵩山要問諸人未得箇入處須得箇入處既得箇入處速道將來。

上堂舉法眼示眾識得凳子周匝有餘雲門云識得凳子天地懸殊崇壽云識得凳子四稜著地師云識得凳子快買草鞋行腳復頌云清涼老師氣象雄黃面漸子眼更空崇壽隨例餐餽子嵩山也得三文買草蟲吽吽。

上堂十五日 巳前羚羊挂角杳無蹤十五日 巳後風吹大地沙撈空正當十五日羚羊無角大地無風衲被蒙頭受用無窮嵩山無法與諸公。

楞菴老人誕上堂楞菴侯老師生平得瀟灑釋迦彌勒是他奴更道背後無尾巴寄語諸方休亂擬此話 巳行遍天下不肖當時得親聞仔細思量難酬者仲冬十九嶽降辰特表斯緣共相謝共相謝信是鼻頭下頭大復舉老人住長松時問僧釋迦彌勒是他奴且道他是誰僧無對老人自代云背後無尾巴僧云意旨如何老人云眉毛下黑漆漆師云恐諸人不曾看慣異等畜生便生怪怕嵩山為伊改換面孔去也釋迦彌勒是他奴且道他是誰赤土塗金鳳火尾錦繡眉意旨如何夜來人不識卻喚作黃鸝有箇伶俐底道莫是長松牽犁嵩山耨耖麼咄是你屎尿氣也未夢在。

上堂舉調達謗佛生身陷入地獄佛令阿難傳旨汝在地獄中安否達云我雖在地獄如三禪天樂佛又令阿難問汝還求出否達云我待世尊來便出阿難云世尊是三界大師豈有人地獄分達云佛既無人地獄分我豈有出地獄分翠巖真云親言出親口師云翠巖大似灸瘡瘢上更著艾丸似非好手山僧見處祇要諸人共知若論扶持正法眼藏還他調達世尊阿難別處安排山僧恁麼道還扶持得正法眼藏也無明眼衲僧試斷看。

誕日上堂溶溶桃浪吼真如滾滾麥波注性海塵刹熾然轉普門法法頭頭觀自在不獨老親資冥福乘此善利入佛隊。

楞法堂鳩工上堂舉僧問靈樹如何是和尚家風樹云千年田八百主僧云如何是千年田八百主樹云郎當屋舍沒人修妙喜云愁人莫向愁人說師

云靈樹雖貧像富只跳得一步兩步妙喜似富欺貧無過拈三作兩嵩山不怕諸方揀責全仗有力檀越若是家風逢人不得錯舉。

作務上堂擔磚拾礫是生涯土面灰頭作者家更有一人呈伎倆卻來背後漉魚蝦還識此人麼擲下拄杖云是伊措大。

佛成道法堂起工張星瑞請上堂齊肩奮力小廝兒三唱轟然也大奇此日公輸分曲直棟梁又見架今時所以僧問投子一切聲是佛聲不子云是僧云和尚莫[尸@豕]沸碗鳴聲子便打又問粗言及細語皆歸第一義是不子云是僧云喚和尚作一頭驢得麼子便打妙喜云賊賊敗也復云那箇是草賊那箇是正賊師云據此卻有好處祇是諸人不知無奈妙喜慣過梯與賊嵩山事不獲已也要騎賊馬趁賊追到十字街頭鑿箇坑子無論好處不好處草賊正賊過梯不過梯總與一坑薶卻引得三市街鄭鬍子咬指作聲云好手好手近日雲南城裏且喜少賊曳杖便下座。

上堂舉照布衲一夕問溥上座那一片向甚麼處去也溥云莫妄想照云失卻一片也妙喜云自起自倒師云妙喜大似背地[奴/目]眼熱灶放火大小布衲被那一片動著妙喜雖拔劍相救終不能得若是溥上座打一頓出院嵩山恁麼判斷結角羅紋在甚麼處復云低聲低聲。

除夕上堂年年除夕上堂今年尤難躲閃好箇嵩山祖庭佛法未曾打算衲僧家有遼天拄杖刮翳金篋施換斗移星底密用行轉關回軸底樞機驀召眾云明旦祝延聖壽慶賀新禧且道是甚麼密用是甚麼樞機傍觀正看將謂有多少奇特原來是順世法底阿師。

元日何振國請上堂僧問元正啟祚萬物咸新咸新一句作麼道師云南城爆竹北塔巴歌進云恁麼則五湖四海王化裏師云碧玉階前舞羅裳問唯此一乘法云何而說三師云今日是元旦進云恁麼則春色無高下花枝有短長師云闍黎道得自分明乃舉手云伏惟伏惟復舉云伏惟伏惟驀顧左右云前兩箇伏惟即且置後兩箇伏惟豈有能薦得皇恩親恩一時報盡設或遲疑打入有無隊裏落在新舊窠中勞他泥豬獺狗更去打雨敲風斗柄指寅該有象義爻畫泰樂無窮。

上堂舉雲門問僧明已底人還見有已麼僧云不見有已始得明已又問長連床上學得底是第幾機僧云第二機門云作麼生是第一機僧云緊峭草鞋師云雲門憐兒不覺其醜者僧家富卻生其驕妙喜常謂騎賊馬趕賊隊借婆帔子拜婆年雖善錦上鋪花著些光彩嵩山即不然魚游春水鶯嚶花枝來日看取。

小參大哉竹杖朔二離院良駒遠廐黔驢系斷紫金光聚有目不見嵩山和尚別有方便以杖畫一畫云見見之時見非是見便下座。

上元上堂填基石嵩阿畫棟雕梁若何不比尋常茅店燈王親馭銀河山僧與麼拄杖子道老和尚須善應時納祐莫墮在世法圈裏師應聲云弗也拄杖子又道試道來看師驀拈杖召眾云星隨平野照燈列大街傍金吾不禁夜處處足笙篴不勞冷淡重相贈繡佛前頭禮定光。

上堂磨磚打地啟家門經紀綱維賴後昆昨夜星橋鐵樹火星星燦爛遍乾坤。

架木上堂春山淅淅風如箭綠柳夭桃呈舊面潦倒多知般爾公閤浮樹下華王殿以杖指木云鋸者鋸削者削莫教明朝與後日。

樹柱上堂僧問法堂新構四眾雲臻祖令當機如何酬唱師云烜赫輪先德進云七十世來成禍事而今殃及在兒孫師云流通賴祖圖進云任麼則春風卒未休師云腦後猶欠一椎問今日豎柱佛法世法如何師云橫三豎四進云可謂長短適宜曲直得當去也師云分付般爾門下俗士問列祖安身處即不問如何是撐天拄地事師云東邊的得恁麼長西邊的得恁麼短士云恁麼則昔時靈鷲今日嵩山也師卓杖一下士禮拜師微笑乃云斬新日月作者家風特地乾坤智者要妙緣我護法不惜玉帛金珠成殊勝因作希有想為津為筏利己利人只得階陞嶙峋全彰祖印寮舍盤錯顯露真宗飾枅桷之命奐雕桴棟桷之煒煌飛薨爛然左成右平壯矣雨虹跨海雲雀來儀給孤功業既昭般爾氏之藝益巧以此功德用祝國祚彌隆 藩鎮滋茂在筵勳貴外護檀那不忘靈山記共駕昆水航大眾入理深潭即不問恩大難酬事若何真俗煥然彰法印河山依舊畫圖中。

上堂百歲村婆只在牆全無一事可思量分明好箇安身法切忌遺言到諸方嵩山恁麼早是龜毛寸寸長復云食物相呼鄉語別滇南蠶豆名燒鵝從今說破休疑怪木人也解唱巴歌。

張星瑞為李母太夫人祈壽上堂丹花競秀信爾桃實三千海福駢臻率然觴稱八百鳳鳴六六鶴舞雙雙九如再呼六鰲并轡金馬歌陽春之詞碧雞吟白雪之曲驀豎杖云嵩山拄杖不覺成首壽詩卓杖云行摩竭令展少室規介爾壽介爾禧佛祖位中只是伊。

上堂綠柳垂條芳草芊黃鶯啼處杏華天松梢月薜蘿灣夢到華胥意悄然此四句內有一句抑揚佛祖鼓弄三玄覷得破不直半錢。

師誕上堂一住嵩山十六不覺年到知非赤條條底誰會白的的底何為無手行拳無舌解語坐卻一走卻七看古人難為辭竿木隨身逢場即戲既是納僧本分尋常又道不知邀朋散步昆池上笑指華峰與天齊。

上堂舉楊岐云楊岐乍住屋壁疏滿床盡擦雪珍珠縮卻項暗嗟吁翻憶古人樹下居師云嵩山別有箇見處嵩山輪奐齊南極棟宇窗櫺閒雕漆白昂頭任所供鐵額銅頭從此出。

上堂落雙鷗透九重還他好手破三關拈八棒不費些力所以龍泉太阿出自良匠慧刀智劍須是其人如今我牧野不易顯宗不同諸子其力既充又作麼生分付瞎驢隊隊繼前蹤滅卻瞿曇正法眼。

眾內府為宗巨廖公資冥請上堂昇首座問佛法大義即不問廖公歸家事如何師云山前麥浪滾滾進云恁麼則九天雲靜鶴飛高師云再下一轉語進云兩頭齊坐斷一物鎮常靈師云認著還不是座便拜洪堂主問如何是理法界師云道者合如是如是是事法界師云問得自然親如何是理法

界師云莫棒打石人頭如何是事事法界師云袈裟裏酒肉百億須彌春色
靄一輪杲日正中天師云是處見善財乃云山前麥浪滾滾園中榴火爍爍
返舌無聲無啼法堂有禮有樂以杖卓一下云大眾山僧與麼不覺地藏菩
薩欬嗽一聲驚起閻羅天子高叫快活快活自從登極已來罕聞此音左右
阿旁亦各同聲唱言伏惟大王顯斯妙音庶南閻浮提情與無情長似今日
得聞則箇阿呵呵大似無事醉眠明月峽起來撲碎玉蟬蜍。

上堂客歲秋冬頭祖堂興工作今來四月初弄得沒殺閻家裏事情一向拋
卻幸有些兒好處時時與人斟酌百尺竿頭擦手徘徊生機一路了無思度
拄杖子則不然乃旋風打云要與諸人同入鑊湯鼎馱拋下拄杖云大似八
十歲老婆輸卻腳。

佛誕並法堂登脊上堂拈拄杖云拄杖子適纔舉足上至有頂下至無閒盡
佛國土一蹋粉碎釋迦老子只得無處藏身卻向嵩山法堂脊上鴟吻眉毛
隙裏藏身被拄杖捉得汝諸人要與釋迦老子相見麼復拈拄杖云在者裏
大眾若也見得不但得道得果亦且做得無事道人設或遲疑翻腔異調去
也古者道諸有智者要以譬喻而得開解正如山僧勑法堂興土木於仲冬
登鴟吻於孟夏涉寒暑勞筋力一上神通非同小可砌生公之石磨讓祖之
磚鋸石頭之木泥大瀉之壁苦梁武之瓦繪黃梅之廊建黃檗宗旨唱百丈
門風然後始得十方同聚會箇箇學無為此是選佛場心空及第歸大眾如
何是心空及第的道理未解語前先作賦一朝直取狀元郎。

自恣挂六十九代諸祖像何寧宇昆季請上堂六十九箇老古錐在無陰易
地上閒不過將根無根樹子植向無為國叫不應山前不覺日居月諸枝繁
葉茂節錯根盤情與無情莫不盍蔭將謂功能莫與並者殊不知總被吳道
子一毫頭上信手圖來如今安置此堂一毫不敢動著六十九箇老古錐性
命既在不肖慧手裏且道如何發落一佛陀二達磨三元和其餘是甚麼只
緣何寧宇昆季設盂蘭會廣資冥福更要舉揚箇事以答殊床且道報答殊
床一句又作麼生山河天眼裏世界法身中。

上堂若道有生空裏釘橛若道無生眼裏著屑生與無生應如是說宗巨廖
公聞山僧與麼便向虛空裏大睜兩眼看諸人去也遂喝一喝云喝散白雲
千萬里一輪杲日挂長空。

上堂舉僧問古德深山巖崖還有佛法也無德云有僧云如何是深山巖崖
佛法德云猢猻倒上樹有者道石頭大的大小的小嵩山即不然或問深山
巖崖還有佛法也無向道有如何是深山巖崖佛法青蘿夤緣直上寒松之
頂白雲淡出沒太虛之中。

上堂舉道吾和尚示眾古人道認著依前還不是實難會土宿頷下髭鬚多
波斯眼深鼻孔大甚奇怪倏然透過新羅界師云真金終不和沙賣大蹋鴻
門是樊噲休耿介日照碧雲峰石女下階拜。

上堂舉古德五蘊山頭一段空同門出入不相逢無量劫來賃屋住到頭不
識主人公師云道則特煞不經揀點五蘊山空合空教誰出入教誰逢休道

劫來賃屋住而今捉敗主人公。

上堂舉山翁和尚上堂虛空裏還有釘得橛者麼一僧纔出禮拜翁打云且釘者一橛著便下座師云山翁老人可謂至矣盡矣嵩山不然待伊纔出驀與一棒云此一轉語央及闍黎流通大眾還知棒頭落處麼便下座。

上堂六易方消漠漠水田白鷺一陰初息陰陰夏木黃鸝插翅蚤冷灰裏撲跳斷觜蚊鐵牛邊挨排熏風鼓匝地之和梅雨銷普天之酷佛子住此地即是佛受用且如何是受用一句文殊擔水纔執爨普賢掃地便折花。

上堂毘藍七步示周行開眼堂堂落鑊湯莫怪傍人著把火從前做就空自傷大眾相救相救眾罔措師云帶累拄杖入地獄去也擲下拄杖大笑下座。

午日上堂石榴肉自丹菖蒲柔寸節時節不相饒心事冷如鐵三閭召魂魄沈湘水百梟和羹羹賜北闕解角粽以消閒飲雄黃而自適驀拈拂子云汨羅江岸草如煙千古水春雲夢澤。

上堂舉教中道凡夫實謂之有二乘析謂之無緣覺謂之幻有菩薩當體即空恕中和尚云虎咬大蟲蛇吞鰲鼻弘覺和尚云萬般假造由人到底無過是麵師云二老人與麼教乘猶較些子若約納僧門下須是別有始得何也打麵還他州土麥唱歌須是帝鄉人。

上堂舉演祖示眾本末須歸宗尊卑用其語利劍擲虛空大棒打老鼠山僧亦有四句不要五家宗掃除諸方語賴重負大蟲螭螟吞老鼠。

文德明檀越遷化眾像請上堂長劍倚天凜凜銀漢師王踞地蒼蒼川原又誰管你神頭鬼面羞慚本分衲僧烏嘴驢唇笑殺通方作者總馮烈芑一國晏然從此坐定封疆翛然虛凝宇宙恁麼尊貴且如何奉重銀漢光生金殿曉玉爐瑞涌寶雲天。

中秋上堂秋雨連天秋風落葉秋光夜寒秋杵聲徹拄杖子道老和尚得與麼我亦有箇見處秋水汪洋秋山一枕秋雲滿握秋波萬頃遇此良夜月移金井相體裁衣脅下打領酌東院茶煎雲門餅唱演祖歌翫夾山境正恁麼時豈不酩酊稱快哉遂擲下拄杖呵呵大笑云可憐詠好句楓落吳江冷。

韓永先薦室人羅氏請對靈小參白楊競疫黃菊競妍明堂插瓦昆海採蓮物各所宜實非偶然有時恁麼石頭瓦礫善說般若有時不恁麼金珠玉帛翻為泥土龍女八歲證果城東不欲見佛恁麼中不恁麼不恁麼中卻恁麼大眾百草頭上祖師意即不問汝諸人且道羅氏孺人即今在甚麼處驀揮拂子云脫體名相外寥廓月明中。

上堂傷風已數日痰喘實難遣攢簇不得底脫之莫能追既攢簇不得脫之莫能即使德山棒臨濟喝總用不得何故豐白雲道的。

董古維初度上堂山河大地日月星辰雖有異見絕無異名五嶽三山聳峙四溟七澤流深其間則有七賢四皓三老五更同氣相求同聲相應拍拍玉振句句金聲歌紫芝詠長庚舞盤錯列班荆拈拄杖召眾云者些子為甚麼豐為我古維董君增壽算益遐齡看取蓮花淨方知不流心。

謝兩序上堂十年坐斷嵩山一句走殺雲水冷地驚起碧雞何曾不是此理
雖然添石鉢來自有力檀越明宗旨出乎及第禪和有般的較米秤柴添鹽
和酢互為賓主遞相激揚如今既是全暗全明雙收雙放作家勘辨足可觀
光畢竟從甚麼處得來釣竿斫盡重栽竹不計工程得便休。

師誕眾請上堂節到清明時節少長奔走墓田不知劍去久矣猶說青草塘
邊此一可笑有物先天地無形本寂寥能為萬象主不逐四時凋既不逐四
時凋為甚又道髮白面皺將死不久此二可笑當日釋迦老子生下來自謂
天上天下唯我獨尊也好箇伎倆為甚雲門一棒打殺與狗子喫貴圖天下
太平此三可笑四眾與我慶祝望我說法年來雖有一張口只堪挂壁此四
可笑更有一笑付在來日與你說破。

上堂今年十分佳節山林城市各別城中朱紫繽紛林下松風凜冽一往看
來只得一櫬更一櫬明朝歲旦有煩兩序清眾詣大雄寶殿祝延聖壽莊嚴
萬德舉兜率堅長老住嵩山上堂十載嵩山下鐵鞭諸方憎惡得人嫌而今
且向千峰裏一枕石頭隔水南也不管私債官錢也不管說妙談玄諸禪諸
禪莫只蒼蠅舌上打鞦韆。

法語(附小佛事)

示蒼波西堂嵐波後堂松波堂主

余住昆明十有五載矣方來衲子往復不絕或至自迦葉祖庭及詢其山中耆舊而滿口道山中英傑有某某清況又有某某皆僧中龍象余故慕其人久矣歲辛亥應大理護法之招合山皆有命請主石鐘十月十五到院及閒暇從容講論一一如前僧之言暨開爐日果不惜身命向山僧棒頭喝底腳去拳來際會風雲乘時變化豈非赫赫祖庭濟濟多士耶況此道自玄鑑古庭而後淪沒無聞亦吾人之羞也夫欲大祖宗之盛業除宗社之草茅須銅頭鐵額虎驟龍驤或得趙睦二州手段勤杲兩祖家風方可紹隆斯道復何難乎且耳三人道行非一日也既親炙山僧塵拂之下而又牢籠不住呼喚不回安得不兩手分付庶師資道合授受有憑亦使人知迦葉道場儼然一會未散也閣筆顧三人云儼然一會又作麼生三人禮拜余復云磚頭瓦塊得大自在時侍僧請續後句余又云水漲船高泥多佛大。

示雪可維那

廣維那自庚戌秋見嵩山已來常叩諸祖徽猷既而有聞則衲僧巴鼻已被扭折所以當仁不讓機應詞赴山僧以大器期之舊矣因更其字雪可取立雪之義及隨侍雞山亦循循然稱其職且不憚寒暑而志可謂高也今年又跋涉萬里再歸嵩山毫無怠意既領記錄不避繁冗一日與舌侍者遠監院三五禪和隨看記錄山僧遽問公長沙人也姓甚名誰廣云姓岑名大蟲山僧曰既是大蟲為甚竄入僧舍廣云無入不自得隨聲便喝山僧曰雖然子早契三十了也廣云禍事禍事便禮拜遠監院同舌侍者喜而錄出以陳山僧山僧曰擗之舌侍者向前云休擗休擗法地不安振動和尚山僧大笑而已。

示大旭

在嵩山時大旭禪人將大理諸護法及松長老諸山命來邀余主法石鐘經歲餘始應茲約來張是席念伊冒雪披霜幾受辛苦相隨登陟無倦怠不辭勞且往往殷勤懇切請益從上宗乘極則所以開爐日當易法戰不避利害

余將告去出紙一幅索余法言為道截徑余憫求道之志堅且銳故向馬頭栽角龜背插毛他日死中活來痛罵山僧有日在。

示法輪

諸佛法印非從人得日用尋常閒一動一靜一理一事一切處一切時討箇下落始信飯是米做然說箇下落早是頭上添頭了也不見道佛之一字吾不喜聞說箇佛字漱口三日雖然如是未免法堂前草深一丈而學人之志荒矣何也若是過量人向生佛未形已前薦得尤訶為途轍何況說是心是佛邪法輪還諦信得及麼○無始至終只是者箇剔起眉毛仔細看去。

示南指都寺

此事如總攝常住相似一年之計無過早完國稅始免催科之繁國稅既早完納然後方理佛前香燈僧眾日費勿論巨細一一在胸中他人則弗知也其茶鹽醬醋一切資身之具或長或短或用不用利鈍得當多寡得宜則智愚賢不肖之慮亦自省也倘私其情隱其蔽則智愚賢不肖未免相怨嫉矣我既尊賢容眾為法忘軀興道德舉仁義衲子自然望風而至又烏可與區區稗販同日語也南指都寺乞法言因書數言為叢林之盛事知此可學道矣。

示大一

有祖以來不立文字語言單提格外鉗錐但有問便與驀頭一擊更不如何若何只要指出當人脫脫灑灑的受用上至諸佛下及含靈皆承此段風光然此段風光雖歷塵沙劫無染無污無修無證只為情生智隔想變體殊沈蕪五陰山不覺不知動與妄想俱故有輪轉耳大一禪人不憚勞苦請法石鐘因示燦祖極大同小不見邊表極小同大忘絕境界倘識得此事畢竟亦不是別家鬼神茶飯。

示至善

惟善為寶天帝亦以十善而攝伏眾天人且如世間匹夫匹婦或有語言講論稍盡其理亦必稱善或隱惡而揚善或聞善則喜之數又經云梵音慰喻我善哉釋迦文此皆世間善若上根利智善惡都莫思量豈不大丈夫故六祖問明上座不思善不思惡阿那箇是上座本來面目明從斯悟入至善禪人與麼參究倘究之了不可得雖不中不遠矣禪人以為然不。

示嚴如

王老師道喚作如如早變了也你看他古人向萬仞崖頭把人一推要伊深深到底此是真參實悟出格高流所以出言亦必然合轍到得者裏方能把手上高臺步在青山外故曰大丈夫須向異類中行始得嚴如究吾祖之道乞石鐘一言以故乃書此相助倘朝於斯夕於斯猛然覷得破亦自然是隨分納些些之功業也如今樂見王老師麼牯牛左肋上為山一箇僧。

示善知

般若無知無所不知又道知之一字眾妙之門眾禍之門然不是不知而說無知如善知眾藝南詢一人而已後來有箇地藏問法眼行腳事作麼生曰不知曰不知更親切眼從此悟入廣誦禪衲持一幅索石鐘書入道之徑並賜一字余問汝名誰耶曰廣誦曰其義云何曰取智慧曰如何是智慧誦唯唯因使人研墨書善知二字付之誦忻然作禮求錄此言為他日券盍謂能發他百姓日用而不知之旨也。

示允中

不在內不在外不在中間如其心然惟精惟一允執厥中未發謂之中說似一物即不中然則凡聖之理小異大同惟在操捨之間日用之際無纖介梗塞無毫髮可爽不必安排亦自然百發百中矣佛邪祖邪聖邪凡邪僧邪俗邪三宗五教邪諸子百氏邪玄妙機關邪然亦在其中矣亦可謂允中也。

示良知

總角時從二老人邊聞念佛三昧比長見吾家老幼賢愚悉尊此善然易信而難得旨趣盍念佛者皆隨聲相應未深究淵源習以為常又有一種最下或為應對之詞或為朋誓之意或為募化之唱或為談笑之柄譬夫盲者不睹其照實非日月之咎盲者自障爾殊不知此念佛三昧最易最簡隨其根而生善因所以永明龍樹馬鳴中峰唯贊此三昧狂禪無識將古德金石之言以自蔽復蔽人也念佛堂良知索書且請開示余曰如母憶子如子憶母子母同憶則有兩得相見之日不然則否而亦徒自勞也倘若更看念佛的是誰猛然捉得住始笑山僧饒舌。

示天性

衲僧家十箇有五雙相逢便逞驢唇馬嘴盍學得一肚子餒禪到處打機鋒扯葛藤瞞神嚇鬼欺忤良善誑惑閭閻說相似語搭籠侗印寫偈傳書以為印證烏乎是何妖魅之所著波旬之托跡邪如來常言假我衣服稗販如來佛語皇皇豈欺人哉若真正道流定不入此一類真如師子遊行不假伴侶象王回顧百獸潛蹤亦使神鬼欽仰天龍訶護決不以一元字腳薶沒後昆若秦鏡當臺狐怪自不能潛伏矣者裏還有聖凡人法可做勾當不天性禪人其勉之。

示本寂副寺

本來無物何處惹塵寂然不動感而遂通到了者裏賢邪聖邪僧邪俗邪蠢動含靈邪莫不承此恩力即賣生薑漢使戒和尚重之豈外是乎所以能左右僧規毘贊法化致於數米量鹽出內取與倘一一收拾得來始信兒孫滿天下之記不是過也亦或人天推出綱紀互陳龜鑑叢林格則群聽與從上老古錐爭行伍定可否復何難哉實皆自性流出秉受師承豈比泛常徇情作弊者同日語也所謂家肥生孝子國霸有謀臣。

示法藏

名山大川絕有高尚之士隱跡其間是知世出世利己利人比比皆是總之道在日用則動靜閒忙不可不急著眼觀倘觀來觀去日久月深如貓捕鼠諸根順向擬無不中否則全沒交涉矣所以古人有言舉措看他上流莫漫隨於庸鄙僧問古德學人沒奈何時如何德云老僧也沒奈何和尚因甚沒奈何德云我若奈何拈過汝沒奈何德山又道仁者莫錯問取以為知解老漢不能入拔舌地獄此一問答直下了徹如擊石火閃電光絕非依他作解障自悟門者可能萬一也不然有甚了期法藏禪人秉慧劍乘願力殷勤懇切真學之志士名山大川高尚人也山僧為虛空安柄書此言付之他日有問從上宗乘極則但向道乘閒倚杖松閒立笑問客從何處來。

示智足

學道人為將相所不能為況世閒位望邪比見一種咬豬狗漢向方冊上記持一肚子禪或向人口嘴邊拾得一分次唾便以為千了百當卻來魔昧人家男女多多和和取便過日所以見他明眼宗師不得又有一種口舌利便道某是某宗某是某派誑哄閭閻取笑有識終日隨邪逐惡捏出許多枝枝葉葉來嗚呼是何魑魅之為祟邪辛亥冬放蒲團於石鐘大覺寺智足白余求指示余恨孤陋寡聞不能作長句將陸路所見聞的錄以為示雖以為塞責然亦有好處何也欲辨邪正自此始矣既以余言為當或因地一聲方知

老漢無一法與人雖然不入虎穴不得虎子若真達不疑之地廓若太虛還知麼陣雲橫海上拔劍攪龍門。

示道悟巨雍侍者

如欲博綜宗乘必須先去意識然後眼空四教情忘百氏虛其心實其腹瀟瀟灑灑若點太清之雲隱隱濃濃似觸虛庭之翠遇境逢緣虛而靈寂而妙咳唾落金珠動靜散飄霧野馬也佛眼難窺其際象王也蝦蟹豈當其流所以出家事非將相之所能為者此也昔如來棄珍御如脫敝屣視寶位若縣贅疣直入雪山食麻食麥期了斯事安能以一文字腳撈攬眾生使越諸塵累哉雖以無量法門範模三界梯杭九有如日縣空似風撼樹無物不彰無物不矚隨其根性示以法乘皆事不得已而為之義寧有實也不觀之古人乎天地同根萬物一體作麼生得到同根一體地位一月千江不是喻得來的著實參去。

示谷裕弘侍者

學道流忘形骸絕嗜慾離見取損所益不惜寒暑不辭苦饑向冰山雪嶺林下水邊尋訪高流親近知識求一言半句可了我平生大事然後於行住坐臥處不期然而然撞著磕著可謂得也至於喜怒哀樂貪瞋癡愛不待遣而自然亦無繫絆矣古不云乎舉措看他上流莫謾隨於庸鄙此之謂也自古弘通祖道莫不秉此鐵石心肝勇猛志向亦不怕八風鼓蕩直待懸崖擦手後蹋著祖翁者片田地始信幾度賣來還自買為憐松竹引清風不是虛語。

示道平谷應

舉世間人學佛滿世間皆是其中求一二深究此道者半箇也無大約盡是虛假不過鬧閨以度歲月而已至於本分事上實未知下落在不觀之古人乎趙州四十年不雜用心八十尚乃行腳盍為生死事切利物心堅所以收功大非同小可故出言吐語如銀山鐵壁見者卒難趨向叢林目為趙州關豈虛言哉今天下為人師者莫不拈提以示人從伊示處悟入去者十箇有五雙皆是得力的倘依而行之終不相賺汝還肯麼不許夜行投明須到。

示念佛堂超宇

乾坤之內宇宙之間中有一寶祕在形山阿呵呵莫錯認好石鐘如此亦似提棒喚犬按牛喫草若是久參道流聞與麼事便好驀面相唾雖然石鐘猶

向伊道且緩緩是則也是你試把將那箇來看更若眼目定動便好驀頭大棒然而者棒也有賞也有罰是伊委悉麼橫按莫邪全正令太平寰宇斬癡頑。

示念佛堂靈光

人為萬物靈故靈莫人若也百丈常言靈光獨耀迴脫根塵豈不直截哉又不見他雲門大師道知是般事拈放一邊然後向者邊行履有僧問如何是透法身句門云北斗裏藏身雲門恁麼道是者邊語是那邊語又問如何是佛門云乾屎橛是直截語是汗怪語靈光禪者要見雲門麼倘見得雲門則念佛也是參禪也是何謂犀因翫月紋生角象被雷驚華入牙。

示含中

石鐘門下也無許多禪教人參只就人人本有之物箇箇不無之理以示導之倘於此處會得便是真禪也然而不見之古人乎香林二十年尚乃走作趙州十八上便解作活計豈與枯禪默照者同日而語邪抑用此以惺後人邪高上之士自不取相似語藏在胸中以為己有若如此名為運糞入皮袋故五祖常言汝等諸人諸方參得的盡是琉璃瓶子禪不消老僧一椎粉碎了也所以東山而後子孫昌盛盍得之有本不然何有今日也還知下載清風一段受用麼磨房酒肉與胭粉逢著鄉人唱巴歌。

示頂目

應對之餘禪坐之暇而常疑著箇雞山及乎到此見山之峻秀水之清潔松森森而蒼崖岌岌而赤洞壑瀾渺雲澗潺湲四時花木之繁萬岫煙雲之幻名藍鐘鼓之清越葑屋茶煙之篆籀燈火相接雞犬相聞真林下之美出塵之樂回視紅塵則霄壤矣所以古人住山有二或大事未明或佛祖因緣未透故隱居山林以便深操力討直俟猛然桶底子落不期然而然可謂得也頂目禪人其勉乎哉。

示知本

學道之士如人捉賊先知賊之所在然後掃其巢穴蕩其窩家不待更設籬塹而六門無擾矣主人公無畏矣記曰君子務本先德曰既得本不愁末而務本得本之人安肯棄本逐末以自昧邪法法爾頭頭爾物也境也動也靜也明也暗也收放卷舒縱奪殺活無非本地風光到此豈非埽蕩之功業也

本來不生何者受滅更不消安頓隨緣放曠任性適時不是聖賢了事凡夫其非本也歟其非本也歟然喚作本早不本矣畢竟喚作甚麼道道。

示淨我

得山之靈故其人秀而淨我生長此山豈非鍾此山之靈乎夫雞山天下之宗山也而名在天下故天下之人莫不仰之然能至此山之頂者幾人哉猶之乎法門得人難守道難而行道又難學道人住深山隱蘿薜非其人莫能住所以住此山行此道者又難於明道時也若齷齪齷齪勞勞碌碌安能有志相砥礪此道邪是以山林之士有山林之樂也所謂佛子住此地則是佛受用不然徒自勞困於道何益哉古人有言生死未明莫住山住山轉見增煩惱然住者不住者皆是病畢竟如何淨我試斷看。

示元極

欲明箇事元自本有既曰本有因甚被人問著則目瞪口呿恰似木石相似及見他人所為而又卻似明白卻似知有且畢竟過在於何過在有佛有祖有禪有道及落在見聞覺知殊不知此見聞覺知元來是極則中事但過在未曾於見聞覺知之先著得眼所以為見聞覺知昏擾擾不能青楚有此大病也有者道元初實無而今卻有然元初實無無箇甚麼而今卻有有箇甚麼請從此究之究之無地正好向石鐘手裏請棒喫何也藥弗瞑眩厥疾弗瘳。

示淨光

淨極光通達是先佛極則之談於此潔白地上蕋沒許多英傑之士盍人之力至此便休不能前至寶所可不痛哉不見莫守寒巖異草生坐卻白雲宗不妙此真刺骨之言也何不向一切處放教自在去古人有言舉不顧即差互擬思量何劫悟殊不知煩惱無明幻化空身使當人直下了知方知無始至今無第二人第二見不住彼岸不離此岸隨其所得到處優游一語一默一動一靜無不從淨光處來到此卻來觀世間由如夢中事淨光以為何如。

示通洪

洪波浩浩白浪滔滔雖則衲僧行履正眼看來總沒交涉何故鼻祖西來早成途轍何況旂鼓相當遞相傳受列派分宗轉成窠臼邪者裏若實有禪與人參有道與人學是爬糞塗人面孔了也天下老和尚只是教伊休去歇去

一念萬年去向水邊林下取性度時非有別法嵩少常言諸佛法印非從人得此則和皮骨剖露與人也還知麼泉通仄徑清如洗松滿縣巖翠欲流。

示允目

自到山中百有餘日及乎回思若彈指頃耳雖朝見紅霞逐日滾滾金丸暮見碧雲開月遙遙玉碗今日明日豈有別見哉更有鳥啼巖畔猿嘯樹梢三三兩兩跏趺磐石語山谿鳥獸之靈觀草木煙花之幻或謂萬物皆備於我也或謂水鳥樹林皆念佛或謂會無情說法過水而悟厥旨或謂轉山河為自己踢指而契真宗山僧不覺失笑偶允目禪人索書乃錄斯遊戲三昧以與之允目以為何如。

示無外

趙州道箇無早是無事生事豈容無為天地之母於其閒哉至或曰無相身中有相身或曰無中有路出塵埃或曰莫謂無心便是道無心猶隔一重關此無字有三二十年沒奈何者從上許多骨骨董董崖崖柴柴都從者無字中流出所以超佛越祖接物利生難逃箇無字還信得及麼千聖共傳無底鉢不從蔥嶺帶將來。

示非臺

禪和子明此事須是生鐵鑄就全鋼打成的方有人處若是三日風兩日雨又怎怪得山僧不然且作箇行腳僧不論祁寒溽暑向湖南河北或江西浙東或嚴下冢閒尋箇頂門有眼肘後有符的得真開示猛然識得者隨緣任性歌詩誦偈禪坐壁觀冷處著得眼來自然不受人瞞也卻來行住坐臥不即不離處亦自然七花八裂可謂龍吟雲起虎嘯風生坐斷報化佛頭豈不快哉。

示道拙

張拙秀才因禪月大師指參石霜石霜問秀才何姓云姓張名拙霜云覓巧了不可得拙自何來拙忽有省你看他古人行箇方便不妨奇特如順水行舟自然附流而去更不如何若何如此使人直下無疑豈有他哉只是一箇真實便到如此地步然未悟也只是箇張拙既悟也只是箇張拙就裏洩訛畢竟在甚麼處於斯明得透得方是縣崖擦手拌得命來忽地矢口道著箇非拙非巧自是醒醒田地他時後日不受人瞞也噫噫。

示廓清

此事須是自悟如人喫飯須要食飽方休久久不懈此志自然日滋月盛積功累行亦似登山頂努力者先到若稍懈怠不惟退去亦且生疲厭也如此安能克證此道使佛法卒有靈驗邪所以道參禪須要切海底撈明月摹著石獅子摩尼光皎潔廓清以為何如咄白日挑燈讀此銘字字何曾有此說。

示大用

欲識大道真體不離聲色言語若如是解諸法常現前矣且如何是現前的法莫是青山綠水翠竹黃花雀噪鴉鳴牛行虎視擔囊負鉢瞻風撥草問妙問玄示境示機叫去呼來生擒活捉千般說萬般喻小中現大大中現小麼正眼看來總沒交涉何也大用現前不存軌則。

示普祕

如來有密語迦葉不覆藏既不覆藏而十箇五雙問著不知者何也打初不遇作家到底翻成骨董看他嚴易尊者問趙州一物不將來時如何州云放下著易云一物不將來放下箇甚麼州云放不下擔取去易從此悟入此打頭遇著作家自然合轍的樣子也普祕欲明大事須向放不下擔取去處著眼始得。

示普譌

棒頭取證喝下承當終是泥裏洗土何況奇言妙句四六對偶一一精緻一一古奧為學人作則也又況進前退後左之右之隔夜送語百度思維當我宗門極則事也正是韓盧逐塊真可憐也不見道擊石火閃電光猶遲八刻才落擬議白雲萬里矣倘能七尺單前三條椽下朝參暮請忘疲忘倦時時爾刻刻爾忽地撞斷眉毛因原來因原來不待山僧說自然是也。

示道獻

衲僧家朝遊南天台暮宿北五臺不是神通妙用亦非法爾如然能與雲門睦州把臂的自然慶快平生也如何是佛乾屎橛或盞子撲落地櫟子成七片或見成公案放汝三十棒此等提唱早是借花獻佛明眼道流向未舉已前薦得猶遲八刻何況過江來不然向自己腳根下眉毛上看是甚麼道理忽然踢著腳指撲斷眉毛忍痛不暇又向誰說來。

示克證

欲斷生死根株向佛未出世祖未西來時一眼覷定如貓捕鼠如雞伏卵定動他不得遺時他不得又如截流而渡已離此岸未達彼岸中道忽然水漲若不努力必不濟矣所以古人有克期取證非畫地為牢無過要真實了道耳若是丈夫氣字不入此限矣在自信自度所謂生知也豈區區尋行數墨而謂虛度此光陰邪不然向自己腳跟下覷得破始知一大藏教言詮不及千七百則提掇不起言詮不及提掇不起畢竟是箇甚麼。

示道定巨清

欲達此事在徹骨徹髓悟去方可與向上人把握接談即墾土耕煙非戚戚於貧賤也滾在朱紫隊中亦非岌岌於富貴也況世間浮名浮利而蕩吾真性邪只恐不能發久遠志不能造此真域耳若是操則存舍則亡之夫中甚麼用邪須要立堅固志發勇猛心內則不喘外如牆壁四威儀中不舍晝夜魔自不侵神自恬氣自和四大安六根靜心王樂定慧一則百千神通無量妙用頭頭物物自然得妙也宜慎之。

示道弘僧珠

道在見聞覺知道乃萬物之本道可道非常道又道天下之達道也道無明暗道貫古今道同日月道在邇求諸遠道之所存人能弘道道由心學道在聖傳諸如此豈道聽而塗說者同日而語邪道得也三十棒道不得也三十棒速道速道。

示谷震

風入松濤即應理之必然也聲入谷響即答事之必然也理事無礙一行三昧也理隨事變事逐理融縱橫隨流之道也水流溼火就燥雲從龍風從虎事事無礙之道也見色明心聞聲悟道遇境逢緣忘情息慮是平常心之道也如洪鐘之在架大扣則大鳴小扣則小鳴不扣則不鳴實應機之道也衲僧家既聞此道放下要包便能安穩任是佛來祖來亦只不顧況世間塵勞事乎。

示廓拙

佛法世法非如非異聖見凡見不即不離會則三界為家似小歇場不會四生是宅如大牢獄者箇事當人面門常放光明通天徹地自不覺知盍業識

茫茫無本可據耳若是生死心切四威儀中不舍晝夜時刻提持無一纖豪間斷忽然覷破無始至今只是者箇自今以後更不作佛法世法聖見凡見連此覷破的都莫思量任他八風搖鼓不動此是死中活來且活來時作麼生眉毛原在眼上。

示廣璽

從上祖翁者片田地不離三界不別三界上上根器入荒田不揀信手拈來草明歷歷黑漆漆放光動地無位真人乾屎橛麻三斤殿裏的總是總不是總難逃者片田地總隨其根性各得生長若是蹋毘盧頂上行自然閉門造車出門合轍不入此限亦可到處與人解粘脫縛去且還收得元本契書麼。

示會友

尋明師訪良友無過為生死事大非謂財利而形此結托亦非世俗輩身衣口食不完不充作此故態先德常言寧可失信於天下不可失信於朋友盍處友之道貴在誠信所以勢至稱為良友先德又言非良友勿親非知識勿近楞伽以智慧辯才為難能法華以智慧難解難入德山棒臨濟喝雖慧莫能了安得不尋良師友為我解此惑哉然而了徹此事非向上人不能明向上事且如何是向上事揭開千聖眼坐斷五家宗。

示念佛堂近微大德

先佛以悲願故於塵沙劫示現受生設諸方便意在利生為極務所以廣開定慧誘引群迷八萬法門門門相攝權實雙運頓漸並顯此實方便中接引觀根逗教機智不齊又假念佛三昧為直截之徑度險之梯不論貧賤不擇榮枯但取其志倘疑信相半則往生時自歸上中下品此又豈非志之差別信之淺深邪皆根有頓漸力有利鈍實非先佛有此程限於利濟之途也至於從上有異香滿室蓮華化生彌陀如來親迎觀音勢至親接其載諸典籍者舊也又若晉之遠公明之雲棲皆得淨土之力禪燈中如永明諸禪師無不共相贊揚寧非實事乎余住雞足解制後二日獅子林念佛堂近微老宿索余示禪淨兩門因書大略以告之云耳至若念佛三昧日輪縣鼓水結琉璃七種樹八德池頻伽共命鳥能出微妙音晝夜不息於濁劫世中作諸饒益見者聞者無不愛樂自有經文明正余不復贅也時侍僧在傍問古德道佛之一字吾不喜聞又作麼生余豎起筆云會麼僧云不會余曰相隨來也。

示澹空

澹空自鶴慶來中途被人劫去衣物淨身至石鐘見山僧於聲遠樓雖劫去衣物而絕無慍色求法益堅余熟視之然後從容而告曰烏乎末法時代惜財守物何翅虻蛇戀穴其輕財重道為法忘軀者眇矣況不辭勞苦勤勤懇懇求出世法乎此百中得一耳然未到歇休田地可即去邪實出事不得已也乃索法言為進道之階昔僧問古德家賊難防時如何德云識得不為冤只此一言可終身疑去。

示拙虛

先德道寧可永劫沉淪不向諸聖解脫此語直切簡易此可與知者道難與愚人言所以無智人前莫說斯經此是文殊普賢大人境界惟聖乃知須是與丹霞雲門把臂臨濟德山為伍方纔步得青霄外坐上毘盧頂向無影林中高懸日月照破情根立地成佛且畢竟承誰恩力待汝有箇轉身時向汝道。

示蒼奇關主

山僧三十六至滇今年半百過也雖風雲際會一時而履荊棘冒弓矢橫身冰稜側足劍刃是非煩惱似轉風輪終不之顧者蓋志在恢弘祖道耳汝既秉夙因欲究此事在關內不可須臾懈志恐失出家利也山僧開法鬼方每常引演祖喻賊兒相似何也蓋此喻極直截若依而行之決不相賺。

小佛事

為何門解氏太孺人舉火生以不生生浮雲點太清死以不死死紅輪下昆水生也不道死也不道信手拈來草你如不信待解氏孺人放火光三昧看遂擲下火苣。

入觀者一片田地分付來多時源自威音以前芳流慈氏而後四維絕回互八表沒遮攔七賢欲扣無門五眼擬窺難見此是原本契書付與解氏孺人向無陰易地上住此無縫塔所謂佛子住此地則是佛受用。

為廖宗巨舉火玉屏山說心說性發明劫前未兆之機蘇家村論要論玄收放目前已彰之印已彰之印未兆之機壁立儼然姑置勿問而火燄與三世諸佛說法三世諸佛立地聽以何為驗以火炬[、 / (、 *、)]云玄沙道的玄沙道的。

書問

復江川令張公耕煙居士

梁城近年來往往得江川人到省會稱道江川公之清政和平前此未聞有如此良父母也而且頌聲盈衢中外不絕不識江川公何修得此美譽如此之隆也雖未識面常竊慕久矣月日有呂某者來自吳門得一書乃平江江村和尚所寄啟讀之方知江川公從先師翁法窟中來真一代揚李也江村有字寄公署已托之從聞禪師不意從聞往臨安所以不及齎投非敢疏慢自取罪戾也又接旦平居士一書轉增慚媿今又讀所示並佳什字字公美言言天覺可書座右以砭鄙吝真良劑也慧往來梁益間十四年於茲矣絕無一人可語者一旦獲聞所未聞豈非頭上公所賜邪嵩山荒剝得公之來泉石生光自此始也此又非我先師翁冥庇何能臻此慧常揣之俱乘願力而來不然誰肯忘位貌下交於山野之夫也所以江川黎元獲福南徼草木感化德冠六詔仁及百蠻使森羅頓然起色者此也慧雖識淺學疏非悅老之明敏然何懼不能答一百問頭也擬即晉謁奈土木之工未竣聊肅荒函代訊起居稍得餘閒方謀接色笑臨楮不勝神溯。

復雞山石鐘慧融主人

自到昆海便有曳杖雞足彈指出定裏頭陀把手論拈花意旨實非怯螳臂而不能當金根之車輪也不意諸方削牘同人交章爭先下邀直使報命之不暇故十四五年來蘊一座祖山在胸中至今尚未了此一案也忽忽子規在樹石鼠出穴時當春去夏來得接瑤章金玉作聲珍貝交錯自念下里庸才巴渝陋質多慚過譽感激猶深奈何法社初成難以應命特修寸楮用復高雅外具俚語別申鄙意俟秋月當天促織驚婦或策杖而來對點蒼山接談笑向華首門候頭陀然後次第與諸耆舊作十日談公以為何如率復不次。

復平江法華澧伯和尚

環天下而叢席者自古稱江淞為禪藪辨才智曩代不乏人況吾祖父發跡之地邪所以能剖佛祖行說不到處實惟有此英哲至於今日為能深窮此學使衲子有所矜式者又在我天童老祖與我先師翁五十年苦心也暨二

老人唱滅又得吾江村法伯和尚復振起江左不墜先人宗社此實吾門幸甚聞吾師自廣陵復轉雙塔再與和尚往復笑聚想拍拍是令而二毒鼓聲邊聞而死者又不知幾人也慧獨處寡聞之地加之熨蠻為伍侏儒接話故此言論鄙拙實媿古人奈何及門者竊錄妄付梓氏敢當不枝詞蔓說以嘉惠後學之譽亦可以并駕當今獅馭也邪皆和尚過美神駿以光下乘耳慧自揣才學俱劣且遠在炎方慮唐突法門罪在不宥倘和尚常頒清誨則慧受賜多矣屢欲自滇黔達楚由楚入吳越買舟過臨安登徑山拜埽後再向四明上太白密祖塔頭燒香上供然後晉謁和尚縱觀法席一洗茅塞其如歷年多土木之勤應接之繁所以不能完此公幹是慧終不了之局也江川公雖未謀面然神交久矣今得親接談笑皆和尚遙為噓植使慧有可語者又皆和尚所賜也梁益法運其所異同與江淞細大矛盾其間皆不能去寸而主法者更難於蜀道百倍一陰應候萬物資成望吳雲而迢遞對榴火以裁緘媿乏一芹伏惟原宥不備。

復鶴慶眾居士

八月朔同二三子談笑鵠齋窗下忽典客報鶴慶書來啟函捧閱見眾居士慮我會省水患兩月兩泛雖無驚民之苦泣珠之恨而易候之虐人未免啼饑號寒赧然載道矣嵩山一坐具地賴祖宗之靈殿閣無恙僧眾稍安獨是垵垣數處勞人遮塞而巳多煩眾居士深慮遠懷實見師弟之誼非多生夙植不能臻此感佩之私又非筆舌可盡也秋冬之交登雞足後握手鶴慶可在指日間也水歸大海波濤雖靜雲到蒼梧氣象未必閒也可與至者道公等以為何如。

與劉太史(諱菴自號火居和尚)

石壁揖別涉螳川登煉象不勝崎嶇勞人也渴想清誨無翼能飛時對老松古澗怪石奇峰何啻在昆明與火居和尚之夜話坐樹義坊之談楞嚴邪及抵威楚小坐垂柳之下微諷所賜佳什又覺神清氣爽不止百倍也太守馮公不以居方面之尊下交山野之夫可謂今之濟川則知外護吾宗佛日永賴矣塗中裁寄不莊其嵩山常住侍在匡扶為感。

寄省中眾護法檀越

十月七日自省城早發沿路見山山水水及煙村茅店遠壑頽峰儼若把握清談真不異梁城時也瞬息冬至矣朔日大雪僕夫勞頓心甚不悅及到雞足自亦疲倦也初六日上山頂燒香竟即欲旋杖歸昆明奈何諸郡護法與諸山知山僧意胥來勉留因此不能脫灑矣思念不置裁此專候眾護法想

福祉清和與新禧駢集又非山野管城饒舌能悉佳況矣嵩山常住伏惟弘護使往來衲子得飽柴水不獨黃面老人稱讚亦使山野夢寐無驚矣至於令法久住又皆護法多生願力歷劫聞熏所以有此一段真誠不昧可謂現將軍身宰官身長者身居士身得度者即現此身而為說法而為外護實均不負靈山之囑也山野庸鄙得隨處抑揚宗旨或得一箇半箇報佛祖莫大之恩則山野慶幸眾護法慶幸。

寄楚雄參戎李檀越

鹿城握手旅舍談心差勝昆明十分快暢此路逢劍客呈劍之時琴遇知音好彈之候何殊昆邪離談不二之日也兼之掌上香廚室中機辨知門下單刀直入真破萬人敵一血性漢也非乘願力不能及此且令魔子妖狐聞者膽碎頓顯授受之人得行此道豈同傳遞源流寄一信拂便竊道器者同日而語也前到雞山雪不十尺不^已過三四日始晴眺望諸勝真如觀掌上事訖將旋緣山中禪德胥留結冬未獲載行李東歸耳鴻便肅此草函恭候台祉不備。

寄賓川衛使君

客寓報國承枉顧直使桑門生色兼飽之以德山野敢不銘五內邪山中勤舊無不合十稱於左右前登絕頂兩日便回石鐘竟欲再謁苦為諸刹勉留本月二十五日^已結禪期矣山野不揣材櫟識庸大辱風化徒恃高明作外護不識得保全始終不也倘不忘付屬之心使慧日長明俾迦葉老人與蒼山洱水並耀則山野慶幸諸刹慶幸亦千古一遇也春暖風和萬花吐蕊時旋杖侯門復聆清訓指日可待也臨池不勝神馳。

寄何護法

挂笠賓川得枉駕報國極為希有之遇兼助信施飽我雲水稱謝何既轉瞬閒三易既泰萬卉甲坼矣冰雪皎而梅芳花雨潤而節至惟居士壽域同易和並增道祉齊物色共暉雖藉毛穎多多和和拂劫石數芥城亦不能較量萬一也山野寧不羨哉不能躬祝者盍緣諸山勉留石鐘不獲如意薄具鄙聯用表寸心侍在汪度或不擿地。

答洱海眾護法

到山日雪幾丈矣暨晴明遊覽諸刹雲樓紺殿儼然別一世界然一生看不足之境況五七日可能盡哉不過粗得其概耳待結制石鐘後與諸禪坐論

山巖怪石雪嶂松灣與古今興廢並洗閱碑碣始知石鐘乃天寶開元間尉遲公至葉榆之所建也有僧賓易來將眾護法書展讀之荷蒙遠慰使山野汗甲彌增矣前過貴鎮深飫天廚每欲修候以初到此山人事未閒所以缺典實非疏慢也且山林道阻苦於郵便僧返貴地聊肅荒函恭惟新禧與百卉競妍道祉同三易爭耀是慶是賀。

寄彭護法

省會別來雲山野店坐賈行商朝雨暮雪鴉樹猿藤無不目睹耳聞及到山中與沿途不異豈不雲月同然也聞檀越駕來賓川幾欲躬候緣石鐘結制未能別眾出山徒抱此心耳便鴻裁候台禧待新春時花放高枝易回暖谷山野必策杖金牛而百夫長肯將公署前十尺地使山野一吐別況不。

寄宗人府經歷而足許居士

初晤雲易即如舊識別來使人懷想無已古人謂渭樹江雲之思此真境也其後護法鶯遷來昆明抑揚祖道藩塹宗猷山野粗安無魔外之撓此皆護法多生願力從果位中來不然何以能如是也客獵威楚擬謁燕居適駕往金齒無緣會面抱歉良深到雞足遊大覺睹滿壁滄洲並佳什俾人神清氣爽忻賞不已援豪奉和錄寄左右不審郢削何如時聞護法升轉宗人還京都山野不勝慶快想倚青雲捧白日躋蒼生於春臺自此始矣山野不獲道左奉餞遙肅素函土物六種伏惟筦納不備。

答衛府祖護阿哥

自昆明來沿途無他喜獨是喬松古木山秀水明怡然滿目既已忘勞不十五六日即至賓川矣承州牧款渥甚隆皆阿哥遠庇也及到山中擬即修候奈閒關修阻且長實非疏慢自取過咎也忽辱佳章注意山野不勝舞蹈水邊林下全章祖道使無文印遇性慥漢兩手付之實外護之功阿哥真法門之金湯也。

寄會城眾護法

條風遍野瑞草將舒梅雪爭奇易和溢目眾護法履羲軒盛世樂聖代笙歌萬方頌昇平之大有百郡嬉華屋之長春山野亦遙祝新禧遠瞻佳兆天人俱泰燈月齊輝奈何主席石鐘不能解脫既無由縮地豈獲躬親惟藉管兄托楮君寄候俟旋昆池又得把握為快。

寄祁鎮臺

山青水綠是普賢文殊石怪峰奇是日連驚子居士蹋毘盧頂[寧*頁]寧不知是邪所以逢場作戲遇理即融舒雪嶺之相好演金沙之長舌吐玄機臨宦海豈非風行草偃水到渠成者也易回百谷春控千條道祉福祉雙彰世諦真諦齊顯此又居士多處添些子矣山野擬登轅門一候新禧奈何期會未竟不能自由偶得鴻便問訊起居俟杖旋當謀面作三日談不備。

寄洱海眾護法

洱城聆清誨得十日歡思方外樂於此為盛矣別來山中雨雪漫漫人事匆匆不及修候且聞大師指麗水矣轉眄閒不覺斗柄旋寅易和應律萬物甲坼五花送溫眾護法福共春增道齊義泰山野亦瞻雪山秀靄對若水潺湲借光為遊戲之樂也無由通候懷想益深忽得普上座之便特肅寸言伏惟慧照幸甚。

答劉粹吾並眾居士

一瞬數月真如過隙白駒回思客歲還似昨日寒暑窘人有如是也新正又五日矣遠承華翰眷注實深非相知不及此耳到山來寂寞冰雪中雖道人本分然回首昆明則又霄壤矣諸山胥留勤勤懇懇既開爐結冬是不能速返俟期竟自合歸來將遊覽細大境致細說與二公使不遊而當臥遊也易回律轉節泰時康惟眾公道況新禧與物華並秀山野自不多贅嵩山常住乞百為鎮定尚容面謝不既。

答饒玉章居士

山中無曆寒盡不知那復如此地尋聲逐臭者往來萬千真山林城市絕不減一絲豪也承注念山野赫蹄遠錫非玉公故人不及此也萬物回春千燈徹夜道況清和新禧衍泰不待山野托毛楮兩公一問嘉致也命覓杜鵑山野訪之山中近來諸剎荒蕪此物絕種即花草之娛亦非昔所有也率復不備。

與鶴慶眾居士

雪山蒼山并峙天柱石寶爭長一一領略得可謂會盡無情說法矣論義的論義機鋒的機鋒眾居士以為何如承注念之勤信施遠及直作雲水伊蒲

開闢人天茅塞所以山野陞座發揮宗猷實為南服希有事也山野雖遠在山林而人事尚亦紛雜不及常時裁寄想亦可推諒也率復不莊。

與嵩山諸子

自離嵩山陸路中穿林入簣崎嶇不能言狀真謂庾降賈子左擔七里矣苦輿夫之力心甚不安況鳥雀幻怪瘴煙撲人望荒甸牧郊依水樹雲窩或登巖關度雪嶺或望聚落入旅館此與賈客射利者何異雖欲求三里亭五里寺安可得哉此唐宋諸老行道不至之地也今時頗多總之今之妄稱授受之系以污祖佛之堂者比比皆是亦難細言也古謂啞羊僧封狐野干之屬又謂烏鼠僧鼠竊狗偷之徒嗟嗟法久生弊教壞人家男女信心居士聞此魔風不退息者幾希即使釋迦再生達磨重至亦難挽回是輩矣所以老僧抵楚雄宿苴橋問升菴舊蹟故老亦不能言矣公去未遠即乃若斯矧先佛去世真風難挽故爾古剎新院宵無模範令人感傷不已爾等確守規矩是真報佛恩不然無益可卜。

復洱海衛總戎

自晤對梁益來一紀餘矣弘護祖道眷注雲水惟護法枉顧之勤藩塹之固前不讓邪舍後不遜楊李直使風旛無恙真千古一遇也護法以貴客榮陞元戎梁州鎖鑰南方干城不以山野無似之夫羽翰頻來俾雲嶺荒院生色侈矣既翹首行旌曷勝縣切。

與蒼舌知客(遠弟姓楊名國泰)

十餘年雖專人省師頗勤終未能釋我懷抱而鬱結五內非一日也前二月花朝已束裝躬往藩下護法不肯放行故又弗如所願也議專某某皆遜去使我慚赧亦難再議人也遠監院在傍見我昏悶遂舉爾蒼舌老成諳練誠可以行矣然遠以為萬里閒關何以為助乃用胞弟佐往是以星夜走人上楚雄說其弟馳郵而至會省則爾蒼舌已先馳也今星驅尾其後可以無憂況此人真之崇佛而尚義者爾蒼舌自合無虞矣。

與報國雲夢願孫

師資道合行解相應驅霹靂走閃電已不可枚舉矣寧非父子一堂紀綱千古哉所以能發先人未兆之機規後學已墜之弊惟在住持之人振宗豎綱耳昨省來書並秉拂法語知爾為報國主人益重吾憂何也學道難守道難而行道猶難如領眾有常暗室無媿然後握金剛王是聖揮聖是凡揮凡宗

說亦剷真俗亦剷可謂鎔瓶盆釵釧作一金攪酥酪醍醐為一味豈不光大吾宗梢慰斫額邪。

上蘇州三際寺磚老和尚

久違侍奉哀慕日深非敢以間關修阻裹足不前奈嵩山院子無一能代守者遂致隔別不能一見面真良苦也去年修啟與香金又未上達轉增寸結比時必欲南來不料雞山敦請要慧主法石鐘再四不能已只得勉應而趨庭之日是又不能如心矣今春拜讀教訓知吾師養子之緣尚不絕於慧也二月至省會張護法歸又得瑤函不惟不切責疏慢之過返又獎譽如此慧何修得吾師愛念不少替真和熊舐犢之恩終身難忘也滇中光景不似從前雖住此一席實難高枕想吾師自是深知不待人告自然推亮也。

又

八月二十六日王府差官帶家啟及銀物想已到矣不知吾師近體安逸何如慧不得走萬里奉覲總之院子所羈不得一時擺脫故也滇中法道慧頗不有玷然非慧自陳其好難逃往來人口也大端來夏必著人來梓雞足之槁並再住嵩山餘槁此非慧意實出佛源張護法美事想吾師念慧愚蠢自是印可倘能與前所梓者不背乞吾師斥付梓人若得工完帶數十本與滇人結般若緣不識吾師以為何如敢候進止。

又

今年二月朔慧謝事嵩山以兜率壑長老主院事即日裹束衣囊欲歸省覲藩下眾居士相留且堅即欲逃來而嵩山新主人未必即擔得下深夜籌之行止良難加之江川張護法亦來阻留故江川公有書報吾師實欲達慧之心事也但久違函丈罪過日深知吾師深念慧愚想亦原之矣沅江王護法浪聞遷蜀不知果否若有機會必請吾師回川慧始放心也近日人情太澆浮益不似前日也且杖拂盈衢惡態不堪言良可痛也當此之時只宜煙霞洞裏風雨林中煮沙鑄過日一切不較為愈也餘不備陳。

與文遠監院

自到雞山勞苦甚矣且又人事匆冗無一時可靜回思嵩山如在異域即欲問歸期尚不能說起山中雨雪彌旬寒威不能少遏幸楮拙火猶堪朝莫耳汝在嵩山看守凡事宜小心內外大眾有不如意事汝宜調和使之平妥不可尚性情性情一尚便有許多不如法事此山僧深以為憂大都來歲或得謝事即議行李便是歸期檀越如有問山僧可將此意達之座元與序上諸人皆不及有字來由不得半晌之閒故也即將此字共目可也餘不多囑。

與兜率不磷堅長老

山中雨雪連旬不斷苦人甚矣即沿途勞苦亦難備敘想吾徒自是高枕兜率不勞山僧遠慮也此時法運方轉豈意偷名竊位之夫往往壞事使大信檀越見此不能無疑所以山僧憂之非一日也即吾徒亦備常聞山僧之緒論久矣大端邪不勝正此輩自當息滅昨已見數處早成敗類是吾法門尚有幸耳兜率既有錢穀可安大眾是吾徒行道之幸事不可以為勞苦俟歸嵩山時又得與吾徒說家常閒事餘不多囑。

與銅仁端居嵩石兩和尚

聞兩法兄在銅仁大震法化使長松法燈永照滇黔矣但弟兄十餘年不一面未免渴塵生幾十斛也近日老和尚在吳不知常有信息往來否弟不能一到江南奉觀顏色弟惟罪是恐有日矣如兩法兄遣人問候當代弟一字以達弟意為感前端兄錫教弟已如命奉上不識到否如鴻便乞付數字使弟知兩法兄近狀臨池不勝神溯。

復梅熟和尚

兄書遠至如對面談真快暢矣聞在江南又與老和尚住四五年想一支佛法西還不使長松門庭冷落於夜郎鄉也前得本原兄及海月兄相繼而逝弟駭然痛黔南法運皆賴諸兄一肩擔荷今如此恐從此寥寥耳法兄既歸可還舊觀矣弟遣人往蘇候老人安便遣詣座下俟遲當另致賀使兄弟閒不致涼薄耳大端長松必要法兄主持方得無恙今聞梅隱諸兄皆不欲住持倘皆推諉不肯一肩擔當其任不在法兄其誰為之宜思之可也臨書不盡欲言。

與平越圓覺誠明符姪禪師

有人來報吾海月和尚示寂於平越之圓覺菴使余吞聲痛恨不已黔州法道皆賴爾師與爾父行輩流通今聞爾師如此豈不長松腳下已自無振起於平越矣余以遠在昆明不能來奠及慰吾姪一暢吾梗塞奈嵩山無人代守是以屢舉屢止耳然吾姪天資既高加以誠實當一切時力行只履踐到古人田地方慰爾師於寂光土中亦是吾姪大孝也近來法門雖盛總之濫觴甚矣想吾姪自是高明必不負爾師所囑倘有使人乞寄一音為感。

記

遊雞山記

十年十月二十八日至賓川使君衛公館余城東上帝閣從近雲樓望孟獲
砦雖巖石錯落雲樹蓊鬱而前古策畫雄風尚存暨尋諸葛武侯祠已在垵
垣殘瓦古柏荒臺中矣惟若水金沙可掬蠻煙漁火相照而顧橙橘則帶
霜而黃俯血草則連暮而昏晚嵐靄靄若動若止雪山峨峨似斷似續回首
望前峰則日已在崦嵫下矣就宿報國寺中明日早發自金牛過練洞夾道
松筠而蘿薜亦可人意速度百節橋入拈花寺則又鼓鐘送晚矣輿馬亦自
倦也主人張燈暖湯濯足飲食畢忽六花庭墜一鶴夢沈石壁蕭蕭佛火耿
耿微諷自古關山隔從來客夜長乃與主人分寢矣既見曙色遙映雪光起
促侍僧辭主人蹋雪就道則又淒然林木不可言狀矣至河子孔如洗心橋
而寒不可忍望沙址村近和尚莊十指如椎呵亦不曲是日諸院耆艾候余
道左略敘主賓於土主祠初展寒溫禮也已而輿馬復進人亦叢雜雖寒色
亦可少遁不覺過大士閣矣石鐘坡望瀑布若玉龍下自銀河塵心俱盡
杳杳然入扳松之境也上鉢盂山隱隱濃濃望巉巖則雲鶴爭飛松韻齊落
而谿回峰簇間石鐘在眉睫矣入三門登佛殿古制巍峨使人弗敢仰視
真佛華世界也都人士與戒德禪流禮接遜讓色色可人既坐啜湯果縱談
疇昔愛慕之懷今日始得一遂所欲洵足樂也然後主人拂榻知余倦欲睡
也雖少就寢奈何玉墜銀鋪峰巒不可識而林木亦自無顏惟樓殿羅列儼
然在一銀色世界中也是夜微有不快閱初三日早起望樓殿有旭色來映
紗窗少閒大晴矣乃喚輿夫約宿衲命侍僧整理道具藜杖茶鐺翛然就道
則喜入眉宇也而參錯銀樹黯淡藤葩尚自冷人眸子回巒深處梵宇連甍
有金玉書皆名人墨蹟他如茅屋幽僻苔砌曲折梅竹滿塢雪毫在定未暇
悉數而記也日在禺中始到迦葉殿登階舍采畢出眺遠近峰壑若吐若吞
真令人一時領略不及也西行半里即楊輔玄天兩洞四壁皆有名人墨蹟
袈裟石亦有題賦俯瞰胡獼梯而手攀足蹋者自遠視之若畫軸然此最佳
景也憩小壘石上喫茶數杯方及絕頂頂上有小石城雖女堞零落而金殿
無恙至此始得遠眺名勝東南則雪山羅川金沙若水西北則點蒼洱海玉
關金齒西南則九頂寶易諸葛營皆歷歷可數其餘近則若峰之聳石之墜
種種靈奇幻怪一時難盡筆端遠則如玉柱插天銀山入地西望瑤池與峨
眉東望匡廬與嶽麓絕肖一幅輿圖轉描轉奇也入文殊洞慶喜室古碑雖
存而字畫苔食過半是以廚荒僧殘僅得其概到放光處觀舍身巖石[山/
甜]壁削不敢俯視從此去太子洞曹溪水虎跳澗不遠矣攀蘿直上華首
門在是即畢鉢羅窟也縣巖萬仞飛壁千尋扣石作聲與磬無異泉洗目
而翳可除靈禽依人主人延坐如在閭風顛矣時也雪風聒耳暮日沈澗急
別主人歸到迦葉殿黃昏也是夜宿看雪樓星月繞檐松風入榻覺古佛
世界入我奚囊也明日遂歸石鐘至初六日啟明既沒庭旭方升飯食竟步
自羅漢壁巖縣天際泉落峰閒百尺枯樹倒挂女蘿一塢蒼藤猶凝殘雪曲
徑既幽澗松亦古入碧雲寺過幻空菴皆有姜公思睿遺跡階砌雖荒而寂
歷之狀猶使人道心生也敢云歎息而去邪出外遠顧林杉幽密梵宮深杳

則又不復知天大也去念佛堂而犬吠雪籬鐘傳冰壑一縱目閒又別是一世界也主人近微出接庭外須髮雖白風儀可觀賦詩一章以志獅子林有念佛法席耳是日風色稍暖乃促筇輿晉謁諸刹由悉檀寺寂光寺轉傳衣寺華嚴大覺等寺或品題泉味坐數花須或題詠亭榭揮毫石壁或與老僧相視而笑汲澗而烹真樂亦無窮也問之耆宿則靜室百有七十今所存者纔十一耳八大名藍唯大覺與石鐘可稱首焉至若山中龍象或凌雲高志或懷度世英姿與夫山形水勢人傑地靈又自有大儒君子載之典籍舊矣奚庸再贅今所筆者不過大略以俟他日回昆明有知己者問山靈雅致即舉以似之以當坐遊云耳。

歷代祖圖真贊

始祖釋迦牟尼佛

王宮非不貴愛彼雪嶺月可惜爛冬瓜雜此乾矢橛曹山說不如濟北何
曾別洞水既逆流一翳著不得遙指殿裏的笑殺稱麻伯引起嶺南翁一
棒要打殺打得殺八萬四千非鳳毛三十三人入虎穴

第一世摩訶迦葉尊者

黃金可鍛不知寶色完全素琴作舞何曾響在耳邊多子塔上無端分座
拈華座下忽爾破顏及至親問金襴外卻道門前倒剎竿

第二世阿難陀尊者

持鉢真七佛儀式見鞭實千金駿才後來一呼便應方笑空打野樵畢鉢
羅窟鴻業十方世界華開[歹*堯]伽水闊二王悲哀中流迅急眾僊天
來莫云終古秋江月不逐漁人下釣臺

第三世商那和修尊者

如來縣記巴張錦[餐-食+井]六年出胎實符斯識自然服受氏九枝草
作姓優茶林脩鱗歸命龍奮迅鞠多得定三歸施地建梵宮百億河山入
海印

第四世優婆鞠多尊者

我年十七師心非白從此得之五天取則波旬既伏三屍乃格籌室可盈
聖論難測香眾無我我法印歸有德往復十八變虛空籌焚設利營卵塔

第五世提多迦尊者

山頂泉涌金日出屋入道之相無幽不燭出家非為身心兩語何其敏速
遇同學當示無漏八千人一時攝伏跏趺本座歸去來十八神變是何物

第六世彌遮迦尊者

雖記梵天支離六劫窄路相逢兩兩饒舌舍彼邪徑悟此明月金色雲生
知有聖哲頓使置器側立時家邦從此得安貼

第七世婆須蜜尊者

我獻寶座佛即記我釋迦法中華開七朵執酒器兮師宜識呈本姓兮頗
羅墮智者來兮論義甘露灑兮得果示等虛空道大光腳下兒孫有幾箇

第八世佛陀難提尊者

頂有肉髻辨捷無礙神其無方大功不宰道兮萬世師德兮盈江海白光
騰兮遙識至人口無言兮真是鼎鼎得來明月掌中觀塵刹清暉無不在

第九世伏馱密多尊者

父母非親諸佛非道不履不言至人大寶行七步雲月同發希聲非潦草
有來瞻禮骨相非常七涌舍利光燭瑩皜平生家業盡與伊萬世傳之功
浩浩

第十世脅尊者

夢協白象光瑩明珠兆生聖人百世之模脅不至席大道乃符功既偉矣
德亦可孚馮君莫話封侯事一將功成萬骨枯

第十一世富那夜舍尊者

瞿曇種姓真體純粹一聞至言心明聖智木義踞義兮五百澤被得果得
記兮真嗣乃遂跨鐵騎絕位次迴迴孤光一道明巖巖旁磚黃金地

第十二世馬鳴大士

王身不惜以衣羸者是有縣記六百歲也作無作兮功勝德不德兮呼馬
有魔來風雨下既攝伏淚盈把示性海邪道舍結舌之辭似縣河箭鋒相
柱如餅瀉

第十三世迦毗摩羅尊者

未入虎穴先示魔宮震動山岳終乃小蟲聽法兮禮背懺悔兮名通性海
自今波浪闊一條紅線繫飛龍

第十四世龍樹尊者

大樹蔭覆聖師能來心雖自語其聲若雷白月開霧照此巖臺誦四韋陀
兮雄辯善知眾藝兮恢諧筆智度兮眾流既匯現佛性兮福業可摧功存
萬世流甘露從此天人結聖胎

第十五世迦那提婆尊者

昔躍龍門鉢水清灝一鍼投入解路全埽辨體相無相兮法眼圓明受聖
記無記兮月輪光皓赤旛之下盡歸降銀碗盛雪日方杲

第十六世羅睺羅多尊者

解極無我辨誰前後是聖是凡齊入祖殼金水一味兮浮浮佛影溯流直
上兮兩兩相邁杓柄從今把與人築著來時師子吼

第十七世僧伽難提尊者

莊嚴世適心存霞舉天光下垂路何脩阻在井出井兮腹笥便便彼義此
義兮微言楚楚繼祖位兮石窟我心鳴兮才謂可憐去國萬古霜利多師
風吹幾許

第十八世伽邪舍多尊者

紫雲如盞冰鑒何埃童顏百歲決了無猜風鈴鳴兮不住我意寂兮心開
有異氣兮將入是佛子兮歸來大家共奏無生曲明明鐵鋸舞三臺

第十九世鳩摩羅多尊者

應斯嘉運餘有千年荅無者誰開門相延得法眼兮敏捷化愚俗兮纏綿
禍福相倚兮縈結靈寂不關兮翛然斜抱雲和深夜月清音流得到錦川

第二十世闍夜多尊者

感發宿緣智慧淵冲得法眼淨萬彙皆空至羅閱兮揚頓教抑辨慧兮小
大雄發無漏智兮遍行已絕熱惱兮溫風安知千百年來事如今原委到
震東

第二十一世婆修盤頭尊者

清淨無欲一食不臥禮光度師長年打坐久植德兮感毗婆以結壇將得
果兮聞夜多以無作那提有道繼祖證千斤擔子許擔荷

第二十二世摩拏羅尊者

生來尊貴神力自多惡象為害撲之如蛾無礙兮全非今古化鶴兮太絕
網羅隨流認性無憂喜一任春楊拂細波

第二十三世鶴勒那尊者

禱佛金幢持環來只誕雨天華香風四起去淫祀兮義正可馮誦般若兮
鶴眾爰止示無作兮心開見虹貫兮嬰爾慈風遠扇釋焦枯慧日高懸終
不已

第二十四世師子尊者

說無作功始醒大夢雖示虹識其心不動遊罽賓兮慧辨小乘可還珠兮
手開疾貢翩翩別去向南天萬里雲中看威鳳

第二十五世婆舍斯多尊者

神劍協夢明珠在手正說知見推門落臼抵中印兮默論可破隱南天兮
任重敢苟哀哲人之難兮心傷繼先聖之譜兮陽九一縷絲重過千斤始
得今朝師子吼

第二十六世不如蜜多尊者

智慧天至德性實良當為佛事聖道斯張王宮受具兮地震法眼圓淨兮
道光海印從今歸勢至真乘代代繼流芳

第二十七世般若多羅尊者

厥來閭里瓔珞名章與汝同姓弓矢斯張憶往事兮經聲在耳開來許兮
示我周行一棚錦繡付王子聖諦南來辨蕭梁

第二十八世菩提達摩尊者

珠光可辨慧性天從同學信邪化歸道統航海西來梁王引領蘆葦北度
香山繼踵一華開兮翻異見稠林五葉茂兮化神州愚蠢歸去來兮歸去
來慈風浩浩送春雷

第二十九世慧可大師

聲飛伊洛發為名言孔老不足嵩少日暎立雪不獲兮斷臂將心來安兮
消魂皮髓分兮三拜風恙除兮道存誰知鴻業歸華夏心血枯兮是幾番

第三十世僧粲大師

姓字不留法藏可傳風恙何起如其心然內外兮猶帶瓦礫脫灑兮焉滯
蹄筌誰縛兮一言可脫衣授兮道脈永年請看皖伯峰頭月一片清輝白
帝邊

第三十一世道信大師

蘄春發祥聞道齟齬縛脫雙離高提海印脅不至席兮可師骨相稱奇兮
韞瑾天書三降兮不起法眼五傳兮得髓波瀾從此滄冥深辟歷一聲天
下震

第三十二世弘忍大師

松栽雲嶂眉豪如霜脫有聞道焉及遐荒撩起便行兮水遇童女冀一投
宿兮諾惟父行隨乞活命非異非常七相不逮可蒼可黃長廊采壁才書
偈衣鉢南歸日月長

第三十三世慧能大師

經聞客誦偈倩人書贏得一鉢久未寧居偶論風幡危言侃侃得歸南華
宗社渠渠階級不立兮蘭蕙一物不中兮璠璣昌昌兩桂香寰宇漫道冰
枯便不如

第三十四世南岳襄讓和尚

安康瑞應白氣皇皇縣記在躬駿奔什邡磨磚可起禪坐天澤能潤道光
名震天下月淨湖湘每向祝融峰頂望滔滔白浪涌衡陽

第三十五世馬祖道一和尚

一室燕坐徒自苦辛車兮牛兮乃得天真年來不少鹽醬心事何必重陳
牛行虎視象蹋師呻舌過鼻足雙輪南岳嶺頭松自碧祝融萬古峙嶙峋

第三十六世百丈懷海和尚

鼻痛耳聾為定宗旨挂拂豎拂無風浪起撥野狐如空合空接斷際似水
投水作為繩墨以束臧否四海汪洋龍象仰止師王奮迅獸群空百世雄
飛自在是

第三十七世黃檗希運和尚

鐵額隆起晃晃明珠大雄山下親捋虎須表歸宗而抑嬾融批龍顏而召
大夫不道無師狂禪懼己訶噉糟漢叢席無虞蒿支拂打白拈賊浪浪滹
沱接海隅

第三十八世臨濟義玄和尚

蒿支三頓鐵拳兩揮看風顛漢弄陷虎機綱宗七事智決重圍活蕘火葬
於栽松之日辨魔束異於燕京之畿赤肉團絕是非滅卻瞎驢正法眼四
方八面看全威

第三十九世興化存獎和尚

毒中先師冤伸老覺酬君王之寶價辨文德之玉璞珠擦紫羅帳庭翔丹
山驚勘同參眼卓朔趁克賓誰顛撲雲居多載未消疑一喝猶能撼五岳

第四十世南院慧顥和尚

岳降河北道化汝南張大臨濟赤肉團邊不合落草繼武興化紫羅帳裏
何用高談作家不啐啄達者誰再三截來兔角千鈞重且道如今誰荷擔

第四十一世風穴延沼和尚

識憂似續理辨離微箭穿楊葉鵬落秋暉一切方埽卻狀似鐵牛機立不立非不非當年孤峻誰人並惟有郢陽春色肥

第四十二世首山省念和尚

放下平穩動容自豪新婦騎驢拙郎調高龍袖拂開全收草賊象王回顧可釣巨鰲寂子來時呈面目誰云近日乏題糕

第四十三世汾陽善昭和尚

身命放下敏捷有幾濟道大成光華煒煒根性或殊不遺葑菲金錫光搖六人奉重雪曲玉振十智詞偉一粒粳米而喫者無喜無嗔半陌紙錢而送出閒神野鬼稽首真師起太原至今河岳浮春暉

第四十四世石霜楚圓和尚

崖柴長笑龍象蹴行河洛價重湖湘掩荊服唐明之辨訛神鼎之驚芝泉為之伯仲楊李而作弟兄貶諸方之邪謬汗書記之聲名足下兒孫分兩路潯沱月色倍常明

第四十五世楊岐方會和尚

兒孫遍地監寺休限魔佛盈衢努力擇揀斃殺死蛇頭揭開正法眼三腳驢慣蹋人四料揀暗修棧栗棘金圈擦下來衲僧近日誰擔板

第四十六世白雲守端和尚

誦茶陵偈看笑裏刀一籌不及多嘴徒勞當其聲駭廬阜後世可則自餘色斥功甫今日尤豪接得東山揮白汗摩尼珠上動金豪

第四十七世五祖法演和尚

不拜屎字便辭錦里會盡古今一則難擬謁彼遠公探吾宗旨中書堂何所以下載清風而已矣扶宗忤逆雷為人推落水褰衣旋磨唱巴歌琉璃禪子何為耳

第四十八世昭覺克勤和尚

一場熱病稍間即歸一聲雞唱不覺神飛血濺梵天總之死中得活眉間
挂劍原來竭世樞機碧巖集翻為落草小艷詩終備玄微天子非常賜顏
色至今錦里雨華肥

第四十九世虎丘紹隆和尚

想酢生液終非涼腑去而之他飽餐法乳露胸於湛堂之前南蠻呼死心
之祖開聖和州誠行誠伍章教平江循規循矩布慈雲澍甘雨是謂東山
之嫡骨孫圓悟之瞋睡虎

第五十世天童曇華和尚

大洪染指未暢身心既炙昭覺章教可尋法語來妙喜之偈正宗歸太白
之岑駕鐵船浮山頭白浪剔慧鐙朗室裏青陰佛魔埽朝野欽萬里風生
太古音

第五十一世天童咸傑和尚

匡廬迢遙來入鄭舍明果菴頭萬事放下破沙盆玲瓏瓏末後句蕭蕭
灑灑三十年看迷時悟時的二千歲笑縣羊賣狗者龍顏屢顧奕語少假
骨蕚中峰光搖四野雕戈可罷狼煙平萬里真風如可把

第五十二世臥龍祖先和尚

緣老拳下初動干戈一公室中漢語何多方丈裏有客可謂奔流度刃頂
門上擢瞎可謂明逾玉珂摩尼隨色春日溫和赤手提來三尺劍銛鋒誰
道更須磨

第五十三世徑山師範和尚

成都老堯首放舌光佛照索劍拓出青霜肚饑要飯喫此語何琅琅胡獠
不用捉如水自湯湯神人偉衣冠把茆奉師旁樵衣頒大內法鼓震朝堂
萬年正續蕚金骨圓照塔頭正流芳

第五十四世仰山祖欽和尚

鐵櫬易摧天日少假向上之談固疾難瀉百鍊鑪中出來直是新鮮一株
柏上開眸淚盈如把龍興初試刀大仰固宗社千椎鐘發送凌霄一莖草
苦琉璃瓦

第五十五世高峰原妙和尚

密印故家淨慈危坐狗舐油鐺無字咬破忽然推落枕头遠客還故鄉不
覺畫出貓兒階蟲何敢過佛來祖來劈面便唾鏡水湖山任往還眉豪觸
碎須彌座

第五十六世中峰明本和尚

開公復來錢塘水綠梵唄未忘忽閱鐙錄生以不生心心致疑流復泉流
恍然別曲但度竹篋子此言何太毒風行草偃師蹋象蹴二虎之下不容
蹄兩刃之間不容足大元帝奉為國師十四葉而許慧續

第五十七世千岳元長和尚

誕膺蕭山鞠於嫂氏脫白父行母敢或否習學靈芝念佛是課不作醯雞
鵲聲得旨鼠食貓飯兮失卻鉢盂披襟待旦兮質師無詭眉毛留得挂珊
瑚道風凜凜何終始

第五十八世萬峰時蔚和尚

光射樂清儒釋並暉見僧轍喜昇公是歸虎跑三不是達蓬半年非止巖
無見許住山兮陷[餐-食+井]伏龍圓相復叉手兮破圍鄧蔚山頭秋夜
月年年常向太湖飛

第五十九世寶藏普持和尚

窟中師子威肅萬里繼席聖恩天人之軌喝起滹沱匝匝之波卷舒光福
堂堂之旨爺口親宣鐙焰發蕊一十一傳至嵩山洪波浩浩巴江裏

第六十世東明慧岳和尚

丹陽故家問道雲間染指松公法印未安果林老子鍼芥相歡及見持祖
大海波瀾心智不是兮兩絕朝昏發憤兮忘餐一拳打破天機渫手握靈
蛇佛魔寒

第六十一世海舟永慈和尚

成都余氏師所寄焉大隨故家獨照月捐菴於岷嶺一坐八年見太初兮
發藥謁無際兮深研出峽參學幾盡霜雪於諸老重登古道三掌面門於
關前寄金縷與法眼偈續正傳以振東山翼善寺中雙塔在金陵從此月
初圓

第六十二世寶峰智瑄和尚

吳江生范氏梓業亦何巧一朝建壽藏斧斤斫膚撓索醢聞責詞謝過求
鏟草執爨常負棘兮起疑燎眉以豁然兮得道殺活拈來總現成天下叢
林鬧浩浩

第六十三世天奇本瑞和尚

行商潁州偶馱世相徒步荊門當仁不讓能公舌頭有毒保寧誰字返障
婆子喚豬兮哪哪全老作偈兮上上一朝識得東山機三尺莫邪勘龍象

第六十四世無聞明聰和尚

病僧告宿掌上明珠來歸宗社精進學途深究惟識此理何如了物非物
兮忘念於心無心兮智符華山高突太行聳報爾叢林休塗糊

第六十五世月心德寶和尚

不重武弁緇衣是宜頭目可舍智道焉知隨禮能公得事僧儀走關嶺兮
得體訪大覺兮繁詞一朝掩口兮止止兩地歸宗兮隨隨幾番紅了幾番
黑拾得梨華第一枝

第六十六世龍池正傳和尚

父母未生聞之愈傷鐙華燁暴毛孔舒光始知古人示有多方北走燕京
兮求為印可直通所得兮萬象回翔臨行一笠都盍覆魔子爭教亂度量

第六十七世天童圓悟和尚

踢倒銅棺頂捉得玉麒麟一段傷心事將舉似何人首倡金粟走殺衲僧
攜歸太白一洗煙塵如今四海清如鏡萬紫千紅總是春

第六十八世浮石通賢和尚

當湖如鏡生此至人有出世志無金紫心禮雲棲而納戒走雲門以問津
逢金粟兮示南熏之旨極真切兮得西來之春接得長松克家子衣鉢繩
繩付子孫

第六十九世山暉完璧和尚

夢彼明月侯氏掌珠剃染寶峰身放當湖知師資有據真法印合符道重
荊楚室中之子惟慧既拙名冠吳越江左之席惟師中孚繼川勤之獨步
大演祖之規模不識當年趙相國重來亂世胡為乎

僑陳如尊者

鹿苑得解雞園悟音十方國土誰淺誰深寂寂僧堂燕坐明明百草橫身
玉樓月上如雪金磬晴敲絕塵總之血盡啼無盡誰是人間八百春

千歲寶掌和尚

降神中印威烈建卯生來握拳七歲展又歌動百神泣世住千齡少魏晉
來華夏建業尋僧肇洗鉢青猿下奉書白犬侶臨行囑慧雲不拒浮長老
鐵骨環黃金秦望薶清灝有唐顯慶年吾師歸去了

寶誌公和尚

皖山之上石頭之下剪刀鐵鏡隨身蕭灑十二面觀音僧繇莫能寫拈香
與擇火此語何為者京都鄴都境上看一燭梁園寒照野

天台智者大師

金地召手石頭點首靜夜思量信為益友是真精進此意誰有獲旋陀羅
兮錯綜開皇降書兮德厚夢協良宵國清實偶法身無為語自真莫教五
湖笑破口

寒山大師

貌古形枯象行師視費卻國清鹽醬撈得鍋底查滓叫蒼蒼兮大乘指賊
賊兮遂祕春來秋去天台山若問吾師祇者是

拾得大師

放下芭芲幾聲冷笑叉手卓立一色難尙那事如何相頭買帽杖批伽藍
寺主夢告豐干饒舌閻丘又到好好年年霜月常皎皎

明州布袋和尚

終日笑面底事如何一箇布袋就地拖街頭等箇人鐵鷄過新羅不惜為
君解依然自憊懣天上天下無位次嵩山寺裏靜打坐

佛圖澄禪師

遠自西國來石趙畏如神腋下師有竅夜望如鐙明禍福既不爽遊戲走
宸庭如今面目儼然在莫看眉豪帶雪深

東林惠遠禪師

遙憶香鑪峰華雨潤幾重長揖雁門雪深栽白社松水春六時之蓮葉聲
傳半夜之疏鐘開東方淨土之始祖樹西國銀臺之神工靈運有才不得
入淵明無意卻相從

永嘉真覺禪師

一宿曹谿返太速南方不是安身處回來那怕語聲高伎死禪和休亂卜

南山宣律大師

集毗尼藏敘賓主詞張南山之法網修西國之真規心淨則白月高也道
重則緇衣何之四方招提同日月三千衲子作威儀

圭峰宗密禪師

理極玄奧事通本始如來法藏非師則己禪源諸詮圓頓得旨豈比夫空
守癡禪之默并執乎尋文狂慧之否朗然一月縣中天四海蕩平無魔子

唐一行禪師

鉅鹿美人誰癡誰黠有老成風得普寂拔徵士盧鴻怪其穎脫陰陽讖書
尤得深察中官稽首玄宗降輅社稷終吉新豐奏札聲鐘告寂山谷壘斫
師今何歸二九十八

康居尊者

至人風度來灑甘露杜順仰師則天欽慕號金師子皇情眷注梵侶所馮
朝貴相聚華巖法界惟師蜜布更有一般清趣在舉著令人生怕怖

國一欽禪師

逢徑則止臨安高岡威儀挺特道感君王龍王施地魔梵歸降馬師馳書
一點何妨清風來何極萬古露堂堂

青原思禪師

聖論不為己露囊錐落何階級誰痛誰悲青原山黯黯澹澹曹谿路參參
差差與鋤斧子鈍置者廝猶帶瓦礫疑殺阿誰廬陵米價傳千古只是時
人總不知

三藏玄奘法師

天中劇談良駒出廐揚鑣帝城道重中葺誓往天竺詣闕直首既至燉煌
淹留高昌郵驛諸國登陟渺茫雪山千仞鐵門遐荒[歹*堯]伽委命化
賊感商五天咸服六合清涼法藏來洛盛業皇皇溫敕幾降車駕翱翔四
生仰賴九有蒙光為法忘軀鴻業在恩波洋溢滿大唐

南泉普願禪師

池易秋色萬古充塞指牡丹兮大夫莫測道平常兮東院點肋豎起鎌刀
兮草賊斬卻貓兒兮濺血隨分納些些橫身臥荊棘十八便解作活計狸
奴白殺識不得

趙州從諗禪師

孟冬嚴寒言端語端廓然蕩豁會者猶難悔悔竊乘偷騎止止暗騙明謾
對大王無力下榻勘婆子有毒誰餐稽首燕然真古佛衲僧千古仰波瀾

巖頭巖禪師

跨門便喝箭鋒新筈抬捺商量將鹽止渴密啟其意兮就中毒深尋常不同兮長天一鶚手裏蘭橈全彰縱奪莫莫是謂之彌天之惡

雪峰存禪師

證道鰲山肉癩皮頑有時如桶底脫有時似春色闌望州亭烏石嶺不錯僧堂前末後句何關大地撮來如粟粒珊瑚枕上淚痕斑

雪竇顯禪師

智門既得四明浪汭道大德備終古不息細細扣諸方玄機孰可測莫待曉風吹桃華生紅色賊賊清風淅淅萬億國

瀕山祐禪師

肋上書字古古怪怪放身倒臥歷歷明明密室商量疑殺後生楚水荊山月皎風清自從拾得火柴後淨餅踢倒誰敢輕

仰山寂禪師

是誰在井可發深省自性宗通師承須秉得地得名奪人奪境劍刃動寒光插鋏秋星耿小釋迦打四藤條記風穴年深月遠九十七箇應自知天邊月色寒照影

洞山介禪師

無眼耳鼻舌打刀須是賓州鐵待有伴即來填井還他擔來雪無情不思議過水便喫跌橫抽寶劍接人天五位君臣天下則

曹山寂禪師

好箇三種墮端的四禁語覷井覷驢何彼何此咬住咬破誰生誰死好顛酒孝滿已若問而今是阿誰石頭土塊與瓦子

雲門偃禪師

推門拶卻腳何曾失便宜黃面湊子鈍置多時一字關如繫辭棒釋迦似
小兒胡餅有汁屎橛無疑對一說倒一說靈樹之碑字無畫

法眼益禪師

在長慶兮得休且休過地藏兮看樓打樓最親切兮石頭指頭折子方兮
鐵矛兜矛指凳子頌唯心聲優理優答慧超感李王橋流水流如今冷落
清涼寺阿誰嘗過度人舟

大慧杲禪師

參湛堂禪發杜撰機訪無盡於荆南筆尖上得銘詞見川勤於天寧熏風
裏入無為斥默照握竹篋大根大器萬世師

永明壽禪師

總角之歲冠不茹葷七行俱下持此蓮經群羊跪聽般若緣深文穆憫師
許以為僧入定鳥如尺鷃巢衣襪之不驚門前湖水日照明生宗鏡千門
通一路如何更去外頭尋

達觀紫柏大師

處澆漓世扇象季風開人天徑降毒海龍宏法雖離難如處三禪宮草木
都來感師德年年杲日縣太空

憨山清大師

叢林師表賢首嘉胤講論之餘即入禪定惟道是責誰管逆順注述汗牛
衝棟名高帝王加敬砥柱狂瀾總謂之光吞海印

蓮池宏大師

栽烈火紅蓮挂苦海風蓬經綸法藏於指掌著作文章於大同主淨業以
望重持木叉而高風十聲佛號歸安養七筆勾銷事事融

雪嶠信禪師

古雲門三字了得主人公無隔宿語有刺人鋒塗毒鼓器盡英雄喫柸茶
脫去從容天王欲詔何由得卯塔春雲鎖碧空

破山明禪師

雲門牢籠不住惡聲四海遠布眉橫秋月胸藏武庫扣金粟兮灑甘雨臥
高梁兮捉白兔剔錦江不夜之鐙栽大地無根之樹栽荊棘之刺芒蕩狼
煙之狂霧烏乎惟師之德與日月而彌固

天童悟老人

濟北鎖鑰楊岐木鐸師表萬世人天開鑿萬里南來道樹天末醉祖堂中
展挂時天龍八部皆依泊(嵩山監院請)
髮白千莖眼空十方坐斷五湖把定三江玄要旨訣烏用鋪張不肖孫慧
紹繼末光清暉皓皓在此南堂(雞山大眾請)

浮石老人

吳江古寺繞湖波倒駕鐵航髮已皤獨許長松一片月萬年光照九霄多
(堅長老請)
有驚人句無隔宿語一味骨硬誰肯遜理起臨濟宗得太白髓被山暉老
人挽住咽喉依然落在他手掌裏如今挖窖深薶始得天龍歡喜(文遠侍
者請)
橫抽寶劍跡遯草賊洗清乾坤光暉日月價重江淮令行吳越萬里雲南
為航為筏畢鉢窟前放過一著(雞山大眾請)

山暉老人

老師在黔南小子侍於左不聞有一字相逢只懽懽今日在吳越為人重
打鎖高沙信息通一紙遙示我堅長老可會麼是吾之師汝之祖只要汝
識得則箇(堅長老請)
者箇老阿師黔南不得住一身向吳江省觀盡生怖雙塔閑明月楊州題
柳樹福海集人天不肖未親附今日書此贊家私盡露布(嵩山監院請)
老和尚入異類非三頭尚六臂釋迦彌勒是他奴人天眾前無所諱力斥
德山口訶臨濟謂是天童之真孫實乃報恩之嫡裔你道是何人直年候
太歲(不易長老請)
袖裏著金椎掌上輪北斗無刹不見身問爾知得不道振五湖德被萬有
燕額虎須驢腳佛手海印三昧天長地久汝焚兜樓故我稽首(雞山大眾

請)

印文禪師

眉豪如雪臘高德重久遯山林嬾隨海眾有規有則非靜非動即佛即心
是幻是夢印水復印泥以上皆實供末後一段光倩誰相鼓弄非余強措
詞贊此丹山鳳

石鐘耆宿普足字德周八十三徒廣(叡智)請贊

雞山開土維此德周髫年剃染二十南遊走遍吳越築著指頭理媿無言
默契有由詩高齊己學越貫休四十年石鐘住持八十歲雞足寡儔鶴慶
名儒高氏之遠裔迦葉的派祖山之前修

雜偈

示徹元張居士

道無兩塗事非一向孰聖孰凡何順何障月印幽潭雲生東山可明可暗
把火自看

示徹龐黃道婆

知是插釵何貴掩門拋簪起舞芝茁蘭蓀佛理祖禪不別是說照世一珠
惟此明月

示徹淵劉居士

聽此瓦礫理事無礙秋江月明誰成誰壞得大乘宗是非一如酒樓肉案
道在屠沽

示徹海梅居士

示汝五性有斯妙旨鳥語松聲充塞其耳得是返聞同歸一心一心之要
非淺非深

示宗冰李居士

少室無禪毘邪無說打鎖敲枷解粘去縛道曰強名修證亦非大塊若粒
何處著錐

示徹海劉居士

欲透樊籠請益禪學垂足示之煙水漠漠蹋上晴峰其見邈然勤而行之
汝勿忽焉

示徹雪廖居士

春草池塘[竺-二+埤]田農畝啾啾莎雞轉面芻狗松間夢鶴野外雲津
同是秋月皎皎無塵

示宗旨楊居士

苟無取舍非道而何智者通局癡子守柯以此論心不失其旨煩惱真如
不二而巳

示徹達王居士

心在尋常其理甚顯井蛇齧鼠此喻莫緩論心論性胡尾胡頭得是真精
可以隨流

示徹義黃居士

涉塵沙劫耀空之電絕理事機驅暑之扇嗟爾春禽關關竹閒我觀佛理
非有兩端

示徹旨王居士

知我彈指乃得厥旨透祖師關覆掌而巳危險之訶發自鳥窠不立賓主
智是仙陀

示徹玄李居士

一心不生萬法無咎我觀智人本非先後坐無畏床鼓此宮商擗下拂子
是賊是賊

示徹教李居士

佛無虛語教有明言治生產業入理之原是法非法一一奚守如彼太虛
為誰點首

示虛碧李居士

戀此桑田沙黏壁畫可易可難終歸一壞手舉須彌輕若鴻毛眾生及佛
在此一豪

示宗真李善人

以指示人指端有旨轉為指物障翳先起看彼輝光莫過俞龐更有一人
鄭十三孃

口占

蒙七與多辰青帘縣酒家道傍何帝碣大半入泥沙

寄雞足良因禪人

葉鏡湖中月葡萄江上山無花果自熟此意好生看

示葉榆道邕行者

玉案千峰裏松花可食無羅浮秋有月纖纖上白榆

辛亥春見好事者作僧史信意喜怒略無公心不覺浩歎因覽升
菴公集載西遊雜述云虎穴猶能入猿梯亦可臨把關貓子面開店主
人心濡墨乃感和二首

佛魔相出入坦路不登臨可歎如來後翻為取舍心
又

喜怒馮出入顛倒亦登臨弘法真有意當秉祖佛心

碧雲寺

山深多白雲地僻無人過日上三竿竹階除麋鹿多

賦得白鷺鷥

自是瑤池物別群南徼中三步一顧影何時歸板桐

九月桃花勝放

殷勤在二月不聞拂秋霜自是今年別溪頭兩度芳

青平

入望青平噪早鴉斷橋流水野人家駐看遠墅晴嵐裏幾樹茶花亂曉霞

祿脰

水繞西南鄣闡居育王遺跡久荒墟龍山有店曾留宿暮汲螳川煮野蔬
雲封草舖舊曾遊此日重來野樹幽故老不知何處去空遺瓦灶冷煙浮

白邑村

水曲山彎白邑村臺荒樹古暮煙昏停車一問桃花店痛殺絲蘿挂石門

鴉關

負去擔來萬仞山雲中一鶴自東還南方十月無霜雪不待雞啼早過關

獅口

萬谷虬松一色斑山重水也水重山獅村人盡荒基在留得殘碑臥草閒

楊老

重看楊老石何奇遠樹環煙接水湄望斷荒村浮暮色山山紅葉帶霜枝

懷古

星宿河邊楊子詩墨花猶作舊時疑誰知此日碑橫草字食苔花更可思

淨蓮菴

秋終又過淨蓮菴茶煮流泉在石龕隔嶺漁樵喧去路雙雙野鶴下煙嵐

響水

徼外雄關響水西山巖如筍插蠻谿烏啼蘭谷秋天晚野店重來寄杖藜

碧山茶花

賤地山茶映雪開清芬款款過溪來如何此種藏深壑不到名園鬥碧梅

雙門

平明拄杖上雙門西望晴川八九村犬吠遙聞霞谷裏林春雲子落松根

趙普關

日午停驂趙普關猶愁嶺下鐵衣還當年不取封侯印未必南征過此山

早發廣通

雞啼荒落瘴煙明又促征夫未曉行林外紛紛黃葉落秋山黯澹一峰晴

望鹿城

日夕泉流石澗旁漁蓑數點近波光迢迢野逕通城郭戶戶炊煙曳練長

石人

借問何年來此地風塵未息爾曾知南宮不過休相望莫厭緇衣頻寄詞

仙人骨

雲峰堆裏深藏骨能使清名遍五湖一任人間有此病不教扁鵲又糝糊

石鼓城

一到城邊秣馬堆草橋流水自北回淵淵清越無人在自古名成骨已灰

白雲寺

白雲山寺逼青霄一上峰頭破寂寥野鶴無心天地外秋風十里動松濤

沙橋

野草荒煙古碣斑我來松下寺僧還共枕沙橋悲夜月明朝又去小孤山

煉象

不到象崖已十秋山光猶接舊時眸
枯腸搜盡無佳句幾負煙中碧水流

武英關

曳杖秋來到武關愁雲漠漠繞空山
上林殺氣連峰起獨有緇衣似等閒

緣蘿泉

獨在梁州住十年重過弄棟煮甘泉
一杯誦罷揚雄賦笑入江城落日邊

望蒼山

姚雲分處看杉松一葉西垂一葉東
莫使連天一樣碧依然雪月又相同

小雲南

雲染胭脂填水要一棚清趣也堪描
山名波浪橋名五木狗而今夜不哮

弔楊聞谷居士

自釀老春西洱水閒攜獨醉點蒼雲
如今漸化邛山骨不識梁州誰憶君

郭居士

年來愛住尖頭屋數盡池花三兩曲
若是黃頭碧眼胡愁腸慢寫寄金粟

贈道者

一色霜風透骨寒疏燈在壁冷誰看
林間不是修山主肯向藜床話夜闌

望九頂

不盡谿山遶碧岑嵐煙望去邏茨深
峒嶢樓閣層雲外似聽疏鐘送曉音

晚過賓陽張州牧別業

湖山倒影日西斜對坐波光論井蛇借問古人誰得似輞川風度屬君家

金牛山經煉洞贈白雲居主僧

負杖金牛薄暮天青霞蹋碎草鞋前遙看煉洞千峰裏百里松陰落鴈邊

拈華寺贈德解

破雪遙過百接橋擔瓢不負白雲招山房說盡平生事坐對殘紅又一朝
十載昆明老杜多釣竿擣盡冷漁簑今朝得到拈華寺煮雪分題詠綠蘿

夜雪

邊雪飄飄下夜郎山窗茶罷恨偏長茆房不斷三更火杳杳鐘聲到客床

蘆花澗望靈峰

雪積蘆花未見消更無客過洗心橋靈峰惟有啼猿在常叫三聲下碧霄

雞山八景

天柱佛光

萬尺峰邊絡綵霞休云石穴隱靈蛇名山自是真人地瑞氣終歸佛子家

華首晴雷

重登畢鉢聽晴雷每見羅川晝晦開百尺飛濤天際落寒聲不盡隔黃梅

蒼山積雪

望去蒼蒼積水隈華銀半是白崔嵬應知塵俗終難到獨許幽人蹋碧苔

洱海回嵐

葉榆一水繞羅峰雨霽還看翠色重莫道晴霞看不足又隨夕照過芙蓉

塔院秋月

名標尊勝此雲峰勢逼南天雪嶺雄夜靜回眸霜雪裏清光凝是水晶宮

萬壑松濤

山風翦翦瘴煙晴碧樹重重午夜清若是書成休寄鶴恐伊唳作斷腸聲

瀑布穿雲

練拖一幅下天河日照雲邊雪更多寄語匡廬休獨步青蓮曾此下絲蘿

重崖返照

木葉遙遙帶夕暉胭脂紅起映巖扉尋常倚杖雲邊立亦有松聲落翠微

華首門

苔封石戶幾時開彈指也曾出定來可愛蒼巖臨萬壑一聲啼鳥下崔嵬

示非緣尚善人

梁城三月雨初晴處處蹋青過柳營可笑遊人渾不省依然杯酒醉沙汀

示宗理鄭善人

時節催人可懼哉桃花又向圃中開婆婆若解靈雲意歸去何妨樂茗杯

許使君見過不遇即原韻答之(附原詩公諱糾)

麻衣帶曉青山去不鎖柴扉廠白雲薄莫歸來詩字在文光冷冷射微曛
水空山淨連紅葉磬冷鐘鳴斷白雲野竹老人何處去別峰相見隔斜
曛。

寄松語

寄語山林道者流生柴品字煮清流有時忽地翻茶銚始笑從前苦話頭

壽玉章饒居士

庭中柏子霜前色洞口桃花劫外香此日管弦人盡樂三千珠履醉霞觴

代天童化主巨唯兄化米

昨日天童書信過雲廚要米飽禪和嵩山無力輸千石敢告檀那意若何

己酉冬觀王出獵王宗語居士索書

鼓角樓頭未曉催吾王牙帳在崔嵬千旂共喜隨雲轉萬騎同歡帶獵回

過關嶺

山頭款款白雲飛一片氤氳上衲衣本自無心隨去住如何也伴老僧歸

冬日示守真宋居士

心隨萬境境誰真心境無依是道人莫守無為行有路時時始得與心親

示三學

萬指叢中看不足只須直下絕三學忽焉打破圓圖的始信溪深長柄杓

示宗語王居士

萬竅怒號誰為口百非坐斷亦莫守塊然無證亦無違法法頭頭信我有

寄張邑侯耕煙老居士(諱方起)

夾道多開七里香苑中也勝百花王他人爭看公休晚又恐朱明到草堂

贈密化

雪霽林東好采樵寒猿曝日向山腰閒居野趣惟君得弄盡松筠月下簫

贈嵐波

看盡山松與谷蘭歸來無事倚闌干有時月下清機發卻把無弦曲調彈

答獅子林怡宇

深慚老去住昆明十載難逃世上名猶恨生平無定力又移竹杖過江城

贈大智菴覺仁

覺空空處可無塵若論到頭未是真只是家私都罄盡惟餘明月可堪鄰

偶成

散步長廊月自來孤光一片遠林開天花未必霜花落寒色清人滿綠苔
乘閒拂紙寫詩篇寫盡溪山不計年寄語故人今夜裏韻成仍寄白雲邊

寄酬雞山石鐘嵐波

勞君六月苦行役白紙書情寄葉榆把出有時須自看其閒一字也曾無

贈本寂副寺

當年寶壽賣生薑贏得芳名萬古揚此日石鐘本副寺眉毛罅裏更成霜

贈嵐波首座

道者名傳世已久石鐘得意亦非偶袈裟石外白雲消遙見嵐波西洱後

贈松波堂主

山南晴去聽松波散入高天韻自和自是清音人不識馮他狼藉遍煙蘿

贈蒼波首座

金山初日照蒼波綠樹輕陰舞翠多始信易春真有腳千回煖氣高嵯峨

贈良因監院

良公有意輔叢林海會芳名又見今獨有石鐘翻舊案無勞撾鼓逼同心

春日同友登大士閣似一心

自到山城雪未休如今始見日初浮春光從此開河嶽茗碗茶花得自由

答寂光寺深修

拍板逢場便唱來諸人只要眼雙開眉閒若有些兒礙依舊從前被他薶

答御凡

寄語山林書一行松蘿深處得疏狂欲知樹倒藤枯句只問前村李二郎

題白雲居天池(即高捷曾先生隱處)

亂山深處白雲居古木蕭森綠滿除庭下有池清如鏡跏趺盤石數遊魚

寄松波主人

見說雞山道意隆故將心事寄清風月來峰上如相望秋老方能過癩融

答雞山大眾

薄福年來祇自迂何當祖席識相符諸公不厭巴人曲可待西來弄鷓鴣

送大旭

金地遙招欲起余碧雞三宿便回車他年不負祖庭約從此無勞再寄書

示宗本葛善人

蒼山積雪覆千嶂黑水吹波繞萬松祖意西來都漏渫如何別有好家風

示童子

明敏都來夙有由讓梨揖酒爾還優嵩山更授靈童意一句明明六不收

示雲蹤雷居士

看看桃花暖氣和龍門巨浪蹴天河乘時好躍隳三級莫待春雷燒尾過

示趙善人

三翻四覆上嵩山欲透油糝上上關若是蹋翻階下石回頭月在白雲閒

示知幻善人

晴天遠望春蒼蒼鳥逐飛煙下夕易識得東兮即是北不須別處論行藏

訊圓通貫一禪師病

螺峰春色漏天東又向千巖看病翁曾憶圓通生藥舖貓頭合劑效如風

春日答楚雄許別駕

正是林間報歲除梅花已放到山墟曉來又得易春信署裏定知景物書

示宗鏡刁居士(即本甸土舍)

者樂長官亦好道嵩山老衲也通方拳頭豎起無他事不是愁人也斷腸

贈存之張居士

覺照寺前張道者時時在定倚窗櫺總來得到毘邪默何用高談了義經

寄蒼舌道者

九年少室甘磨折一日逍遙入萬松月皎星稀鶴夢冷不知身在白雲峰

送蒼舌知客吳門代省

裝束衣囊去夜郎身輕萬里到平江閒時若上生公石海湧峰頭月照窗
哀牢南下望長沙買棹隨流趁曉霞若到閩闔城上日趨庭方喜飽胡麻

贈宗鏡羅太極居士

十載雲南竟不違喝來棒去絕離微從今付箇青州襖省佚軒前春自肥

寄雲夢法孫

昆水東流草木春從[阿-可+虫]北接夜郎雲山山水水如何取大抵先
須絕見聞

尋玄鑑遺蹟示釗侍者

鴨池城下海波流玄鑑遺蹤可在不四百年來彈指頃高風此日孰堪儔

贈昌侍者

嵩寺老人白髮垂長松家法有程期歸來不負平生志折腳鐺兒要汝支

送戴綸之還句容

走遍梁山始買舫歸帆北發正秋高洞庭行過五千里得到金陵可解弢

中秋對月分韻得花字

秋色平分望海涯時聞林外雨催花夜深梧茗情難盡又到閒房笑績麻

與蹇文山居士

要論諸方五味禪不如歸去且高眠一方明月如秋水文山文山可了然

贈江陵鱗長馮居士

鶴下龍洲碧草竿漁歌虎渡綠楊煙江陵境物君猶記者事如何未悄然

辛亥六月大水紀事

蹴天風浪駭飛鴉捲盡田廬作海涯即有舟航無路去銀河誰肯借仙楂

贈宗孝閣居士

孝關東人藩下擺牙喇也割股救母母終不痊當母喪時又然身燈
六十八盞供佛以資冥福故表而出之。
我聞古老孝無遠刻木鑿冰近日稀昨日梁城聞細柳始知戲彩屬征衣

薦董護法鐘翁(翁宦遊終於平陽)

白髮垂垂六十霜黃堂幾度動柔腸如今蹋著來時路回首西川日月長

弔沈總戎(諱應時)

平生俠氣慣沙場履雪眠霜誰得失夜來撒手得回光滾滾紅輪偏界赤

薦胡門姚氏

昨夜回光息萬端馮他性海起波瀾陶然信步東風裏翠竹黃花一任看

中秋謾興

敲石烹泉獨酌時清虛一色冷山墀寒砧搗碎谿頭月處處霜花結桂枝

把盞問月

華茶烹熟酌玻璃此夜開懷一問之前日雨中何處去倪裳不見舞東維

喬松棲鶴

澗上穿雲不問年雪衣舊好冷巢邊春秋雖邁情何極一任陰晴得自眠

思親

萬里悲風起暮秋一身多病臥梁州深慚興化當時事此日徒懷蕭寺頭

苦雨

寒蟬幾樹冷淒清不見峰頭半刻明借問銀蟬何日至為人一掃海天晴

蟬鳴樹底

景物催人雪滿頭又聽葉下報高秋誰知故國多年恨不在成都錦水流

疏竹吟風

疏疏綠葉覆龍孫一樣吟風在故園何用梅花開笛裏江城聽得便消魂

聽上方梵唄

宮商向曉落原野又見隨風來上下借問同人知不知青天白日何為者

池成月自來

鑿出盈盈十尺水波沈細看月初生誰知此夜寒鉤淨印破池心一片明

雁行

字寫秋空一兩行飛飛南下到衡陽如能肯帶平安信為余問訊白雲岡

玉梅

糝盡一谿傲雪骨奇香不為熱腸開祇應寄訊羅浮月仙胎已放碧巖隈

壁上梅花

數點紅霞映壁來清香一為主人開莫言已奪天工巧信是廣陵折得來

看菊

無人送酒到僧寮白石籬邊一醉陶看罷夕易新月出乘驢又上石谿橋

步月

微雲望去澹晴空閒步松庭韻不窮遙憶故人俱在北未知何日到谿東

嵩山晚眺

杖藜晚步到春山十里煙花杳靄閒自是芒鞋行不足歸來已見月珊珊

聽琴

玉几冰絃指上挑高秋夜靜落松濤更勞彈罷關山曲倦倚窗前月正高

洞庭秋月

倚樓一望楚山孤素練清暉冷碧蘆夜半魚罾歸北浦湖波寂寂冷秋菰

昆明八景

昆池夜月

霜鴻欲下夕易低送盡樵歌上柳堤若泛清波須載酒孤光一片在城西

商山樵唱

風清款款響晴坡竹樹參差隔薜蘿只待夕易催去後煙霞十里鎖巖阿

金馬朝暉

華峰一帶是漣沔汗血當年躍此池留得朝暉看不盡至今猶說子淵碑

碧雞秋色

雨洗煙巒聳郭西飄飄黃葉落漁谿此時共看疏林晚一色秋光映柳堤

雲津夜市

茆舍津頭夜火遙年年北客醉春宵燒鵝卻是南中物說與北人好駐鑣

官渡漁燈

江城郭外木郎村曲曲蘆彎爭渡喧雞鷺看人情已熟尋常相逐釣舟翻

螺峰疊翠

小小幽岑看益奇誰攜春酒醉相知我來石上頻相望楊子曾經舊有詩

龍池躍金

浪浪如銀滾石門春來每見錦鱗翻也知爾是乘潮物何不天飛苦自冤

洞庭山月

秋高正有湖心月萬頃寒光映碧梧縹緲峰前人未臥不知誰在醉姑蘇

望華山

飯罷池邊步野郊一望雲中白鶴巢借問東風何太緩猶存殘雪在松梢

禮千佛名經示眾

昔問長沙何處去報云詩在黃鶴樓分明底事人難識錯認光明在指頭

雜偈

贈千翁王總戎

都護邊城重牙旂在戰壘鐵衣塞上雄九重嘗賜璽西南既已肅養馬青山裏
簫鼓與民樂英風生萬里

己酉秋送王公北上

清名南徼外治化齊龔黃碑石新磨礧民歌草木香行裝真有日借寇竟
無方誰道百蠻蠹也知循吏良

昔升菴公謫滇而滇之煙瘴險惡公履之自若也余至滇觀其景物絕不相謬王寅主法嵩山問公遺跡有僧乳峰者言公儀表類余余笑曰公誠大儒才學俱高余一陋質何言類邪又言高嶢有祠亦可證也待訪之不果己酉方伯李公去官浙惠公內外全集展閱至續坡翁浮雲妒佳月奇怪世傳坡乃戒公後身今又言余似楊豈升沉之言絕不虛邪遂感而賦之

羊鹿駕險道螳螂當岐路惡蝎駭蜂蠆汎棚軋長輪下門能負山[廿/秭]英儕杖杜長門司馬風偃嶽肇公注浮雲妒佳月忽然省世誤

示化一堅冰二知客兼示夢周

送往迎來事照顧離弦箭好箇走盤珠莫作空裏電言談宜及時母受景風扇入門看賓主登堂著方便一朝大夢破無限奇珍見

奉和耕翁居士嵩山夜話(是夕翁作碑跋)

翦蠟情未已攜壺向東閣紗窗映晴星香泉流夜壑微雲澹澹來白月正寥廓寒色起青嶂水光搖碧落高峰露欲肥喬木夢老鶴更深鐙火殘風霑蘆華薄搓手寫新詩此時興已綽一揮敵萬夫再埽妒佳魄回首夜如何搏桑紅日爍

過楞伽石贈輝然靜主

偶然獨上楞伽石百丈枯藤飛鳥跡遠望高天不見煙到門列坐逃禪客
巉巖迴絕羅三川岌[石*(選-(這-言))]
孤危虛四壁澗曲淒淒白水懸雲飄自是紅塵隔

勉玉林體賢二居士

立身宜看古之白句巧須看古之甫平生真率人皆欽草堂夔州如故土
幾許清韻又相同兩公高名人所取此道坦平皆可行從來自是李與杜

和李玉林杜體賢二公贈從聞大師原韻

結得茆房聚名賢燒豬沽酒仍相牽三生石上歌不足又向前谿蹋春煙
此是無為真自聖亦又隨緣別一天高吟豈作尋常事搔首裴回同輞川

送象翁耿路南

路南使君臺上霜風清畫棟龔與黃又看瑞雉羊城日東過蒼梧去夜郎
萬里相攜惟一鶴百錢挂處是行裝若到南越飽薏苡可將一斗寄上方

贈二嶽昆仲北歸

春夜東山設筵席酒酣作賦紀行役北歸獨有詩畫船暫還隴畝林下奕
今夜且盡杯中酒明日楚關復何有翱翔秦川夢裏山若到咸陽先種柳

悼祁總戎(諱三昇)

訓練之餘喜逃禪羽扇幅巾得自然已似瀾滄波月更勝楊李口中次
肅清南服韋皋績埽蕩妖氛諸葛蠲綠柳淒風來洞壑紅桃血語響春鵑
蕭森若木夜殭立寒瑟邊月徒空縣江上雲峰懷玉斧邊城鐵柱誰為樹
異牟賓服沙磧寒梁益祇今無將主

次護法毅淑楊公見贈原韻

梁園春色來十里多有名賢論至理心清虛無蜚夢閒神遊秋水南冥裏
高人獨處號牧雲口誦清淨久超群自是英豪能如此不是尋常洗垢氛
丹房早晚服大藥無事隨雲騎一鶴紫府僊宮任遨遊蓮社詩壇亦有約

龔北泉劉粹吾轉藏經十二藏歌以贈之

夏夜月生殿閣上經聲落處華雨颺檻外流鶯來啾啾窺簾乳燕兩相向
雲南有客神清奇蕭灑風流難測量不逐浮名惟道親邀人閣中翻龍藏
如來字字無他詞一畫一畫真實相玉軸有時用不著金經一取返魔障
偶然作此詩一篇逸興宛轉歌喉亮此情寄語兩徵君聞之能無消惆悵

廣通

疲馬入荒城登樓喜晚晴霜飄望子洞風急武侯營倦夜宜先臥防邊欲
早更來朝前路遠數聽曉鐘聲

宿鹿城東馮太守(諱甦)

寄宿苴橋北鐘傳野寺東垂楊太史樹遺廟武侯宮月皎谿光白人寒市
火紅欲暝興未盡還聽響山鐘

至日壽何檀越

易回蘭谷暖佳氣結山墀瑞雪堪圖畫流霞可奉卮霜黃園橘淨影赤縣
弧垂此日山林叟題篇贈紫芝

賓川報國寺

行行入古寺亭上樹新碑篆額丹砂在題名翰墨垂鳥飛遊子意詩紀去
公祠勝概如能寫長思杜拾遺

示木邦土舍衍合

木邦荒服外兩耀豈不同黃金呼為衍水椿亦稱虹字畫半丘蚓象乘險
必通來問西來意一掌理可窮

九日

秋老梁山碧攜壺今欲趨隄楊疏尚翠園橘冷還腴洗殘松風勁倚雲洞
壑殊華峰開夕照處處醉茱萸

喜雪可維那月可後堂二子呈偈遂贈

泉石居來久煙霞秋亦深登堂談四相翦燭論三心餅瀉淨因辨河縣覺
範襟素秋當白日入定在嵩岑

和張青崖兄遊古庭值雨過歸化茶房小坐原韻

未至遭風雨古庭時尚秋香消苔畫壁殿冷日鳴鳩小坐烹茶室歸看放
釣舟疏林正落葉野徑轉深幽

次從聞兄遊古庭原韻

無事尋山好孤印訪舊遊谿光生野興雲色含清幽雁陣湖山冷蟬吟草
木秋霽谿今有韻新句在樓頭

中秋贈蒼波嵐波還雞足

結束腰包久歸心落日邊金川翔去鶴劍嶺拂晴煙半壁丹楓外孤雲碧
岫前頭陀蘚石上歸去任高眠

過胡公怡齋

太華開曉霧北去到怡齋入戶聞琴瑟登庭步玉階香醇茶華盛瑞雀石
蘭階滿苑生秋色清言可暢懷

送張旦平居士還里

張子思歸日昆明正晚秋霜鴻辭北陸雪騎別西樓明日夜郎遠歸帆涂
路脩烏傷終必到書信寄來不

昆明道中

筍輿未曉發嵩阿殘月依稀在女蘿赤甲村煙連曙角白眉谿樹入晴坡
幾家茆店雞聲雜百尺板橋野色多溼盡鶉衣華頂露回看昆水冷漁蓑

宿安寧州

十年兩次過安寧一衲天涯歎野萍古蹟荒來迷賈島溫池望去得鳬汀
虎丘遠水流明月蕭寺疏鐘落曉星旅客牢騷爭去路孤城回首霧冥冥

祿豐

一杖隨雲過祿豐城橋有寺鎖龍宮煙嵐北去丹崖遠晚翠東來碧岫通
諸葛遺蹤荒草裏韋皋墨蹟劫灰中愁看義塚碑橫野一水寒流送夕風

旅舍用壁韻

杖底風生得自由行經鳥道雨初收穿林野蔭愁山路過澗晴開見石樓
塞外郵亭遺舊蹟山前客舍俛清流我來倚杖青天上遙望點蒼雪滿頭

早發金蟬寺

月落金蟬別楚雄關山盡入曉煙中樓然戍火燒谿雨閣動疏鐘繞樹風
二水同流搖地軸三星并落收漁筒何人作賦懷仙子墨跡猶傳在寺東

沙橋古寺同從聞大師題壁

把手煙村舊寺遊烹茶又向白雲樓佛龕石墮香狸穴僧榻雲封竹鼠留
斷碣深埋豐草裏雕梁半卸堦垣頭如今寂莫無煙火獨有秋風白杜洲

再過龍華寺

龍華今日又重過為欲尋幽向綠蘿近夜鐘聲迎暮雪臨谿華氣逐樵歌
參差碧樹環煙澹向背青峰映月多寫境無過人境外不須惆悵對明河

洱水贈祁鎮臺

松杉萬樹列蒼巒洱水迢遙下雪灘三寸交梨霜夜赤一拳火棗雪時丹
牙旗令肅將軍帳鳳詔泥封玉帝翰不棄梁城當日事何妨煮茗對嚴寒

洱海城

西來信宿入邊城此夜嚴寒雪未晴石倚丹崖雙鳳舞雲封碧岫一鳩鳴
寒光遠映松千嶂野色從容月半汀磬接感通秣馬地遍遊南徼臥龍營

賓居道中寄督府衛公

浮梁曳練冷谿濱古木搖煙蕩野蘋雪色如銀隨遠近笳聲帶冷動嶙峋
黃柑樹樹三冬熟碧瓦粼粼四野新昨日肩輿來若水孤城又得聽經綸

晚遊賓陽小西湖贈衛使君

孤峰獨立字飛來小坐西湖晚興催好事幽人同感賦無情野客共銜杯
接天塔樣如天竺覆地華陰看雪梅更欲湖山都拾去回頭早媿子瞻才

贈石鐘松波

已著聲名洱水東蒲團靜對畫圖中青山自重荷衣客白社還欽惠遠風
松頂泉聲飛玉液雲間秀色度霜鴻我來共話平生事笑看棲烏雪嶺東

雪霽贈石鐘印文禪師

條條赤石字芙蓉百尺高寒樹石鐘霧霽寒猿方出嘯晴開牧豎遠相從
茶瓜延坐嵩陽客亭榭低徊水檻松無事與公談此夕野裡且架送殘冬

雪霽登天柱峰有感

捫蘿雪霽上高岑一柱摩蒼差可尋華首晴開當曉日袈裟石淨論傳心
天高無際真寥廓地僻長寒送夕陰白媿攜瓢來聖蹟振衣千仞望西林

宿迦葉殿

雪頂寒深繞薜蘿今朝一上晚晴多雲拖石壁生新霽霧鎖飛巖可避戈
夜聽霜鐘天上落松移山月榻邊過此時已與風塵遠何必愁來問覬歌

念佛堂贈近微

白髮堂開雪嶺阿朝朝飯罷入禪那磬鳴鴉鳥生臺立日上寒猿野樹多
水汲靈湫分玉液廚炊雲子割秋禾閒來把琰僧窗上坐看松濤落鳥窠

荅蒼波

得到青山興轉賒高人相踵論拈華東林散步看纖月北院分題詠曉霞
勝事偏能馮野鶴間情獨是在僧家朝朝共坐千崖裏庭際猶宜詠雪華

荅文郁

見說名山第一居清池歲歲長芙蓉斷崖不見孫思邈絕壑還逢支遯廬
石刻既傳韓柳賦僧房尚挂宋元書嶺頭不斷啼猿狖客恨難教得自如

登近雲樓有懷

雪晴一上近雲樓西望平原已盡秋橋鎖金沙黃石磧山開玉壘赤松丘
千巢野鶴棲琪樹十里寒梅綻玉溝粉壁題詩名姓在獨教雨淚付東流

己酉秋巨唯禪師見贈弘覺老人並遠菴和尚語錄詩以致謝

海岳迢遙落葉天移來慧照看雙縣輝光浩浩高蒼月甘雨微微太白禪
直使狼狐迷影跡還教虎兕失巖泉梁州從此開津濟一片和風散楚滇

荅大賢

閒攜竹杖上崔嵬懷抱忻逢此日開雪霽金沙流若水山連鍊洞到層臺
長松萬尺盤根大野鶴千巢古寺隈此地雲深宜放浪何妨密密杖藜來

大覺寺觀姜御史遺跡

驄馬西來隱翠峰題詩滿壁在長松刈茆谿上逢禪客養鶴庭前去毒龍
月煮沙鑊新瀑水飯炊雲子隔宵春如今鐵骨歸何地倚石沈吟念昔容

早過華嚴寺望羅漢壁

日照山門古徑松清晨扶竹覺躑躅坐觀削壁連深壑俛聽高樓遞梵鐘
谿色陰晴寒氣迫瀑聲斷續練光重青苔蹋遍尋歸路又向僧僚展笑容

題傅衣寺松贈虛中

古徑婆娑綠影斜風來日日埽苔華枝橫澗水千年浪葉蔭名山百步沙
青靄時看僧入定蒼芒猶見鶴穿霞虛聲何用留江漢不及頭陀一笑奢

復片雲居

寒盡空山檻可憑
隴梅又見映峻嶒
山中緇服存詩道
雲外高人念祖鐙
落日漁樵辭洞壑
方春猿鳥近禪僧
如何祖印傳今昔
未見芳名繼老能

贈大悲閣清宇

刈草依山築隱居
丹霞作壁石為除
賓川已謝徵僧召
古寺還辭侍御書
漫步輕陰松月滿
閒吟薄莫水雲虛
才名不落天人耳
時傍谿南擷野蔬

贈石鐘德周

一錫南來到石鐘
情同瘦鶴日棲松
閒縫壞衲依暘谷
笑倚清軒看翠峰
不說苦空心自適
時焚柏子客相從
年逾真際休行腳
只傍谿山學老農

同印文看梅

日暖相攜步草萊
臨谿小鳥向人哀
每逢雲外流香遠
卻看山邊細蕊開
散盡輕陰仙露潤
今知貴種月宮來
為貪幽韻情何切
不怕夕陽在綠苔

暇日

居山已謂得翛然
誰料身心返被煎
圃上土雞常啄菜
谿邊水鳥汙新泉
風吹雲壑崖花折
鹿過山坡草色捐
更有一般全沒趣
逢人只見是非牽

晚望赤石崖

奇峰丹壁巧難圖
十里松杉逼鏡湖
薄莫晴霞籠遠岫
扶疏倒影下荒蕪
深林不覺鐘聲暗
水淺還期月色孤
此外紅塵飛不到
徐行始得自瞿瞿

同密化晚登鉢盂峰苔巖聖禪者

行來石谷采幽蘭
過盡煙霞露未乾
倚杖鉢峰啼鳥遍
依巖流水瀑華寒
雲開斷壑山千傾
月照深沙水一灘
回首不堪霜夜坐
渾身寒色覺衣單

慧建菴同毅淑楊公子固居士賦得梅字

曉行清趣遠山開
又到名園看早梅
蕊綴晴霞春正好
香連曉雪玉方回
雕闌憑去閒敲韻
苦茗烹來且洗杯
賦罷瑤篇俱上馬
明朝有約又重來

又和毅淑楊公看梅原韻(諱彥浣)

南天未雪已多梅不似江城笛裏來韻就新篇茶正熟香飄細蕊雁初回
當年蠟屐遊難到此日柴門鎖更開不是撚須成五字文光早已奪高魁

次怡齋看梅原韻

鍊就鐵衣喜種梅梁城東上草堂開白沙隄擁連雲綻青草橋通帶雪來
幽徑風微香細細晴窗日暖粉皚皚誰知貴種人間少卻向名園日幾回

薛蘿居值玉林居士寫畫索句

煙霞深處結茆堂庭柏森森傲早霜好鳥窺人情自得閒僧著論理俱長
正逢裁紙圖山水卻聽歸禽下夕陽此境何妨看到夜明朝更欲到雲岡

荅參智禪者

檀山青靄葉榆邊萬樹寒猿叫曉煙濟上一宗歸錦里黔中半鉢老南禪
鐙明丈室談心夜道接長松近楚天自古英才梁益勝名聲總不別林泉

荅智足禪者

自理綸竿坐釣臺金鱗未躍白波開長歌幾曲思船子清韻一聯屬辨才
釣上生擒看自俊橈邊活捉信凡胎也知華首多燒尾故向波頭日幾回

和劉太史五月賞菊原韻

公招此月看幽香節候天中玉艷芳暑裏傍階五十朵經秋笑日兩三行
逸群不問梟羹賜送酒還思陶令長賞罷夕陽低在樹又攜竹杖去茆堂

又和九月賞梅華原韻

祇說天香九月開何知雪骨小春來從今石徑堪為友不向易臺定作魁
憶昔高峰曾落帽相將蹋月又銜杯此間自是無塵俗卻把荷衣細翦裁

又和六月賞海棠

洗琰梁園對海棠濃香露溼近秋光湯休此日耽佳句蘇子當時詠曉莊
最好全看金帶美含嬌不借玉盤良長知太史詩偏達吟作明河一片霜

又和池心石山

煙消始見立香瀾載酒來過不厭看袍笏拜時終姓米絲綸釣處定名礮
秋深待月常貪韻夜冷添衣宜壯觀多少遊人詞賦罷不須更論駿驕冠

送張旦平還浙中

離亭酒罷又從東折柳長橋興未終山路有程隨瘴日扁舟無恙挂秋風
霜楓遙憶吳江勝蘆荻相看秀水同話及汪倫情更切天涯分手笑談中

中秋後一日同文季公嵩山對月

天香幾樹野人家此夜烹茶望太華莫道金波前日別須知玉浪此宵奢
淒清最是秋梧葉^嫵媚無非上苑華見說峨嵋峰頂外看來別是一天涯

讀石門程昆明詩集

一代文章近在滇風流神宰益堪傳才高漢使鳴金馬力勝唐人詠玉篇
不放夔州稱獨步還輕供奉拂雙箋煙華^已滿奚囊日更鈔南華秋水篇

和而足許公登雞足偶成原韻(諱學夔)

探奇得得入雲來粉壁留題鬼亦哀石上素琴松入韻華間秋月影沈柝
蕭條籬徑迎春柳斷續谿煙破雪梅媿我無才用事拙揮豪依舊病魔催

又和過聖峰寺擬登絕頂不果原韻

乘興翻然上苑遊迢遙野望眾峰幽崖飛欲墮蒼雲石水落還驚白雪流
得意長多方外士怡情不乏掌中甌從來此地標題甚寫遍青山百尺樓

又和宿大覺寺原韻(公時赴宗人府經歷)

看盡雲山是幾年尋幽長在白華邊參差松竹如稽嶺起伏巖廊似輞川
倚柱敲詩秋夜月卷簾對菊午時煙公車北上京華日折柳橋頭廠盛筵

春王小坐傳衣寺茶華下

山茶一樹散春期靜對庭香雪老時獨有清芬如上苑絕無嬌氣似辛夷
巖蜂莫逐華須嫩草蜚長隨粉瓣窺不為興酣人便去判教夕照在東籬

送三山陳刺史還里

北上公車數十程明朝天末即孤征夜郎山色愁中過渝水煙光靜裏明
白兔亭邊青嶂月黃牛峽上紫猿聲不知別後遭何日相對山房欲二更

補遺

登高

倚杖千峰側裴回岳色孤霜催杞菊老風妒石苔臞白水流深淺青霞看
有無回頭尋去路落日倒荒蕪

溫泉

此泉流不歇濯濯蒼丘月月色深淺來上下照玉闕沉屣滌何良滑潤如
香醇洩洩日三潮靈物宅幽窟

贈小壺橋戎臺夏公

軍威百蠻靜昆海駐雕鞍弦動邊庭月弓懸老將壇勤王心耀日題柱篆
飛鸞肅殺才方歇休言歸挂冠

臘八日雪

邊地寒膠合橫窗映玉林天花散石砌山谷凍珍禽碎翦鵝毛淺屑飛洞
壑深漫言梅信早邀爻過幽岑

雜詩

昆明池似鏡微白月初來官渡漁鐙遠晉陽客夢催蕭森孤樹肅寂莫片
帆回借問梁城寺柴門可暫開

贈別思園余明府

握手嵩陽日論文如弟昆風流高北海著作邁南軒已固歸心切徒勞借
寇喧五華分別處去住兩難言

九日過衛府新剎梵剎贈尼性空

村村黃葉飛況復直重九我行南國西梵剎砌瓊玖金純亦界道高閣背
北斗能仁趺青蓮大士遙垂手已勝獨孤園末山道頗厚將軍每參隨侍
從皆蘭友咳唾西來意屈信鐵磨肘此是上上機爾今斷疑否

宿金閣寺示得實劉居士

偶來金閣宿茶花樹樹紅泉響龍窟近林深月影同愁時傾竹葉夢後憶
蠶叢回首雞聲碎清鐘杳靄中

壽弼臺張戎府

五岳高峨百川浚流福兮壽兮可以匹儔公之功宜勒鐘鼎公之德陰佐
王侯是故合十祝公之壽與福於萬斯秋

壽玄初劉居士

須彌不足喻河岳豈堪倫壽等虛空界此事不須論嵩山更有一般祝大
道之人何秋春

己酉菊月有居士吳井東鉏地得雲板一以送余余洒滌之見上
有小偈并署大元至正八年萬福山報國禪寺僧某鑄詢之故舊言今
白塔街即報國山門坐東面西洪武初移建別地今歸化即報國所移
殿閣耳遂作偈以識其事偈曰

大元招提物遺未四百年雖藏糞壤中終須無棄捐感爾一朝出使余淚
泫然浮生豈一夢世事如轉圜白首看人忙日日苦相煎若云各有適不
知總幻緣譬如報國寺今移歸化間誰是長年者無乃寄嵩山

禱雨

炎方草木死為薪見說今年是旱辰罪已回天宜此月開倉賑粟可蘇民
隨車即有仁王澤起稼還歸岳廟神感德元元泥首切家家齊際太平春

襖霖

獨是秋來雨色重
梁城日夜水淙淙
芳園未論海棠苦
田舍偏傷禾稼凶
當事蘇民情更切
名藩憂國意還濃
西郊禱後陰霾舉
一色青空挂日容

次月下看梨花原韻

春色溶溶上苑花
植根應得近官家
餘情幸不霑塵俗
高潔偏能淨晚霞
映石只愁香冷落
臨風學舞影橫斜
月明素練如何辨
一片清芬鬥麗華

夜泛昆池

閒來小艇泛滄浪
夜泊芳洲杜若香
漁火近人三百尺
楓楸隔渚十千章
停橈靜聽魴魚出
洗盞遙看蝙蝠翔
情切祇今秋水月
興闌猶在衲衣旁

再泛

明河泛泛迎秋月
華嶺飛飛出岫雲
望去蒼池開素練
行來白荻動清氛
競龍渡口鐙如畫
畫鷁船間醉正醺
愛此佳遊不易得
洞簫多在鏡中聞

贈擎天胡公

每望清華一色秋
飄飄桂氣上書樓
窗紗彩畫雲霞活
詞賦新奇李杜儔
愛客偏能忘勢分
談兵不必貴封侯
梁園孔雀屏開日
早見乘風作上游

再過金閣寺示晏然朱居士

再過龍宮動法雷
天花霑處淨氛埃
劈巢飛白新黏壁
裁紙臨池作賦才
宗說通融忘理事
生緣盡淨好裴回
信知金粟前身是
只任狂歌酒一盃

寄銅仁東山端居和尚

草堂東山陽崔嵬
摩高蒼下瞰銅巖
水春流浪花香歲
歲結珍果同根夜
郎鄉正有南歸雁
無書祇自傷教人
眠不得徒斷幾回
腸

示蒼雨書記

六合春蒼翠三川響怒濤此時天正好尋幽興益豪出雲峰如削墜壁石
似刀歸來嵩寺裏孤琴為爾操

贈育之張公北上

公車今北上明日下夜郎馬首關河遠征塗草木香春深荊國渡酒醉楚
人航若到燕然日題詩寄故鄉

壽高太夫人劉覺證

庭下芝蘭秀冠蓋舊聲名伯仲英雄并提兵各專城黃鶴今來下玄冠映
高旌林下如何祝上壽過錢彭

朗耀禪師塔銘

知幻即離始悟本末早剃須髮惟勤以學負笈南北融師磨琢瀝膽傾肝
大夢斯覺聲輪宣明雷震雞足黑白相從囊錫始出象教嚴設可侔身毒
法幢既摧叢席澹泊瓜瓞聯芳有人繼續我寫銘詩刻此貞石

雷宗遠為百歲婆祖夢乞偈刻石

擦手便歸去此事復如何一事無貪著勞生脫愛河秋風吹霜出月色滿
藤蘿滄海常變幻焉似百歲婆一朝辭親爰努力到坡陀故余作長句刻
之在雲窩

宗派偈

福宗妙果慧海心佛法洪祖道德溥鐙傳廣承真印化永維緣濬源普潤
芳顯覺天

(板存嘉興楞嚴寺經坊)

CBETA 贊助資訊

[. \(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https://www.cbeta.org/donation/index.php)

CBETA 成立於 1998 年，於 2023 年 8 月 7 日轉型成為基金會。成立多年來，一部部佛典在嚴謹控管中轉換為數位典藏，不只數量龐大，而且文字校訂精確可信，又加新式標點方便閱讀。「CBETA 電子佛典集成」不僅獲得國際學界的重視及肯定，也成為大眾廣為運用的公共資源，如此成果都是在廣大信眾及有識之士的支持下才得以實現。

對一個從事佛法志業的非營利團隊，能夠長期埋首理想、踏實耕耘是非常不容易的。如今，CBETA 運作經費日漸拮据，但「佛典集成」仍有許多未竟之功。因此，懇請大家慷慨解囊、熱情贊助，讓未來有更多更好的電子佛典。

您的捐款本會皆會開立收據，此收據可在年度中申報個人或企業的綜合所得稅減免。感恩諸位大德的善心善行，以及您為佛典電子化所做的一切貢獻。

信用卡線上捐款

本線上捐款與 netiCRM 及 NewbPay 藍新金流合作，資料傳送採用 SSL (Secure Socket Layer) 傳輸加密，讓您能夠安全安心地進行線上捐款動作。

不管您持有的是國內或國外卡，所有捐款最終將以新台幣結算，所以我們所開立的捐款收據也將以新台幣計。

線上刷卡支持定期定額與單筆捐款。（銀聯卡不支援定期定額）

[前往捐款](#)

劃撥捐款

郵政劃撥帳號: 5 0 4 6 8 2 8 5

戶名: 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欲指定特殊用途者, 請特別註明, 我們會專款專用。

線上信用卡 / PayPal 捐款

PayPal 是一個跨國線上付款機制的公司, CBETA 引用其服務, 提供網友能在線上使用信用卡或 PayPal 帳戶贊助 CBETA。

PayPal is an online system of a global payment solution. CBETA uses its service to provide the uses to donate by using the credit cards or PayPal account to support the CBETA project.

相關收據開立事宜, 由於付款幣別為美元, 我們除了會依您所贊助之美元金額開立收據外, 另我們會依捐款當日公告匯率開立台幣收據, 此收據為國內正式合法報稅憑證。

Since the donation made is in US currency, hence all the receipts will be issued in the US dollars consequently. However for the domestic donators, a Chinese official receipt will also be made according to the foreign exchange rate for the purpose of tax deduction.

[線上信用卡 / PayPal 贊助](#)

支票捐款

支票抬頭請填寫「財團法人佛教電子佛典基金會」。

For donations by check, please write the check to
"Comprehensive Buddhist Electronic Text Archive
Foundation".
